



정답 한눈에 보기

화법

001~030

본문 4~20쪽

- | | | | | |
|-------|-------|-------|-------|-------|
| 001 ③ | 002 ④ | 003 ⑤ | 004 ② | 005 ⑤ |
| 006 ① | 007 ③ | 008 ② | 009 ① | 010 ③ |
| 011 ④ | 012 ① | 013 ⑤ | 014 ④ | 015 ④ |
| 016 ⑤ | 017 ④ | 018 ⑤ | 019 ④ | 020 ③ |
| 021 ③ | 022 ④ | 023 ③ | 024 ④ | 025 ② |
| 026 ⑤ | 027 ③ | 028 ⑤ | 029 ③ | 030 ① |

작문

031~060

본문 22~38쪽

- | | | | | |
|-------|-------|-------|-------|-------|
| 031 ④ | 032 ④ | 033 ⑤ | 034 ④ | 035 ⑤ |
| 036 ③ | 037 ① | 038 ⑤ | 039 ⑤ | 040 ③ |
| 041 ③ | 042 ③ | 043 ① | 044 ⑤ | 045 ④ |
| 046 ③ | 047 ③ | 048 ④ | 049 ② | 050 ③ |
| 051 ③ | 052 ④ | 053 ⑤ | 054 ③ | 055 ③ |
| 056 ④ | 057 ② | 058 ⑤ | 059 ④ | 060 ④ |

문법

061~090

본문 40~50쪽

- | | | | | |
|-------|-------|-------|-------|-------|
| 061 ② | 062 ④ | 063 ① | 064 ⑤ | 065 ① |
| 066 ③ | 067 ⑤ | 068 ① | 069 ④ | 070 ② |
| 071 ② | 072 ① | 073 ③ | 074 ⑤ | 075 ④ |
| 076 ⑤ | 077 ⑤ | 078 ⑤ | 079 ② | 080 ③ |
| 081 ② | 082 ② | 083 ③ | 084 ③ | 085 ⑤ |
| 086 ③ | 087 ② | 088 ② | 089 ③ | 090 ④ |

독서

091~180

본문 52~90쪽

- | | | | | |
|-------|-------|-------|-------|-------|
| 091 ② | 092 ⑤ | 093 ③ | 094 ① | 095 ② |
| 096 ④ | 097 ⑤ | 098 ④ | 099 ③ | 100 ⑤ |
| 101 ② | 102 ⑤ | 103 ⑤ | 104 ③ | 105 ② |

- | | | | | |
|-------|-------|-------|-------|-------|
| 106 ⑤ | 107 ② | 108 ③ | 109 ⑤ | 110 ④ |
| 111 ① | 112 ⑤ | 113 ⑤ | 114 ⑤ | 115 ⑤ |
| 116 ③ | 117 ② | 118 ③ | 119 ② | 120 ④ |
| 121 ④ | 122 ③ | 123 ④ | 124 ③ | 125 ⑤ |
| 126 ③ | 127 ④ | 128 ① | 129 ④ | 130 ② |
| 131 ② | 132 ② | 133 ④ | 134 ③ | 135 ② |
| 136 ⑤ | 137 ② | 138 ② | 139 ① | 140 ⑤ |
| 141 ③ | 142 ⑤ | 143 ⑤ | 144 ② | 145 ④ |
| 146 ④ | 147 ④ | 148 ② | 149 ① | 150 ⑤ |
| 151 ④ | 152 ② | 153 ② | 154 ③ | 155 ① |
| 156 ⑤ | 157 ⑤ | 158 ⑤ | 159 ③ | 160 ③ |
| 161 ⑤ | 162 ⑤ | 163 ⑤ | 164 ⑤ | 165 ④ |
| 166 ③ | 167 ① | 168 ④ | 169 ③ | 170 ③ |
| 171 ⑤ | 172 ③ | 173 ④ | 174 ④ | 175 ② |
| 176 ③ | 177 ① | 178 ② | 179 ⑤ | 180 ① |

문학

181~270

본문 92~136쪽

- | | | | | |
|-------|-------|-------|-------|-------|
| 181 ③ | 182 ② | 183 ③ | 184 ③ | 185 ③ |
| 186 ③ | 187 ③ | 188 ④ | 189 ② | 190 ② |
| 191 ⑤ | 192 ⑤ | 193 ② | 194 ⑤ | 195 ③ |
| 196 ⑤ | 197 ② | 198 ⑤ | 199 ⑤ | 200 ③ |
| 201 ③ | 202 ② | 203 ④ | 204 ④ | 205 ④ |
| 206 ① | 207 ③ | 208 ① | 209 ② | 210 ② |
| 211 ③ | 212 ③ | 213 ④ | 214 ④ | 215 ⑤ |
| 216 ④ | 217 ① | 218 ① | 219 ② | 220 ② |
| 221 ⑤ | 222 ① | 223 ② | 224 ② | 225 ⑤ |
| 226 ② | 227 ⑤ | 228 ④ | 229 ⑤ | 230 ④ |
| 231 ③ | 232 ⑤ | 233 ③ | 234 ④ | 235 ④ |
| 236 ⑤ | 237 ④ | 238 ④ | 239 ⑤ | 240 ③ |
| 241 ④ | 242 ③ | 243 ③ | 244 ④ | 245 ⑤ |
| 246 ③ | 247 ③ | 248 ⑤ | 249 ⑤ | 250 ④ |
| 251 ④ | 252 ③ | 253 ④ | 254 ① | 255 ① |
| 256 ③ | 257 ⑤ | 258 ② | 259 ③ | 260 ② |
| 261 ① | 262 ④ | 263 ④ | 264 ② | 265 ④ |
| 266 ① | 267 ⑤ | 268 ④ | 269 ④ | 270 ① |

화법

001~030

본문 4~20쪽

- | | | | | |
|-------|-------|-------|-------|-------|
| 001 ③ | 002 ④ | 003 ⑤ | 004 ② | 005 ⑤ |
| 006 ① | 007 ③ | 008 ② | 009 ① | 010 ③ |
| 011 ④ | 012 ① | 013 ⑤ | 014 ④ | 015 ④ |
| 016 ⑤ | 017 ④ | 018 ⑤ | 019 ④ | 020 ③ |
| 021 ③ | 022 ④ | 023 ③ | 024 ④ | 025 ② |
| 026 ⑤ | 027 ③ | 028 ⑤ | 029 ③ | 030 ① |

001 토의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토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담화의 한 형태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대안을 탐색하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연구원은 자신이 발언의 기회를 얻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주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연구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통계와 조사 자료와 같이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④ 연구원은 교수의 의견에 대해 경제적 비용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 책임자의 의견에 대해 실효성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연구원이 비판적 듣기의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연구원은 ‘에너지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토의의 주제에 대해 원자력 정책 확대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연구원이 토의의 주제에 맞게 내용을 생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02 추가 자료의 활용 방안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제시된 자료는 산업 부문에서 1,000달러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 소비량을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동일한 가치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많아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60%를 산업 부문이 소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교수가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교수는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꾸준히 높여 온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연구원은 원자력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원자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의 산업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다.
 ② 연구원은 원자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우리나라의 취약한 에너지 수급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③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제시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
 ⑤ 정부 책임자는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에너지 절약 운동의 효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003 말하기 전략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토의에서 [D]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들 동의하시는 거지요?’라는 말은 토의 참여자들이 합의점을 찾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토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해 주는 발언에 해당한다. 또한 ‘지금부터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발언은 토의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발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너지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토의의 주제를 제시해 주는 동시에 주제와 관련된 실태(‘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1.9%씩 증가하고 있으나, ~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를 제시하고 있다.
 ② ‘지금 우리는 에너지 위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는 토의 주제를 정리하는 발언이며,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는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주는 발언이다.
 ③ ‘기업이나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라는 사회자의 발언은 토의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발언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④ ‘정부 책임자이신 □□□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사회자의 발언은 정부 책임자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토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004 말하기 계획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심 화제에 대한 통념이라든가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대담의 중심 화제는 ‘미세 먼지 및 초미세 먼지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는 미세 먼지



및 초미세 먼지의 개념과 그로 인한 폐해, 대응책과 같은 내용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자의 세 번째 발언에 미세 먼지 및 초미세 먼지의 위험성이 제시되어 있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언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언급되어 있다.

③ 기자의 네 번째 발언에서는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사무관과의 인터뷰 녹화 자료를 제시하여 대담과 관련된 취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④ 기자의 네 번째 발언에서는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질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기자는 이 내용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미비한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이 대담의 목적은 정보 전달로,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 먼지 및 초미세 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005 말하기 전략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대담에서 기자는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미세 먼지 및 초미세 먼지와 관련된 객관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기자는 두 기관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발언에서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네요.', '아직은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말씀이시군요.'와 같은 언급을 통해 기자의 앞 발언을 정리하면서 이어지는 질문으로 연결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두 번째 발언에서 질문을 통해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의 의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③ 기자는 다섯 번째 발언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여 먼지가 많은 날 운동하는 것은 해롭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④ 기자는 다섯 번째 발언에서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앞서 경험한 중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방법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006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기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크기를 통해 구별되며, 미세 먼지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지만 대부분이 코털이나 기관지에 달라붙어 걸러지는 반면 초미세 먼지는 폐나 혈관, 뇌까지 침투하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자는 대담을 통해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기자의 세 번째 발언의 마지막 부분에 정신적

측면에서도 초미세 먼지의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언급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앞부분에서 초미세 먼지가 신체에 끼치는 유해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정신적 측면에서의 유해성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기자의 네 번째 발언에 '미세 먼지 및 초미세 먼지의 최대 노출 허용 기준치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이라는 언급이 있으므로 현재의 허용 기준치 및 이를 강화할 경우의 효과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기자의 네 번째 발언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시스템의 구체적 형태를 설명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⑤ 기자의 네 번째 발언에서 애초에 먼지 발생이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언급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007 대화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아들이 가리킨 위치는 '시제에 오신다는 아버지의 재종형제'의 위치이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당숙의 자녀가 재종형제이다. 따라서 재종형제는 나와 6촌 지간의 형제다. 그런데 지문의 대화 상황에서, 아들은 '시제에 오신다는 아버지의 재종형제'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6촌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으면 된다. 또한 아버지와 나의 촌수는 1촌 관계이므로 7촌 관계에 있는 ㉠이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버지의 입장에서 당숙에 해당하는 분으로 나와는 6촌 관계의 친척이다.

② 아버지와 4촌 관계이고, 내 입장에서는 당숙에 해당한다.

④ 내 입장에서 6촌 관계, 즉 재종형제에 해당한다. 당숙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⑤ 내 입장에서 8촌 관계의 친척에 해당한다.

008 비언어적 표현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내가 괜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라는 아버지의 말에 '그럼요, 걱정 마세요.'와 같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처음 듣는 말이니?'와 함께 제시되어 다소 의아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③ 뒤의 '삼대'라는 언어적 정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④ 아버지의 사촌 형제에 대한 언급 이후, 그 사람과 아들의 촌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내 입장에서 보자면'과 같은 발화 내용을 보강하고 있는 표현이다.

⑤ 이어지는 ‘이제 다 알았어요.’라는 표현과 함께 아버지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는 표현이다.

009 말하기 전략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수업 중 발표이기 때문에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이다. 학급의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취미인 ‘캘리그래피’에 대해 알려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발표 주제로 ‘캘리그래피’를 선정했다는 발표 첫 부분에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발표 주제를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ㄱ). 캘리그래피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교지 표지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선아의 캘리그래피 작품을 본 경험을 제시하여 청중들이 캘리그래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다(ㄴ).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ㄷ. 발표자가 청중에게 발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지 질문하지만, 질문이 없어 추가적으로 발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ㄹ. 발표 내용은 캘리그래피의 특징, 연습 방법, 전망에 대해 각각 소개하고 있으며 발표 마무리 부분에서 이 중 일부를 다시 강조하고 있지 않다.

010 매체 활용의 적절성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C]에서는 동일한 작가가 같은 글자를 쓰더라도 그때마다 다르다는 캘리그래피의 특성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보여 주며 캘리그래피는 글자를 읽는 것뿐 아니라 글씨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먹물의 종류에 따라 감상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청중과 직접 대면하여 발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아의 작품이 있는 교지의 표지를 직접 보여 주고 있다.

② 같은 글자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에 어울리는 사진 자료를 제시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캘리그래피를 연습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청중에게 보여 줌으로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실제로 캘리그래피와 관련된 회사와 대학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여 주어 발표 내용에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11 의사소통 방법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에서 재식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의 말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공감적 듣기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재식이 상대의 상황이나 처지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상대의 입장이나

견해를 창의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의 부족함을 지적한 ㉞은 적절하지 않은 평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는 상대의 공감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재식은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나 설득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② ㉡: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여 표현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식은 자신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내가 착하니까 이해해주는 거지.’)하고, 상대에 대한 비방도 극대화(‘너는 항상 내 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부터 고쳐.’)하여 공손성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③ ㉢: 의사소통의 규칙이란 의사소통의 보편적 원리 또는 사회·문화적 관습으로 형성되었거나 의사소통 참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수준의 규칙 등을 의미한다. 재식과 같이 상대의 말을 끊고, 화제를 돌리는 것은 의사소통의 보편적 규칙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⑤ ㉤: 의사소통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므로 대화의 참여자들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재식은 대화를 거절하는 태도(‘너랑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다. 난 그냥 가 볼게.’)를 보이고 있어 의사소통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

012 말하기 내용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대화 함축에 대한 설명이다. 대화는 일반적으로 협력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나, 발화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깨뜨림으로써 발화의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A]에서 재식은 ‘비교적 한가한 일요일에 모이는 건 어때?’라는 민희의 질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 즉,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이어지는 재식의 말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A]에서 재식은 ‘나는 일요일에 시간이 안 돼. 일요일에도 해야 할 과제가 많아.’ 등과 같은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식의 이런 말에 대해 민희 역시 ‘우리 달려이라고 특별하지는 않아.’라고 말함으로써, ‘일요일에 바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야.’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나는 해야 할 과제가 많아.’는 재식의 발화 의도로 적절하나,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는 민희의 발화 의도로 볼 수 없다.

③ ‘다른 날에 모이는 것이 좋겠어.’와 ‘나는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 모두 재식과 민희의 발화 의도로 볼 수 없다.

④ ‘일요일에는 좀 쉬고 싶어.’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시간이 안 된다는 재식의 상황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제시된 민희의 발화 의도 또한 성립될 수 없다.

⑤ ‘일요일 빼고는 시간이 괜찮아.’는 재식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음



며, 재식의 말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지닌 민희가 '다른 날에 모이는 것이 좋겠어.' 라고 동의를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013 중요한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말하기 불안은 무대 공포, 수줍음, 부끄러움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에 앞서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말하기 불안은 대중적 말하기의 경험이 적거나 말하기의 환경에 친숙하지 않을 때,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성격이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탈 때, 청중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나타난다. 영철의 발언('나는 발표할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답답할 만큼 불안해져.')으로 볼 때, 영철은 대중적 말하기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 특히 영철의 '다른 아이들과 달리 내가 이상한 것 같아.', '과거에 실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더욱 긴장돼.' 라는 발언으로 볼 때, 말하기 불안을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말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는 조언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영철의 발언 중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긴장 되기는 마찬가지야.'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영철은 이미 발표 전에 몸의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영철의 발언 중 '특별히 청중이 신경 쓰이는 것도 아닌데, 자꾸 과거에 실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더욱 긴장돼.'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영철이 청중의 반응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영철의 발언 중 '아무리 말할 내용을 많이 준비하고 말하기 연습을 여러 번 반복해도 막상 발표할 때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영철은 충분히 발표 준비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민희의 발언 중 '너처럼 평소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애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는 내용을 볼 때, 말하기 불만의 원인이 성격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014 발표 전략의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세계 각국의 온난화 현상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세계 각국의 피해가 담긴 사진을 시각 자료로 활용하는 장면은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온난화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 통념을 제시하며 화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캐나다와 미국 등의 한파를 사례로 제시하여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한파 현상을 그림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이상 한파 현상을 지구가 스스로 과도하게 쌓인 열을 마치 털어 내듯이 진동하며 식히는 노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공생의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015 발표 전략의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시키는 것이지 청중의 지식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011년 1월 16일의 서울, 모스크바의 기온을 구체적 수치로 밝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② '마치 힘 빠진 팽이가 휘청거리며 도는 것처럼' 에서 발표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지구환경시스템학부 교수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그림 자료를 활용해서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016 발표 내용의 점검과 조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발표의 첫 문단에서 '겨울철에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 환경 회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발표는 기류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 현상이 중심 내용이다.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언급은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제시는 없이, 공생의 입장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기후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트 기류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한파가 제트 기류에 미친 영향은 발표 내용과 관련이 없다. 이 발표는 제트 기류의 변화로 인해 한파가 형성된 것을 다루고 있다.
 - ② 한파로 인해 평균 기온 상승이 주춤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없으므로 그 양상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 ③ 시작 부분에서 발표의 주제가 겨울철에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여름철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 ④ 한파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라고 예를 들어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제트 기류가 약해져 폴라 보텍스가 평상시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한 내용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17 토론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갯벌의 개발 방식에 대한 비과학성을 따지는 것은 토론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찬성 측은 입론에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들어 갯벌 개발에 대한 찬성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② 찬성 측은 2차 반론에서 환경 관리 시설 설치, 천연 동식물 보호 대책 수립, 동식물들을 위한 깨끗한 서식처 제공,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습지 생태 공원 건설 등의 대책을 근거로 들어 반대 측 주장

을 반박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입론에서 깻벌의 보존이 개발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⑤ 반대 측은 2차 반론에서 깻벌의 개발로 인해 깻벌의 오염 물질 정화 기능이 상실되며 새로운 토지 이용으로 각종 폐수와 쓰레기가 추가되어 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 측은 이를 통해 찬성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018 사회자의 역할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토론에서 제기된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토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회자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사회자의 세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사회자의 세 번째, 네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19 말하기 내용의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반박의 핵심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반박의 핵심은 상대 측 주장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찬성 측은 2차 반론에서 환경 파괴 예방 대책을 통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발언에서 깻벌의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이것은 찬성 측 주장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찬성 측 2차 반론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경제와 환경을 모두 고려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 측은 입론과 반론을 통해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③은 찬성 측 주장의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깻벌의 개발에 따른 어민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 상실은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지만, 찬성 측 2차 반론 내용과 관련이 없다.

020 토의 사회자의 역할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토의에서 '정민'은 사회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토의 참여자의 말에 사용된 모호한 표현에 대해 보충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④ '정민(첫 번째 말)'은 동아리나 방과 후 활동과 같은 학생 생활을 기획 기사의 주제로 삼자며 토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② ⑥ '정민(다섯 번째 말)'은 토의 중에 이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④ ④ '정민(네 번째 말)'은 '한솔'과 '예지'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있다.

⑤ ⑤ '정민(마지막 말)'은 다음 토의에서 다룰 내용을 언급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021 토의의 절차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A]에서 '한솔'이 학생회도 동아리에 포함시켜 기획 기사로 다루자고 한 제안은 소수 의견이다. '한솔'의 의견에 대해 '정민', '예지'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한솔'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A]에는 소수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따라가 대안을 마련하는 '대안 탐색' 과정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의 시작 부분에서 '예지'와 '한솔'은 토의 문제를 확인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② [A]에서 '예지'와 '한솔'은 주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④ [A]에서 '예지'와 '한솔'은 마련한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⑤ [A]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민'은 대안에 대한 의의를 살피고 있다.

022 실행 방안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제시된 토의에서 나온 방안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기획 기사의 내용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담당하는 것은 '정민'과 '예지'이다. 두 사람이 설문지에 대해 협의할 내용은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 "작년에 이루어진 동아리 주요 활동들이 학기별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물어보자."라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토의 전반부에서 학기별 주요 활동은 예전 기사에서 다룬 것이며 이번 기사는 예전 기사와 다른 내용을 다루자고 했으므로, 이 설문지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한솔의 여섯, 아홉 번째 말을 볼 때, 특색 있는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으므로 설문지에 포함될 내용이다.

② 한솔의 아홉 번째 말을 볼 때, 동아리 활동 중에서 힘든 점은 설문지에 포함될 내용이다.

③ 예지의 아홉 번째 말을 볼 때, 동아리 선후배 관계에 관한 내용은 설문지에 포함될 내용이다.

⑤ 예지의 아홉 번째 말을 볼 때,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지에 포함될 내용이다.

023 말하기 방식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반문이란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되반아 묻는 것을 가리킨다. ㉠에서 이모는 선아의 말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모는 선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가 한 말의 의도를 자신이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모는 '선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지.'라고 하며 선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편 이모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는냐는 선아의 말에 ‘그래, 어떤 일이지?’ 라고 물으며 대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② 이모는 ‘자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선아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모는 선아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를 물어보면서 선아의 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모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며 선아의 말에 대해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모는 ‘그런데 혹시 그 친구들이 네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서 선아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⑤ 이모는 선아의 말을 모두 듣고 나서 ‘그 친구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모는 자신이 판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가 만났던 친구들은 아직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준비가 덜 되었을 수 있어.’ 라고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024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 대한 발언 이전에 이모는 ‘대개 친구를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속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은 법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모는, 선아가 성급한 자기 노출로 인해 친구 관계 자체가 손상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급한 자기 노출로 인해 원만한 친구 관계 형성이 어려운 선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에는 지나친 자기 노출의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자기 노출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은 ④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했으므로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네 속마음을 드러내 주어야 해.’ 라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네 이야기만 강요하는 태도’는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했으므로 ‘친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친구들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적절한 자기 노출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의 양적·질적 측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므로 ‘마음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친구 관계가 돈독해질 것’ 이라고 기대해선 안 돼.’ 라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말은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했으므로 ‘네가 네 자신과 네 감정을 잘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025 발표 전략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옳지만, 청중과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각 매체를 활용해 그림을 보여 주며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발표 내용이 △△△ 교수의 『서로 다른 생각의 기원, 동과 서』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히며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재미있지요? (대답을 듣고) 재미있게 들어 주시니 다행이네요.” 와 같이 발표에 대한 청중의 흥미를 확인하고, “앞의 책에 소개된 또 다른 사례를 설명해 드리지요.”와 같이 다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⑤ ‘사과를 안 좋아하니?’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라는 특정 상황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청중의 예상 반응(“좋아하면 ‘아니요’, 안 좋아한다면 ‘네’ 라고 대답하시겠지요?”)을 설명하고 있다.

026 듣기 전략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며칠 전에 자신이 본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떠올리며 발표의 내용과 연결 지어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발표에서 생략된 내용을 추리하며 듣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보기>에서 듣는 목적에 맞게 의미를 재구성하며 듣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보기>에서 발표자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며 듣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보기>에서 발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듣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027 강연 내용의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강연 내용에서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을 ‘소통을 방해하는 말’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강연의 주제는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다. 강연에서는 이를 방해하며 감정적 대립을 유발하는 말로 ㉠, ㉡을 지적하고 있으며, 소통의 문을 열어 공감을 형성하게 하는 말로 사실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객관화하여 표현’ 하는 말과 ‘서로 원하는 욕구에 적절하게 주고받는 말’을 제시하고 있다. ㉢과 ㉣은 강연의 뒷부분에서 상대가 수용할 만한 욕구를 요청할 때 주의할 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028 강연 내용의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는 아버지가 보람에게 자신의 욕구를 밝히고 이를 받아들여달라는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의 '더 나빠.'는 보람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도덕적 평가에 해당한다.

② ㉔는 '아버지 맘'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보람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만한 욕구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임을 지적하는 말이다.

③ ㉔는 ㉔와 달리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보람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행동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다.

④ ㉔는 보람이 꾸중을 들을까 봐 걱정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확인한 뒤 꾸중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보람의 욕구를 받아들인 말이다. 아버지는 이와 함께 보람에 대한 아버지의 욕구도 밝히고 있다.

029 발화 의도의 반영 여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는 대화 상대인 예나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의 반언어적 표현인 '상냥한 목소리'는 언어적 표현과 어울려 상대방이 편안하게 용건을 말하도록 배려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㉔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어제 종례 시간에 안내했던' 정보가 대화의 화제가 맞는지를 즉각 확인하고 있다.

④ ㉔는 전화를 이용해 음성 통화를 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소개서 양식을 찾았음을 목소리를 크게 하여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⑤ ㉔는 밝은 목소리의 물음을 통해 상대의 의사를 거듭 확인함으로써 배려를 반감게 여기는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030 의사소통 전략의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은 통화하는 시간이 늦은 시간일 뿐 아니라 학생이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화자의 책임, 미안함 등을 거듭 나타내면서 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요청은 의문형의 발화를 통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미안함을 드러냈지만 화자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아서 화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아니므로 ①에 비해 적절성이 부족하다.

③ 책임을 화자 자신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분산시킴으로써 자신의 부담을 최소화하지 않고 있으며, ①, ②에 비해 선생님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적절성이 부족하다.

④ 자신보다는 상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화자 자신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③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부담을 주는 요구를 하고 있다.

⑤ ①과 비슷하지만 안내문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상대에게도 부담을 함께 지우고 있다.



작문

031~060

본문 22~38쪽

031 ④	032 ④	033 ⑤	034 ④	035 ⑤
036 ③	037 ①	038 ⑤	039 ⑤	040 ③
041 ③	042 ③	043 ①	044 ⑤	045 ④
046 ③	047 ③	048 ④	049 ②	050 ③
051 ③	052 ④	053 ⑤	054 ③	055 ③
056 ④	057 ②	058 ⑤	059 ④	060 ④

031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료 1>은 여가 활용의 실태에 관한 자료이며 <자료 3>은 여가 활용을 증시하는 다운시프트족에 대한 사전적 정의이므로 이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여가 활용이 부족한 원인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료 2>의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면 여가 생활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② <자료 4>의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 생활 만족도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③ <자료 1>을 통해 여가 활용의 실태가 텔레비전 시청과 가사일 등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⑤ <자료 1>을 통해 도시·농촌 간의 여가 활동의 차이를, <자료 4>를 통해 소득 수준별로 여가 활용이 어려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여가 활용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032 내용 생성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선호'는 여럿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당류 함유량이 높은 식품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글의 초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의 초안'에서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은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생활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② '글의 초안'에서는 매점이나 편의점에서 가공식품 등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경우가 60% 이상이라며 실태를 밝히고 있다.

③ '글의 초안'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가공식품은 일반 음식보다 당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고 밝히고 있다.

⑤ '글의 초안'에서는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1차적으로 비만을 야기할 뿐 아니라 당뇨병, 고지혈증, 충치 등과 같은 2차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033 자료의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의 자료는 아침 식사 여부와 학업 성취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형성됨을 보여 주는 자료이나, 성별에 따른 아침 식사 습관 차이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평균적으로 일일 권장량 이상의 당류를 섭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㉔는 음료별 평균 당류 함유량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량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③ ㉔는 동일한 양이라 하더라도 음료에 따라 첨가된 평균 당류 함유량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④ ㉔는 아침 식사 여부와 학업 성취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형성됨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청소년기 식습관의 중요성을 밝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034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초안'의 중심 내용은 당류 섭취를 적당히 하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자는 것인데 ㉔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는 ○○하게'라는 부분에서 대구법도 활용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영양소의 섭취'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당류의 적절한 섭취'라는 표현은 당류가 부족하여 기준에 맞도록 당류를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대구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② '영양소의 섭취'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초안'의 '문제의식'과는 다른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

③ '초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대구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⑤ "너무 ○○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에서 대구법은 활용되었으나, '초안'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035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료 5'는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 준다. 또한 'II-2-(3)'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들을 고려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적극적 홍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료 3'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㉔는 '재판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② ‘자료 2’와 ‘자료 4’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의 하위 항목에 추가하면 ‘II-3-(1)’과도 호응이 된다.

③ ‘자료 1’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 중 하나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은 ‘II-1’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야 한다.

④ ‘자료 4’와 ‘II-2-(1)’은 배심원이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루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에 ‘배심원의 법적 전문 지식 배양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를 하위 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036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어울린다. 또한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법부와 국민의 노력이 ‘사법 정의 실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국민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② 국민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④ ‘사법 권력이 보배가 되어 국민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맞지 않고 국민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정착을 위해 보수 문제와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주장한 것으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037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대화에서 ‘건우’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관계자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여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한다. 또한 서론에서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힌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은 불필요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보기>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관계자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였다. ‘3-가’와 대응하려면 구성이 천편일률적으로 반복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예상 독자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관계자들’이라는 점에서 시청자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2-나’와 대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진솔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함.’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2-다’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의 문제점으로 ‘참여자의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고 특정 장르의 음악만을 다룸.’을 지적하였으므로,

이와 대응될 수 있도록 ㉢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 음악적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다루는 것은 적절한 수정 내용이다.

⑤ <보기>에서 ‘건우’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목적이 변질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하고 있다. 또한 ‘건우’는 글의 결론에서 예상 독자에게 당부의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방송 관계자의 문제점 인식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디션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적절하다.

03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서 ‘민지’는 글의 목적을 정서 표현에 두고 있으며, 예상 독자를 ‘오디션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오디션 프로그램이 감동적인 이유를 부각하며 인상적으로 글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⑤는 ‘방송 속 웃음이라고 모두가 의미 없는 웃음은 아닙니다.’라는 부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의 생각을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유적 표현(‘꽃봉오리 같은 웃음’, ‘자신의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을 활용하여 오디션 프로그램이 감동을 주는 이유(‘활짝 필 봄날을 기다리며 고된 시간을 견뎌 온 그들을 보고 있으면~’)를 부각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 희망이 생겨납니다.’라는 부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예상 독자도 드러나지 않았다.

②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민지가 쓰려는 글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③ 글의 목적과 주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데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오디션 프로그램이 감동을 주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④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상 독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039 글쓰기 전략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예상 독자 분석’에서 청소년들이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예방법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글쓰기 계획’에서는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제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청소년들이 많이 마시는 제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하여 알려 준다면 청소년들은 어떤 제품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② 카페인 섭취와 관련된 예상 독자의 잘못된 인식을 조사하여 알려



준다면 카페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③ 고카페인 음료 판매 실태와 섭취량 증가 추이를 제시하면, 이에 무관심했던 청소년들에게도 카페인 과다 섭취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다.

④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의학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제시한다면 청소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카페인 과다 섭취의 해로움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040 글쓰기 전략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글쓴이는 글의 중간 부분에서 문제의 원인, 즉 학교 동아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쓴이는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의 동아리 수를 비교하여 우리 학교의 동아리 수가 적음을 밝히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통계 자료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동아리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 원인의 분석에는 유추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교 동아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당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 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②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 동아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④ 동아리 개설을 신청했던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리 개설 및 활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⑤ 동아리 개설 및 활동 규정을 개정하면 얻을 수 있는 동아리 활성화의 효과까지 제시하여 제안의 타당성을 밝힘으로써 독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041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주어 '그것은'의 지시 내용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이므로 서술어는 그 원인을 밝히는 내용이 되도록 '적기 때문입니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전개되므로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어인 '그런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어야 한다. ㉡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곰곰이'로 고쳐야 한다.

④ '교정'은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등을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이므로,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한다는 의미의 '개정(改定)'으로 고쳐야 한다.

⑤ '동아리 개설 및 활동 규정'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이나 그 효과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

042 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서 번역 도서가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손쉽게 받아들이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의미

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번역 도서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번역 도서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번역 도서가 넘치는 이유로 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출판사가 상품성이 인정된 책을 단기간에 출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번역 도서는 많지만 몇몇 나라의 상업적인 책에 치중해 있고, 출판의 속도는 빠르지만 번역 도서의 질은 떨어지며, 상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명인의 이름만을 차용하거나, 한 권의 원서를 여러 권으로 분책하는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번역 도서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043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용'은 '잘못 사용함.'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약물 오용으로 부작용이 생긴다.'의 예처럼 사용된다. 여기서는 문맥상 유명인의 이름만을 가져와 사용하는 대리 번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쓰다.'라는 뜻의 '차용'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는 출판의 속도는 빠르지만 번역 도서의 질은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사례로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원서를 여러 권으로 분책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출판사의 상업적 전략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하지만 문장의 위치 때문에 앞 문장의 사례로 제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꾸어야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③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고려하여 문장 사이에 접속어를 넣어 주는 것이 적절하다.

④ 번역 문화의 개선 방안과는 관련성이 적고, 출판 시장 개방의 필요성에 관한 서술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상 통일성이 떨어진다.

⑤ 피동 표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문장에서는 능동 표현으로 바뀌 표현하는 것이 좋다.

044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불필요한 피동 표현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두 번째 문단에서 반복되는 주어 '저는'을 생략하였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음악 감상과 독서를 좋아한다.'라는 내용과 세 번째 문단의 '음악 동아리 활동'에 대한 계획은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였다.

③ 두 번째 문단에서 봉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평소 봉사 활동을 좋아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저는 봉사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무한한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를 앞뒤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무한한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로 수정하였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 '저의 장점을 살려' 앞에 '이와 같은' 을 넣어 글의 응집성을 높였다.

045 글쓰기 전략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과제 수행 기록' 에 따르면 학생은 숲 파괴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공간적 내용 조직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쓰기 과제인 그림을 분석하여 '숲 파괴를 경계하자.' 라는 글의 주제와 목적을 설정하였다.

② 처음, 중간, 끝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③ 인터넷과 환경 서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⑤ '끝' 부분에서 종이를 함부로 사용해 온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있다.

046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무가 곧게 뻗은 숲은 생명의 샘이지만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들은 생명의 무덤이 되고 만다.' 라는 표현에는 대조와 비유가 활용되었고, 그림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숲 파괴로 위태로워진 지구의 환경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표현을 통해 글에서 다룰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림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았다.

② 대조가 반영되지 않았다.

④ 비유가 반영되지 않았다.

⑤ 글에서 다룰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047 작문의 과정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작문에서 예상 독자의 흥미와 관심사에 비추어 주제를 정하거나 내용을 생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작문 일지 2문단에서 예상 독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을 생각하며 글로 쓸 내용을 선정하고 있고, 3문단에서 예상 독자가 학급 친구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의 관심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작문에서 내용 생성 시 그 원천은 주로 자신의 경험 및 배경지식이거나 책, 인터넷과 같은 참고 자료가 된다. 작문 일지 2문단에서 내용 생성을 위해 '내가 친구에게 손 편지를 썼던 경험, 친구로부터 손 편지를 받았던 경험' 을 떠올렸다고 했으므로 ①은 적절하다.

② 작문 일지 1문단에서 '노트 위에 친구라는 단어를 쓰고, 이로부터 연상되는 단어를 이어 적' 는 것은 자유롭게 단어들을 떠올리는 방식

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손 편지로 우정을 돈독히 다지자.' 라는 주제를 정할 수 있었으므로 ②는 적절하다.

④ 작문에서는 예상 독자의 지적 수준,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어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3문단에서 '글을 읽게 될 학급 친구들이 누구나 알 만한 쉬운 어휘' 를 사용하였다고 했으므로 ④는 적절하다.

⑤ 작문의 점검 단계에서는 글이 통일성, 응집성 등을 갖추었는지, 어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3문단에서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 은 없는지(통일성),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자신 없는 부분' 은 없는지(어법의 정확성)를 점검하였다고 했으므로 ⑤는 적절하다.

048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에서는 새로운 행사 계획을 기사에 넣으면 활동이 풍부해 보일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고'에서는 국토 기행 동아리와 연합하여 명소 체험 학습을 해 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새로운 계획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대구 표현을 사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아리 성격을 제목에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독서 지도반, 영어 회화반, 체육 활동반, 음악반, 미술반의 소모임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대가족 체제처럼 조직되어 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토요 돌보미 교실의 특징' 중 첫째와 둘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학기 중 활동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이며, 활동 장소는 ○○ 초등학교' 라는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49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을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로 수정하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활동을 합니다.'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 1>에서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싣' 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활동 장면이 담긴 사진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앞 문단에서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라고 이유를 묻고 있으므로 ㉡은 '그 이유는' 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뒷 문장은 가족처럼 서로의 정을 느끼며 교감하는 소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은 이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므로 문장의 순서를 뒤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보기 1>에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 자고 제안하고 있다.



050 글쓰기 구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은 다양한 나무의 종을 다양한 문화로 유추하였고, '자국의 고유문화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주장하는 글'이라고 표현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글의 목적을 설득에 두었다. 또한 '단일한 종의 나무로 구성된 숲은 위험에 취약하다.'라고 하여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특정한 품종의 나무가 병균이 퍼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이라고 하여 세 번째 조건은 만족시켰지만, 나머지 두 개의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② '뜰에 나무를 심으려는 사람들에게 아무 나무나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글을 쓸 수 있겠어.'라고 하여 두 번째 조건과, '동일한 병균에 강한 나무와 취약한 나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이라고 하여 세 번째 조건은 만족시켰다. 하지만 첫 번째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④ '우리 사회에 매우 큰 해악을 주는 범죄자를 어느 정도는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라고 하여 두 번째 조건의 일부(글의 목적을 설득에 둘 것.)만 만족시켰다. 하지만 나머지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⑤ '고령화 문제를 급하게 처리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첫 번째 조건과, '산림녹화를 위해 지나치게 서두른 사업이 오히려 숲의 건강성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활용하면'이라고 하여 세 번째 조건은 만족시켰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051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들의 SNS 이용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SNS 이용 시간이 과도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SNS 이용 목적이 바람직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한 것이다.

② 설문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업 및 일상생활에 끼치는 SNS의 악영향에 대해서 쓰겠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052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SNS가 친교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중독성이 강하여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학업 및 업무에 악영향을 주며,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SNS 이용 시간이 과도한 것이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만을 가지고 SNS 이용을 취미로 여기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SNS의 이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글이므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SNS 이용의 긍정적 효과는 주제와 거리가 멀다.

⑤ (나)를 통해서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SNS의 목적과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053 내용 생성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조사 내용은 청소년의 똑똑손전화 중독이 갖는 심각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또한 글의 목적(설득), 예상 독자(청소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 글의 주제(청소년의 똑똑손전화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를 종합할 때, 글의 서술 방향은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는 ⑤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조사 내용에서 똑똑손전화 중독의 원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을 예상 독자로 하는 글에 적합한 당부 내용으로 이 글의 주제와도 어긋난다.

② 조사 내용에서 성인의 똑똑손전화 중독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예상 독자와 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연령대에 따라 각기 다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조사 내용에서 똑똑손전화 중독의 부정적 영향(뇌의 기능 저하, 충동성)을 이끌어 낼 수는 있으나, 예상 독자(청소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와 글의 주제(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를 고려할 때 똑똑손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처벌하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똑똑손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50%라는 점에서 제시된 내용은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볼 수 없다.

④ 조사 내용에서 청소년들이 똑똑손전화를 활용하는 양상을 분석할 수 없다. 또한 똑똑손전화 중독 현상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주장하는 것은 글의 주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054 내용 생성 및 조직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내용은 내용 생성의 전략으로 자유 연상에 해당한다. 자유 연상은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며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으로 창의적인 사고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 연상의 방법은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성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은 학생의 작문 초고에 제시된 '개인적 요인은 사회가 개입할 수 없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사회 제도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자유 연상에서는 저출산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나누지 않고 단순히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작문의 초고에서는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저출산의 요인)를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보기>의 자유 연상에서 '왜 문제일까?'는 작문의 초고 중 서론에서 문제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보기>의 자유 연상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작문의 초고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공공의 차원에서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⑤ <보기>의 자유 연상에서 '연관된 사회 문제가 뭐지?'는 작문의 초고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시된 내용은 고령화 사회의 원인과 대책으로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라는 작문 주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055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ㄷ을 보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은 국가가 함께 출산율도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ㄷ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함께 출산율 간에는 관련성(상관관계)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의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초고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로 인한 사회 활동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이나 사회생활의 참여에 소극적인 여성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을 보면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이나 보육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로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하다.

② ㄴ을 보면 직장 여성들의 출산·육아와 관련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모성 보호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내용으로 볼 때, 이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ㄱ에서 프랑스는 직장 여성들의 근무 복지를 향상하는 데 3%가 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ㄴ에서 직장 여성들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모성 보호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ㄱ과 ㄴ 모두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이다.

⑤ ㄱ은 출산과 보육 지원에 드는 재정 현황이나 복지 제도의 실태 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며, ㄷ은 우리나라의 함께 출산율과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하다.

056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결혼 이민자들에게 봉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결 방안'은 이전 단계의 '문제의 원인'에서 제기된 항목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즉, '다문화 가정의 소득이 일반 중산층 가정의 소득에 비해 적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민자들의 외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지방 기업들과 일하기를 원하는 결혼 이민자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마련 등의 내용이 더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결혼 이민자 수가 변화한다는 것은 그에 비례하여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태를 보여 주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②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다.

③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 방안이다.

⑤ 상담 기회를 갖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57 글쓰기 전 사고 과정의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학생은 '학교 체육관의 주말 개방'에 대한 주제로 사고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나)의 학생은 '참! 우리 학교 배드민턴부가 올해 전국 체전에서 우승을 했었지. 우승한 선수들 기분은 어땠을까?'라고 하며 주제에서 벗어난 사고도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효과적인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 학생은 (나)이다. '건의하는 내용을 그냥 나열하기보다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더 좋겠지?'라는 사고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와 (나)의 학생 모두 글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가)의 '나는 학교 체육관의 주말 개방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에, (나)의 '학교 체육관의 주말 개방에 대해 글을 쓰고 싶은데'에 글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④ 예상 독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학생은 (가)이다. '그런데 내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지? 그래, 교장 선생님이지구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학생의 사고 과정에는 예상 독자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매체를 통해 찾아보려 하고 있는 학생은 (나)이다. (가)의 학생은 자료를 찾아보려 하지 않고 일단 글을 쓰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058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은 <보기>의 예상 독자 분석 중에서 기대 수준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기>의 기대 수준은 동물 실험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 ㄱ은 동물 실험의 경제적 효용성을 언급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은 <보기>의 '주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다. 설문 조사 결과,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동물 실험의 부작용'을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ㄴ은 <보기>의 '사전 지식'과 관련된다. 독자가 동물 실험이 왜 나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했으므로, 동물 실험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의 사례를 통해 동물 실험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ㄷ은 <보기>의 '주제에 대한 관심 정도'와 관련된다. 동물 실험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과 약품이 동물 실험 결과와 관련된다는 점을 들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④ ㄹ은 <보기>의 '작문 과제'와 관련된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글 쓰기가 과제이므로 찬성하는 학생들에게 찬성의 근거 사례와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059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동도서관 문제는 동네 서점의 활성화 문제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II-1-가~다'는 동네 서점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상위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

② 가격 할인 경쟁은 유명무실한 도서 정가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③ 상위 항목이 '동네 서점 위축의 원인'이므로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하위 항목이 되어야 한다.

⑤ 'II-2-라'에서 '동네 서점만의 이점을 살리는 전략의 미비'를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전략 모색'으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060 작문 목적의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동네 서점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은 동네 서점 운영자가 해야 할 일이므로 지역 주민을 예상 독자로 한 글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동네 서점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동네 서점 운영자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동네 서점 운영자에게 이를 촉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② 지역 주민에게 동네 서점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동네 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쓸 수 있다.

③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도서 접근성을 확대하고 구매의 다양한 통로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⑤ 동네 서점 운영자의 입장에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문법

061~090

본문 40~50쪽

061 ②	062 ④	063 ①	064 ⑤	065 ①
066 ③	067 ⑤	068 ①	069 ④	070 ②
071 ②	072 ①	073 ③	074 ⑤	075 ④
076 ⑤	077 ⑤	078 ⑤	079 ②	080 ③
081 ②	082 ②	083 ③	084 ③	085 ⑤
086 ③	087 ②	088 ②	089 ③	090 ④

06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은 조음 위치는 양순음, 치조음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음 방식만 비음과 유음으로 바뀐 경우이므로 정답이 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아닌 조음 방식에 동화된 것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은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었지만 ㉡은 음절 초의 자음이 바뀌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뀌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은 변화의 결과 된소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062 형태소의 개념, 특성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검붉다'는 합성어로 어근 '검-'과 어근 '붉-'이 결합한 것이다. '검붉고', '검붉으니' 등의 활용형을 고려하면 어간이 '검붉-'임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치숫다'는 어근 '숫-'에 접두사 '치-'가 결합한 것이다. '치숫아', '치숫은' 등의 활용형을 고려하면 어간이 '치숫-'임을 알 수 있다.
 ② '잡히다'는 어근 '잡-'에 피동 접사 '-히-'가 결합한 것이다. '잡히고', '잡히니' 등의 활용형을 고려하면 어간이 '잡히-'임을 알 수 있다.
 ③ '설익다'는 어근 '익-'에 접두사 '설-'이 결합한 것이다. '설익은', '설익어서' 등의 활용형을 고려하면 어간이 '설익-'임을 알 수 있다.
 ⑤ '날아가다'는 합성어로 어근이 '날-'과 '가-'이다. '날아가니, 날아가고' 등의 활용형을 고려하면 어간은 '날아가-'이다.

063 문장 성분의 분석,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주격 조사 '이/가'와 보격 조사 '이/가'는 형태가 같아도 문장 성분은 주어와 보어로 분명히 구분된다. ㄱ에서 안긴 명사절의 주어는 '민수가'이고 보어는 '의사가'이며 서술어는 '되었음'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전체 문장의 주어는 '나는'이고 전체 문장의 목적어는 '민수가 의사가 되었음을'이며 서술어는 '알았다'이다. 목적격 조사 '을' 앞의 '민수가 의사가 되었음'은 명사절로 안긴 것이다.
 ③ '밝게'는 형용사 '밝다'의 어간 '밝-'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이루어진 말로,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빛나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어이다.
 ④ '응'은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모든 감탄사는 문장 내 다른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 문장 성분인 독립어로 쓰인다.
 ⑤ '이제야'는 문장이나 절 전체를 꾸며 주지 않고 '알겠어'만을 꾸며 주므로 성분 부사이다.

064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단어 '첫째'가 ㉠에서 설명한 수사로 쓰인 것은 '처음에 헤아리는 수'를 뜻하면서 그 뒤에 조사가 결합된 ㉡이고, ㉢에서 설명한 관형사로 쓰인 것은 '순서, 차례가 먼저'를 뜻하며 뒤에 놓인 체언을 수식하는 ㉣이다. 또 명사 중 ㉠에서 설명한 ㉣이 가리키는 '말이'의 뜻으로 쓰인 것은 ㉤이고 ㉡에서 설명한 ㉣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065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어떤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안면'은 '얼굴'의 유의어이나 '얼굴'이라는 의미 외에 '서로 얼굴을 알 만한 친분'이라는 의미만 있으므로 ㄱ의 문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어떤 심리 상태가 나타난 형색(形色)'이라는 의미로, '그는 너무도 놀라 낮이 나간 표정이었다.'로 교체 가능하다.
 ③ ㉣은 '주위에 잘 알려져서 얻은 평판이나 명예. 또는 체면'이라는 의미로,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분을 대하겠느냐?'로 교체 가능하다.
 ④ ㉤은 '어떤 사람의 자취나 흔적'이라는 의미로, '그녀는 그날 이후 모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로 교체 가능하다.
 ⑤ ㉦은 '어떤 사물의 진면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 표상'이라는 의미로, '고려청자는 고려 시대 문화재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다.'로 교체 가능하다.



066 음운 현상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살살이’가 [산싸치]로 발음되는 것은 ‘살살이 → [산살이] → [산 이] → [산싸치]’로 분석할 수 있다. ‘살살이 → [산살이]’에서는 음절의 끝소리에 놓인 자음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며(㉠), ‘[산살이] → [산 이]’에서는 ‘ㄷ’과 ‘ㅌ’ 두 개의 안울림소리가 만나 뒤의 소리 ‘ㅌ’이 된소리 ‘ㅌ’으로 발음되었다(㉡). 또한 ‘[산 이] → [산싸치]’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가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 ‘ㅌ’으로 바뀌어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은 비음화 현상으로 제시된 단어의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은 연음 법칙으로 제시된 단어의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067 형태소의 특성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가며’는 ‘오-+가-+며’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근+어근+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다. 즉, ㉠은 어근을, ☆는 굴절 접사(어미)를 가리킨다.

‘치솟아’는 ‘치-+솟-+아’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파생 접사+어근+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다. 즉, ◇는 파생 접사를 가리킨다.

‘잡히다’는 ‘잡-+히-+다’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근+파생 접사+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다. 즉, ‘-히-’는 파생 접사이며 ◇로 기호화된다.

‘되살리고’는 ‘되-+살-+리-+고’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파생 접사+어근+파생 접사+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며, 이를 주어진 기호로 나타내면 ‘◇+㉠+◇+☆’가 된다.

068 겹문장의 구조 분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관형절 ‘우리가 입학할’로서, 관형절을 만드는 어미 ‘-르’이 쓰였다. ㉡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 ‘저곳이’와 안긴 절의 주어 ‘우리가’는 서로 다르므로 둘 다 나타나 있다.

㉣ ‘㉠ 네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다’와 ‘㉡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다’는 서로 대칭적이고 독립적이다. 이들은 ‘나열’을 의미하는 연결 어미 ‘-고’를 통해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 ㉢에서 ㉡의 주어는 ‘네가’인데, ㉠에 동일한 주어가 사용되어 있으므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되어 있다.

㉥ ㉡의 ㉠은 관형절 ‘우리가 입학할’이며, ㉢의 ㉡는 명사절 ‘네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이다. 따라서 안긴 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069 지시어의 쓰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을’은 ‘갑’이 말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랬군요’가 적합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에서 ‘을’은 ‘갑’이 이전 발화에서 말한 ‘책’을 언급하기 위해 지시 관형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를 선택해야 한다.

㉣ ㉤에서 ‘을’은 ‘갑’이 이전 발화에서 언급한 ‘시작해 봅시다’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러지요’를 선택해야 한다.

㉥ ㉦에서 ‘갑’은 자신이 이미 말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그’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 ㉨에서 ‘갑’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앞으로 말할 내용을 미리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것’만이 허용된다.

070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들어서다’, ‘들어오다’는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서다(들어서다)’,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다(들어오다)’ 등으로 ‘들다’ ㉠의 뜻을 살리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나누는 것은 하나의 표제 단어 안에서 다의어 관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며, 대개 번호가 앞인 것이 중심적 의미, 뒤의 것이 주변적 의미이다. 표제어 번호가 별개인 것은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전국에 풍년이 들다’에서 쓰인 ‘들다’의 의미는 ‘어떤 일이나 기상 현상이 일어나다’의 뜻으로 ‘풍년이 들다, 한파가 들다, 가뭄이 들다’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제시된 예문의 ‘들다’ ㉠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 ‘들다’ ㉠ 뜻의 유의어로는 ‘가지다, 쥐다’ 정도를 제시할 수 있겠으나, ‘올리다’는 들어맞지 않는다. 만약 ‘역기를 들다, 손을 들다’에 쓰인 ‘들다’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면 ‘올리다’를 유의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들다’의 속담은 ‘들다’와 ‘나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나, ‘들다’의 속담에 쓰인 ‘나다’는 ‘일을 마치고 나니’와 같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서 뜻이 다르다.

071 음운 현상의 이해,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첫날’은 ‘처+날’에 사이시옷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본래 받침에 ‘ㅌ’을 가진 관형사 ‘첫’과 명사 ‘날’이 합성된 단어이다. [천날]로 발음되어 ‘ㄴ’이 덧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이시옷 현상이 아니라 [천날 → 천날]과 같이 앞말의 받침 ‘ㄷ’이 뒷말의 첫소리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자음 동화)에 의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④ ‘길가’와 ‘장맛비’는 뒤의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 경우로, ‘장맛비’와 달리 ‘길가’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은 것이다.

③, ⑤ ‘כות물’과 ‘나뭇잎’은 합성어를 이룰 때 ‘ㄴ’이 첨가된 경우로, ‘כות물’은 ‘ㄴ’이 하나, ‘나뭇잎’은 둘 첨가된 것이다.

072 단어의 구조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반짝매장’은 ‘반짝’이라는 부사와 ‘매장’이라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맷시꽃’은 ‘맷시’라는 명사와 ‘꽃’이라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③ ‘지붕장’은 ‘지붕’이라는 명사와 ‘장’이라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④ ‘뗏글씨’는 ‘뗏’이라는 명사와 ‘글씨’라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⑤ ‘책길잡이’는 ‘책’이라는 명사와 ‘길잡이’라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073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구체적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ㄴ의 ‘잡혔다’는 주어(이 문장에서는 ‘토끼 한마리가’)와 필수적 부사어(이 문장에서는 ‘포수에게’)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ㄹ의 ‘입히셨다’는 주어인 ‘어머니께서’와 필수적 부사어 ‘아이에게’와 목적어 ‘옷을’을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ㄴ은 포수가 스스로 동작을 하는 능동 표현이며, ㄴ은 토끼가 포수에 의한 동작을 당하는 피동 표현이다.

②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 ‘~에/에게, ~에 의해’ 등으로 나타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④ ㄷ은 주동 표현이고 문장의 주체는 ‘아이’이다. ㄹ은 ㄷ의 사동 표현으로, ‘어머니’는 ‘아이’에게 ‘옷을 입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주체가 된다.

⑤ ㄹ은 사동 표현으로, ㄹ의 ‘입히다’는 ‘입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것이다.

074 담화의 유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매체의 성격, 예상 독자(청자)에 따라 담화는 그 형식을 적절하게 바꾸게 되며, 담화에 따른 문법적 특성을 지닌다. ⑤에서 지적한 내용은 대개 문장의 적절성을 갖추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가)에서 쓰인 피동 표현 ‘-게 되-’가 (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는 ‘민원인의 질문과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라는 구어적 상황을 가정하여 담화가 구성되어 ‘요’와 같은 종결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나)에서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담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오체의 상대 높임 표현, ‘-(으)시-’를 통한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가)가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나)의 담당자 답변 문장에서는 주제에 따라 두 문장으로 나누어 재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쓰인 ‘영위’, ‘교부’, ‘매입’, ‘발생’ 등은 주로 법률문과 같은 문장에서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이다. (나)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이들 한자어를 고유어나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쓰는 한자어로 교체하였다.

075 단어의 구조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하얗-’이 어미 ‘-아’와 결합하면 어간 ‘하얗-’이 변할 뿐만 아니라 어미 ‘-아’도 변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쓰-’가 어미 ‘-어’와 결합하여 ‘써’가 되는 과정에서는 ‘쓰-’의 모음 ‘ㅡ’가 탈락한다.

② ‘긋-’이 어미 ‘-어’와 결합하여 ‘그어’가 되는 과정에서는 ‘긋-’이라는 어간이 변화한다.

③ ‘하-’가 어미 ‘-아’와 결합하여 ‘하여’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미 ‘-아’가 ‘-여’로 변화한다.

⑤ ‘잡-’이 어미 ‘-아’와 결합하여 ‘잡아’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간 ‘잡-’과 어미 ‘-아’ 모두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076 단어의 구조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꿈’은 ‘꾸-’에 명사 파생 접사 ‘-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고, ‘비움’은 ‘비우다’라는 동사의 활용형으로, 동사의 어간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다. ‘탐구’에서 ‘꿈’은 관형어 ‘놀라운’의 수식을 받지만 부사어 ‘놀랍게도’의 수식은 받지 않았다. 반면, ‘비움’은 부사어 ‘철저히’의 수식을 받았다. 따라서 ‘비움’은 용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한다. 따라서 ‘비움’과 달리 ‘꿈’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꿈’이 체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꿈’의 경우 ‘-ㅁ’이 파생 접사이고, ‘비움’의 경우 ‘-ㅁ’이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파생 접사 ‘-ㅁ’과 명사형 전성 어미 ‘-ㅁ’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어간에 ‘-ㅁ’이 결합했다는 점만으로 ‘꿈’과 ‘비움’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② ‘꿈’은 ‘꾸다’와, ‘비움’은 ‘비우다’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결론의 내용을 도출할 수 없다.



③ ‘꿈’이 ‘꾸다’와 호응하는 것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과 관련이 없다.

④ ‘비움’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는 점을 근거로 ‘비움’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활용형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명사도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077 음운 변동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중-+-은 → [조:은]’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며, ‘맑-+-아서 → [마:나서]’는 비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은 어간 끝에 모음 ‘ㅡ’를 가진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음운 탈락의 예인데, ‘중-+-지 → [노치]’는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ㅊ’이 되는 현상으로 음운 탈락의 예가 아니다.

② ㉠은 음운 탈락의 예인데, 음운 교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되었다.

③ ㉡은 음운 탈락의 예인데, ‘오-+-아 → [와]’는 모음 ‘오’와 모음 ‘ㅏ’가 만나 ‘ㅛ’가 된 것으로 음운 탈락의 예가 아니다.

④ ㉡은 음운 탈락의 예인데, 음운 축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되었다.

078 품사의 분류 기준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우리말에서 서술의 기능을 하는 말에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있다. 이 이외의 품사는 모두 문장을 서술하는 기능이 없다. 따라서 A에는 명사인 ㉠ ‘우산’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말에서 서술의 기능을 하는 말 중 명사에 붙여 쓸 수 있는 것은 서술격 조사뿐이므로 B에는 ㉡ ‘이다’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말에서 서술의 기능을 하는 말 중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은 동사이므로 동사인 ㉢ ‘달라질’이 C에 들어가면 된다. ㉣ ‘냤으면서 도’와 ㉤ ‘맑은’은 모두 형용사이다.

079 문장 성분 분석,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비슷해 보이는 문장을 ㉠은 홑문장, ㉡은 안은문장으로 나누는 이유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은 서술어를 제외한 다른 어절을 생략하면 필수적인 성분이 빠져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데 비해 ㉡은 동일한 방식으로 문장을 나누면 본래 문장과는 다른 뜻을 지닌 두 문장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은 홑문장, ㉡은 안은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은 ‘주어 + 서술어’가 다른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학습할 수 있다.

080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분다’의 경우, 활용 형태가 ‘불어, 불으니, 분

는’으로 제시되어 결합되는 어미에 따라 어근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불규칙 활용 동사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붓다’, ‘붓다’는 모두 [분:따]로 발음되므로 동음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② ‘붓다’와 달리 ‘붓다’는 […에/에게 …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붓다’의 ‘ㅈ’의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따르다’와 유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문장의 맥락을 고려할 때, ‘불어’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한 용례로 볼 수 있다.

081 음운 현상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잇히다’를 [이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ㅂ, ㄷ, ㅈ, ㅊ’과 ‘ㅎ’이 서로 만나면 ‘ㅍ, ㅌ, ㅊ, ㅋ’으로, 두 음운을 합쳐서 발음하는 음운의 축약과 관련된다. 따라서 구개음화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활용하여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붙인다’의 표준 발음은 [부친다]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받침 ‘ㅌ’이 접미사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③ ‘같이’는 [가티]가 아닌 [가치]로 발음해야 하며, 이는 받침 ‘ㅌ’이 접미사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④ 앞의 ‘발이랑’은 [반니랑]으로, 뒤의 ‘발이랑’은 [바치랑]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앞의 ‘발이랑’은 ‘발 + 이랑(명사, 실질 형태소)’의 구조로 구개음화의 조건이 아닌 반면, 뒤의 ‘발이랑’은 ‘발 + 이랑(조사)’의 구조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⑤ ‘발음’은 구개음화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연음하여 [바름]로 발음하지만, ‘발이’는 구개음화의 조건이기 때문에 [바치]로 발음해야 한다.

082 조사에 대한 이해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조사 ‘을’은 체언인 ‘운동장’에, 조사 ‘는’은 용언인 ‘먹어’에, 조사 ‘도’는 부사인 ‘몹시’에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가 체언과 용언에만 결합할 수 있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만’ 앞에 부사격 조사인 ‘에게’가, ‘만’ 뒤에 목적격 조사인 ‘을’이 결합되어 있다.

③ 첫 번째 문장에서 보조사 ‘은’과 ‘는’은 대조의 의미를, 두 번째 문장에서 보조사 ‘만’은 강조의 의미를 지닌다.

④ 첫 번째 문장에서 조사 ‘요’는 주어인 ‘메밀꽃은’과, 두 번째 문장에서 조사 ‘요’는 부사어인 ‘빨리’와 결합하여 듣는 사람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정부에서’는 주어이고, ‘도서관에서’는 처소를 의미하는 부사어이다.

083 시제 표현의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ㄷ에 사용된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먹었겠구나’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에서 ‘내일’이 미래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ㄴ-’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에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ㄴ에서 ‘-었-’은 미래의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④ ㄹ에서 ‘-었었-’은 손님들이 장사진을 쳤던 과거의 일이 손님이 없는 현재 상황과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⑤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과 ‘보았다’는 모두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084 중의성 해소 방안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의문의 의미를 파악하여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ㄷ를 몇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부분 부정의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지’ 뒤에 ‘는’을 붙이면 된다. 주어진 문장에서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꾼다고 해도 몇 사람은 오지 않았다는 부분 부정의 의미를 표현할 수는 없다. ‘안’ 부정문은 단순 부정이나 주체의 의도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못’ 부정문은 주로 주체의 능력 부족이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관형격 조사 ‘의’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중의성이 생긴 경우이다.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그려진 그림인지, 아버지가 가진 그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로 확정하려면 ‘이것은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다.’로 바꾸면 된다.

② b는 조사 ‘와’에 의해 두 문장 성분이 결합하면서 생기는 중의성이 문제가 된다. 내 친구가 그녀와 올해 결혼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내 친구도 결혼하고 그녀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올해 둘이 서로 결혼했다는 의미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내 친구가 그녀와 올해 결혼하였다.’로 수정하면 된다.

④ d는 의존 명사 구문의 불명확성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그가 웃는 모습이 이상한 것인지, 그가 웃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가 웃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의미로 확정하려면 ‘그가 웃는다는 것이 이상하다.’로 수정하면 된다.

⑤ e는 수식 구조의 중의성이 나타나는 문장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은 것인지, 그녀의 표정이 밝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녀의 표정이 밝다는 의미로 확정하려면 ‘그녀는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로 수정하면 된다.

085 반의 관계의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㉗는 X가 Y의 남편이면 Y는 X의 아내가 되므로 반의 관계 중 상대 관계가 성립된다. ㉘ 역시 X가 Y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Y는 X가 주는 무엇인가를 받는 관계가 되므로 반의 관계 중 상대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㉗와 ㉘는 모두 반의 관계 중 상대 관계를 이루는 유형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㉗는 공통된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성(性)’이라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상반되므로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② ㉙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 관계 중 모순 관계가 성립된다.

③ ㉚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므로 반의 관계 중 반대 관계가 성립된다.

④ ㉛의 ‘서다’는 다의어로,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앉다’와 반의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의 의미를 지닐 때는 ‘가다’와 반의 관계를 이룬다.

086 음운 변동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탈락 현상의 하나인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적용된 사례들이고, ㉡은 교체 현상의 하나인 자음 동화(비음화)가 일어난 사례들이다. ‘값만’은 먼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값만]이 되고 최종적으로 자음 동화가 일어나 [갑만]으로 소리 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탈락 현상의 하나인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은 첨가 현상의 하나인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예이다.

② ㉢은 음절의 첫소리가 바뀌는 현상이다.

④ ㉣은 단어들에 결합하여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그 사이에 음이 첨가되는 사잇소리 현상에 의해 뒤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었지만, ㉤의 ‘만머느리’, ‘깁는다’는 오히려 앞 자음이 뒤 자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⑤ ㉥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지만, ㉦은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087 문장의 성분 분석,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아침’의 품사는 명사이고, ‘운동’을 수식하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쉬운’의 품사는 형용사이고, ‘일’을 수식하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따라서 명사가 관형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새’는 관형사이고, ‘웃’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깜짝’은 부사이고 ‘놀랐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③ ‘회사에’는 명사 ‘회사’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부사어가 된



사례이다.

④ 조사는 단어 이상의 단위에 결합할 수도 있다. ‘으로’는 ‘무척이나 기쁜 마음’에, ‘로’는 ‘차창 너머’에, ‘에’는 ‘처음 본 풍경’에 결합하였다.

⑤ ‘무척이나’는 부사 ‘무척’에 보조사 ‘이나’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된 사례이다.

088 높임 표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는 주체 ‘나’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즉 객체인 ‘형님’을 높이기 위해 ‘만나다’가 아닌 ‘뵙다’가 쓰였다. ㉡에서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데리다’가 아닌 ‘모시다’가 쓰였다. ㉢에서는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묻다’가 아닌 ‘여쭙다(여쭙다)’가 쓰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의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말인데 문장의 주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의 ‘잡수시다’는 ‘먹다’의 높임말인데 안긴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즉, ㉢과 ㉤은 주체 높임법이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 사례이다. 이들은 객체 높임법이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 ㉠, ㉡, ㉢과는 구분된다.

089 비문의 유형 및 해소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경우 ‘예방’의 ‘예’는 ‘미리’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미리’와 ‘예방’의 의미가 서로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의 경우 ‘입덧은’이라는 주어의 서술어가 ‘기능이라고’로 되어 있는데 이 둘은 호응을 이루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막는’의 자릿수는 잘 지켜졌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에서 질병의 지시 대상이 모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막는’의 자릿수도 잘 지켜졌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에서 질병의 지시 대상이 모호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에서 ‘뿐만 아니라’는 두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인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의미 관계상 이 표현이 매우 적절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090 담화의 특징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누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인 ‘민규’와 같이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너’이고 ㉢은 ‘나’이지만, ㉠과 ㉢이 가리키는 대상은 ‘민규’로 동일하다.

② 보영이는 갑자기 대화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담화 맥락을 공유하지 못하여 지시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③ ㉢은 보영이가 말한 ‘영화’가 앞서 영수가 언급한 ‘영화’와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⑤ ㉢은 화자인 영수와 청자인 민규를, ㉤은 화자인 보영이와 청자인 민규, 영수를 포함한다.

독서

091~180

본문 52~90쪽

091 ②	092 ⑤	093 ③	094 ①	095 ②
096 ④	097 ⑤	098 ④	099 ③	100 ⑤
101 ②	102 ⑤	103 ⑤	104 ③	105 ②
106 ⑤	107 ②	108 ③	109 ⑤	110 ④
111 ①	112 ⑤	113 ⑤	114 ⑤	115 ⑤
116 ③	117 ②	118 ③	119 ②	120 ④
121 ④	122 ③	123 ④	124 ③	125 ⑤
126 ③	127 ④	128 ①	129 ④	130 ②
131 ②	132 ②	133 ④	134 ③	135 ②
136 ⑤	137 ②	138 ②	139 ①	140 ⑤
141 ③	142 ⑤	143 ⑤	144 ②	145 ④
146 ④	147 ④	148 ②	149 ①	150 ⑤
151 ④	152 ②	153 ②	154 ③	155 ①
156 ⑤	157 ⑤	158 ⑤	159 ③	160 ③
161 ⑤	162 ⑤	163 ⑤	164 ⑤	165 ④
166 ③	167 ①	168 ④	169 ③	170 ③
171 ⑤	172 ③	173 ④	174 ④	175 ②
176 ③	177 ①	178 ②	179 ⑤	180 ①

「귀납의 정당화」

해제 | 이 글은 과학적 지식을 만드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이야기되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귀납은 이전까지의 경험적 관찰을 토대로 일정한 반복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러셀은 닭의 예를 통해 지금까지 계속된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흠은 귀납이 '지금까지 그러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귀납이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귀납이 기반하고 있는 토대는 정당화의 방법으로는 부적절한 순환 논증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귀납법이 가진 논리적 문제

구성 |

- 1문단: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귀납
- 2문단: 귀납적 방법의 난점 - 러셀의 반증

- 3문단: 러셀의 반증에 대한 반론
- 4문단: 귀납의 원리가 가진 순환 논증의 문제
- 5문단: 귀납에 대한 흠의 견해

091 글쓴이의 의도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글쓴이의 집필 의도는 글의 앞부분에서 제기한 문제와 끝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하려는 이야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한 것과 그에 대한 결론을 통해 보면 글쓴이는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 내는 귀납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 지식도 확실한 토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학에서 귀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글에서 전하려는 핵심 내용도 아니다.

③ 첫 문단에서 과학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귀납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④ 러셀과 흠의 견해는 귀납이 가진 문제점을 보여 주는 것이지 지식을 얻는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⑤ 글 전체적으로 귀납의 원리와 일상생활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092 글의 내용 재구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흠은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부정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는다. 글쓴이가 문제로 지적하는 점은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 3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귀납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 법칙을 형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것이다.

② 4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나)는 현재까지 그러했으므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③ 4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나)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④ 5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흠은 귀납의 결론인 (다)가 인간의 정신적 습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09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4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순환 논증은 정당화되지 않은 명제를 근거로 정당화를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㉔는 지금까지 한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앞으로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자기의 말이 맞다는 근거는 지금까지 한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화의 근거



가 되지 못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④는 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들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② ⑥는 경험과 관찰을 근거로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다.

④ ④는 반대의 사례를 들어 상대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⑤ ⑤는 경험적인 관찰의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다.

094 세부 내용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1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 포함된 문장은 ‘㉠이 자주 반복되었다면 언제나 ㉠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의 의미를 찾으려면 반복되는 것을 찾아보면 되고, 그 구체적인 예를 이 글에서 찾으면 ‘주인이 9시에 모이를 주었다.’는 것과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귀납의 원리에서 결론이 되는 것은 ㉠이 반복되어 그 속에서 찾은 원리이므로 ㉠과는 성격이 다르다. ‘주인이 항상 닭에게 오전 9시에 모이를 준다.’는 것은 ㉠이 반복되어 형성된 법칙이다.

③ 귀납의 원리에서 같은 조건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은 ㉠의 의미를 찾는 과정과 관련이 없다.

④ ‘연속이나 공존’이라고 하였으므로 두 개는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예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⑤ ‘연속이나 공존’은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지만, 둘의 공통성이 ㉠의 의미를 찾는 단서가 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예도 적절하지 않다.

「자동차 변속기」

| 해제 | 이 글은 회전력과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차 변속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다. 일률은 (회전력)×(회전 속도)이므로 일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회전력을 높이려면 회전 속도를 줄여야 하며, 회전 속도를 높이려면 회전력을 줄여야 한다. 자동차의 변속기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계 장치로 기어비가 큰 기어로 큰 회전력을, 기어비가 작은 기어로 빠른 회전 속도를 얻어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이다. 현재 사용되는 자동 변속기는 이미 정해진 기어비를 선택하기 때문에 항상 적합한 기관 회전 속도를 유지할 수 없어 연료의 소모가 많다. 하지만 기어의 단수가 많으면 변속기의 무게와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5단 정도의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 주제 | 자동차 변속기의 원리와 기능

| 구성 |

- 1문단: 회전력과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차 변속기
- 2문단: 기어와 기어비의 개념
- 3문단: 기어비에 따른 회전력과 회전 속도의 차이
- 4문단: 자동 변속기의 기능과 한계

095 중심 화제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일률은 회전력과 회전 속도의 곱이라는 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차가 원하는 힘과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자동차의 변속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제목은 자동차 변속기의 원리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동차 변속기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발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자동차 변속기의 한 가지 예로 자동 변속기를 소개하고 있을 뿐 자동차 변속기의 종류별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자동차 변속기의 장점과 단점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자동차 변속기의 재질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96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에서 ‘자동차가 오르막을 만나면, 기어비가 큰 기어로 기관과 바퀴를 연결하여 속도가 느린 대신 큰 힘으로 오르막을 올라가게 된다. 반면 잘 포장된 평지와 같이 달리는 데 힘이 들지 않는 곳에서는 기어비를 작게 하여 힘이 적게 들고 빨리 달리는 쪽으로 기어를 선택해 달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기어비가 크면 회전력이 커지며, 기어비가 작으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의 A는 기어비가 큰 경우이며, B는 기어비가 작은 경우이므로 ④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어비가 클수록 두 회전체의 반지름 차이가 크다고 하였으므로 A의 기어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자동차가 오르막을 만나면, 기어비가 큰 기어로 기관과 바퀴를 연결하여 오르막을 올라가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A는 언덕을 주행할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엔진의 출력과 기어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

⑤ 이 글에서는 기어비에서 가장 적합한 엔진 회전 속도를 유지해서 기관 회전 속도의 변화를 줄여야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A나 B를 선택했다고 해서 연료 소모가 많아지거나 적어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097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4문단에서는 기어의 단수가 많으면 기관 회전 속도의 큰 변화 없이도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무게와 부피, 비용으로 인해 5단 정도의 변속기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기어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단 변속기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무단 변속기는 회전 속도의 큰 변화 없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변속기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③ 자동 변속기는 기어비를 바꾸기 위해 초

과 회전을 가지므로 그만큼 연료 소모가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어비가 연속적으로 바뀌는 무단 변속기는 초과 회전이 작아지고 그 결과 연료 소모도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② ㉠이 5, 6개의 기어비를 가진 변속기라 한다면, ③는 기어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보다 많은 기어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④ 자동 변속기와 무단 변속기의 회전력에 대한 설명은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

「의사 결정의 규범 모형」

| 해제 | 의사 결정에 관한 규범 모형 중 주관적 효용 이론과 다요소 효용 이론이 지니는 관점과 각각의 이론에서 방안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주관적 효용 이론은 긍정적 효용에서 부정적 효용을 뺀 순효용이 가장 큰 방안을 선택하는 관점을 취하지만, 다요소 효용 이론은 각 방안들이 지니는 여러 속성의 효용을 고려하여 요소별 효용을 수량화하고 방안별 순효용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관점을 취한다.

| 주제 | 의사 결정에 관한 규범 모형의 종류와 특징

| 구성 |

- 1문단: 의사 결정에 관한 초기 이론의 특징
- 2문단: 주관적 효용 이론의 관점
- 3문단: 다요소 효용 이론의 관점
- 4문단: 다요소 효용 이론의 적용 과정

098 설명 방식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서 주관적 효용 이론, 3~4문단에서 다요소 효용 이론의 특징을 설명하여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주관적 효용 이론의 관점에서 다요소 효용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 초기 이론에서 사용한 기댓값 모형은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각 문단에서 초기 이론의 규범 모형, 주관적 효용 이론, 다요소 효용 이론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③ 규범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1문단에서 기댓값의 개념을, 2문단에서 효용과 주관적 효용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⑤ 2문단의 주관적 효용 이론에서는 복권 구입의 경우를, 3문단의 다요소 효용 이론에서는 자동차 구입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099 세부 정보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 따르면, ‘효용’이라는 개념이 돈의 액수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주관적 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다요소 효용 이론’은 의사 결정을 할 때 각각의 방안들이 여러 속성에서 다른 효용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제시된 것이지, 주관적 효용 이론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에서, 다요소 효용 이론에서는 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독립적인 요소를 확정하고, 이 요소들의 상대적인 비중을 반영하는 가중치를 정한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의사 결정에 관한 초기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모두 사용해 합리적 결정을 한다는 가정을 했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다요소 효용 이론에서는 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독립적 요소 확정 → 각 요소들의 가중치 정함. → 방안별로 요소별 효용 구하여 합함. → 순효용이 가장 큰 방안 선택’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기댓값은 금전적 가치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후 ‘효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하였다.

100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는 의사를 결정할 때 각각의 방안들이 어떤 요소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용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자동차 선택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⑤에서는, 노트북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의사 결정 상황에서 A 노트북이 지닌 요소, 즉 빠른 정보 처리 속도와 비싼 가격 중 어떤 요소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용을 지닐 수 있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정보 처리 속도를 중시한 서진이가 A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반면, 적당한 가격을 중시한 승훈이가 A 노트북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A 노트북의 어떤 요소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효용이 달라진 사례이므로 ㉠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5만 원 이하’라는 한 가지 요소만을 두고 결정했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④ 방안이 지닌 요소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관심과 느낌의 정도만을 두고 결정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방안이 지닌 요소들 중에서 더 중시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효용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준이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선수의 유무’라는 한 가지 요소만을 두고 결정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중분화의 원리」

| 해제 | 지리적 격리에 의해 일어나는 중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한 개체군이 지리적으로 격리되면 두 개체군 이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만약 그 부모종과 새로운 종 사이에 생식적 장벽이 형성된다면, 유전자 풀이 변하게 되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된다.

| 주제 | 이지역성 중분화와 생식적 장벽



| 구성 |

- 1문단: 유전자 풀의 격리로 인한 새로운 종의 분화
- 2문단: 유전자 흐름을 1차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인 지리적 격리
- 3문단: 개체의 이동 능력에 따른 지리적 격리의 정도
- 4문단: 개체군의 특성과 이지역성 종분화 발생의 용이성과의 상관관계
- 5문단: 생식적 장벽의 의미와 발생 유형

101 세부 정보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의 ‘이지역성 개체군이 서로 나누어지려면 지리적으로 얼마만큼 격리되어야 하는가? 이는 각 개체의 이동 능력에 달려 있다.’ 라고 한 것에서 개체의 이동 능력은 지리적 격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의 ‘이때 두 개체군 사이에는 유전자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단지 자연 선택, 유전적 부동, 돌연변이 등의 과정에 의하여 변화할 뿐이다.’ 에서 유전적 부동은 개체군의 진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많은 종의 분화 과정에서 유전자 흐름을 1차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은 지리적 격리이다. 이러한 형태의 종의 분화 과정을 ‘이지역성 종분화’ 라고 부르며’ 에서 알 수 있다.

④ 5문단의 ‘생식적 장벽은 개체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어떤 종의 유전자 풀을 격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서 알 수 있다.

⑤ 4문단의 ‘개체군이 작고 다른 개체군과 격리되어 있으면 이지역성 종의 분화가 일어나기 쉽다. 격리된 소개체군은 거대한 개체군에 비하여 유전적 부동이나 자연 선택 과정 등에 의해 유전자 풀이 크게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에서 알 수 있다.

10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에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과정은 유전자 풀이 변하여 그 부모종과 새로운 종 사이에 생식적 장벽이 형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생식적 장벽이 형성되었다면 종의 분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맥아당을 먹은 초파리와 녹말을 먹은 초파리는 서로 다른 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맥아당을 먹은 암컷 초파리는 녹말을 먹은 종이 다른 수컷 초파리가 아닌, 맥아당을 먹은 종이 같은 수컷 초파리를 배우자로 선택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실험은 생식적 장벽에 의한 종분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는데, 2문단과 관련지어 이해하면 이 실험에서 먹이를 달리한 몇 개의 실험군으로 초파리를 나누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 즉 지리적 격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1세대의 초파리들은 동일한 유전자 풀을 지닌 같은 종이다. 따라서 녹말과 맥아당으로 먹이를 달리하더라도 유전자 풀에 차이가 생

기지는 않는다.

③ 1문단에서 유전자 풀이 격리되어 두 개체군이 각기 다른 진화의 경로를 밟게 되는 경우를 개체군 사이에 유전자 흐름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맥아당을 먹은 초파리와 녹말을 먹은 초파리 간에 교배가 이루어졌다면, 이 초파리들은 종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전자 풀이 서로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는 생식적 장벽에 의한 종분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초파리를 몇 개의 실험군으로 나누고 실험을 하였다. 이는 지리적 격리에 의한 종의 분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문단에서 지리적 격리에 의한 종의 분화 과정을 이지역성 종분화라 하였고, 5문단에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과정은 ‘생식적 장벽’ 이 형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지리적 격리 환경이 조성된 맥아당을 먹은 초파리와 녹말을 먹은 초파리 사이에 생식적 장벽이 형성되었다면 이지역성 종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0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암컷 개똥벌레가 다른 종의 수컷이 보내는 형광 신호에는 관심이 없고 같은 종의 수컷이 보내는 형광 신호에만 응답하는 것은 ‘행동 격리’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로 다른 종 사이에 짝짓기가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생식 세포 격리’ 와는 양상이 다르다. ‘생식 세포 격리’ 가 수정 전에 나타나는 생식적 장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이 사례는 수정 후에 나타나는 생식적 장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② ‘서식지 격리’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시간적 격리’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④ ‘생식 세포 격리’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104 어휘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으므로’ 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이고, 이와 유사하게 ‘-아서’ 도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으면’ 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② ‘-으리’ 는 가거나 오거나 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④ ‘-는데’ 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⑤ ‘-르지라도’ 는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로,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하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의 뜻을 나타낸다.

「독서의 과정」

해제 |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는 과정을 나타낸 글이다. 학생은 책의 목차를 통해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으며, 책을 읽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밑줄 그으면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하고 있다. 책을 읽은 후 학생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 |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는 과정

105 독서 방법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책을 읽어 가면서 글쓴이의 견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 읽은 내용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책의 제목을 보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으며, 목차를 보며 1, 2, 3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예측하고 있다.

③ ‘메모하면서 책을 계속 읽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아마 전통적 삶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를 통해 제시된 읽기 전 예측이 ‘2부의 ‘변화’는 긍정적 의미의 변화가 아니었구나. 라다크 지역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오늘날 서구화된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둘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에서 알 수 있듯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은 읽기 전 예측과 달라진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

⑤ 마지막 부분에서 학생은 서구적 진보가 야기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전통 사회의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는 글쓴이의 견해에 대해 ‘전통 사회의 삶을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라는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해제 | 이 글은 서로 다른 인간관을 견지하는 구조주의적 관점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동적인 인간관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관점은 사회 문제를 사회 구조의 문제로 환원하는 입장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으며, 구조주의와는 달리 능동적인 인간관을 가진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 작용이 강조된다.

주제 |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구조주의자들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의 차이

구성 |

- 1문단: 수동적 인간관을 견지하는 구조주의자들의 관점
- 2문단: 사회 문제에 대한 기능론자들의 관점
- 3문단: 사회 문제에 대한 갈등론자들의 관점
- 4문단: 능동적 인간관을 견지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의 관점
- 5문단: 사회 문제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의 관점

106 중심 화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1문단과 5문단을 보면 이 글의 핵심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 3문단에서는 구조주의를 공통분모로 갖고 있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 4, 5문단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에 대한 설명이 각각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은 전체적으로 기능론자들과 갈등론자들의 인간관만을 언급한 것은 아니므로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여 부적절하다.

② 이 글은 구조주의자들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의 시각 차이를 드러낸 글이므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라는 표제는 부적절하다.

③ 베버주의자들의 철학적 인식은 갈등론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표제로는 부적절하다.

④ 이 글은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 주고 있을 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 아니므로 표제로 부적절하다.

107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1문단의 내용을 보면, 구조주의자들에게 인간은 사회 구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③, ④, ⑤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4, 5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의 입장이므로 구조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108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3문단을 보면, 갈등론자들과 기능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을 보면, 기능론자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통제 기능의 미비와 목표 달성 수단의 부재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실패할 경우 사회화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적 균형이 깨진다고 본다. 따라서 기능론자들이 홍길동의 가출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회화의 실패 사례로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한 추론이다.

② 서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벼슬을 못한 홍길동의 상황은 2문단에서 기능론자들이 주장하는 합법적 목표 달성 수단의 부재와 연결되므로, 합법적 목표 달성 수단을 만들어 주면 홍길동이 집을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갈등론자들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총체적 구조의 모순에서 찾고 있고, 사회 전체의 개혁과 혁명에 의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베버주의자들은 구조적 모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 사회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베버주의자들이 홍길동의 가출 문제와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한 추론이다.

⑤ 5문단을 보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사회 문제를 개인과 개인 간의 주관적 상호 작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빨래와 드라이클리닝」

| 해제 | 이 글은 물빨래와 드라이클리닝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원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빨래의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물 분자의 구조와 비누나 세제의 성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빨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제 등이 미셀 구조를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드라이클리닝의 경우 용제가 기름때를 제거하고, 세제가 수용성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제는 역미셀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주제 | 물빨래 및 드라이클리닝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원리

| 구성 |

- 1문단: 극성을 띠고 있는 물의 분자 구조
- 2문단: 비누나 합성 세제의 구조, 물빨래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원리
- 3문단: 드라이클리닝 용제 및 세제의 특징과 드라이클리닝이 이루어지는 과정

109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계면 활성제는 분자 안에 기다란 무극성 부분과 짧은 극성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꼬리에 해당하는 무극성 부분은 기름과 상호 작용을 잘하며, 머리에 해당하는 극성 부분은 물과 상호 작용을 잘한다는 설명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극성 부분이 무극성 부분보다 더 짧은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물과 세제를 사용하는 물빨래와 물 대신 드라이클리닝 용제를, 비누 대신 드라이클리닝 세제를 이용하는 드라이클리닝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② 물빨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2문단에 제시되고 있으며, 드라이클리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3문단에 제시되고 있다.

③ 물에 의해 섬유가 팽창 또는 수축하거나 모양이나 색이 변하기 쉬운 옷감의 경우에 물빨래가 아닌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3문단에 제시되고 있다.

④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무극성을 띠고 있으며, 드라이클리닝 세제는 극성과 무극성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3문단에서 알 수 있다.

11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드라이클리닝에서 무극성 오염 물질인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은 드라이클리닝 세제가 아니라 드라이클리닝 용제이다. 따라서 제거해야 할 기름때가 많은 경우에는 ‘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기름 성분의 오염 물질을 없애므로 물빨래에서 비누나 합성 세제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드라이클리닝 세제 중에 머리 부분이 모여 있는 부분은 물과 잘 어울리는 부분이므로 극성 오염 물질인 땀, 악취 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드라이클리닝 세제의 꼬리 부분은 무극성이므로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며 기름과 상호 작용을 잘한다는 것을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드라이클리닝 세제의 머리와 꼬리 부분은 물빨래에서 세제의 머리와 꼬리의 배치와 반대가 되는 방향인 역미셀을 형성한다.

111 정보 간의 관계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을 통해 물이 극성 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문단에서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 인해 극성 오염 물질이 물에 잘 녹아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물빨래를 할 경우 섬유에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섬유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이다. 물의 분자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③ 드라이클리닝 용제가 기름 성분의 오염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드라이클리닝 용제가 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물이 극성이기 때문이 아니다.

④ 비누나 세제는 분자 안에 극성과 무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계면 활성제이다. 이는 역시 물의 분자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⑤ 물빨래를 할 때 비누나 세제의 무극성 부분이 미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비누나 세제의 꼬리 부분이 물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시 물의 분자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랭스 성당의 권위」

| 해제 | 이 글은 중세 서구 문명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랭스 성당에 대한 글이다. 하지만 이 글은 단순히 랭스 성당이 지닌 건축학적,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랭스 성당의 건축학적 특성에 담겨 있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특히 중세 서구 문명 사회에서 대립했던 기독교와 왕의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권력 관계가 랭스 성당이라는 건축물에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랭스 성당이 기독교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가 모두 투영된 건축물임을 밝히고 있다.

| 주제 | 기독교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가 모두 투영되어 있는 랭스 성당

| 구성 |

- 1문단: 기독교와 왕의 권력 관계가 투영된 랭스 성당
- 2문단: 건축학적 측면에서 본 랭스 성당의 권위 1 - 넓은 트랜셉트
- 3문단: 건축학적 측면에서 본 랭스 성당의 권위 2 - 높은 천장
- 4문단: 건축학적 측면에서 본 랭스 성당의 권위 3 - 서 측면의 조각상
- 5문단: 기독교와 왕의 권위가 투영된 지상 최고 권력의 상징물, 랭스 성당

112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랭스 성당은 기독교의 권위와 프랑스 왕의 권위가 함께 투영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교황과 왕의 권력 관계가 잘 드러나는 건축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관계로 말미암아 랭스 성당이 건립된 것인지는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랭스 성당은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서, 특히 랭스 성당의 높은 천장과 실내 공간은 고딕 양식의 건축적 목표인 수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 높은 천장, 서 측면의 조각상 등은 랭스 성당이 지닌 종교적 권위를 드러내고 있으며, 대관식이 치러지는 넓은 트랜셉트와 서 측면 장미창 윗부분에 새겨진 프랑스 왕의 조각상들은 프랑스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랭스 성당의 중앙 출입구와 좌우측 출입구에는 랭스 성당의 종교적 권위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각상이 새겨져 있다.

④ 랭스 성당의 트랜셉트는 대관식이 거행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다른 성당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넓다. 그리고 이러한 트랜셉트의 넓이로 인해 랭스 성당은 성과 속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113 내용 전개 방식의 특성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는 랭스 성당의 트랜셉트, 천장, 서 측면의 조각상에서 나타나는 건축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는 랭스 성당의 건축학적 특성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정의의 방식을 사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글에는 랭스 성당에 대한 사실적 정보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을 뿐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에서는 중심 화제인 랭스 성당의 건축학적 특성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고 있을 뿐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에는 랭스 성당이 변모해 온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

술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서양 중세에서 바로크 시대라는 특정 시점에서 랭스 성당이 지닌 권위와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114 세부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랭스 성당 서측 중앙 출입구에 새겨진 조각상은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방문'을 옮겨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랭스 성당이 지닌 종교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권위가 드러나는 조각상만으로 지상 최고의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상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교황과 프랑스 왕의 권위가 모두 드러나는 부분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랭스 성당의 높은 천장은 권위이자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대관식 성당의 권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② 3문단에 따르면, (가)의 수직적 구조는 고딕 성당의 건축적 목표를 보여 주는 것으로, 건물과 천장이 높을수록 천상 세계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③ 랭스 성당의 서 측면 장미창 위에는 프랑스 왕과 성모 마리아가 일렬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랭스 성당에 프랑스 왕의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동시에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④ 랭스 성당의 중앙 출입구에는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방문'을 옮겨 놓은 종교적 조각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각상들은 종교적 권위를 높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한 태풍」

| 해제 | 이 글은 태풍이 발생하는 과정과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한 것이며 이것이 계절풍, 편동풍,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며 이동한다. 그리고 태풍은 그 진로 방향과 풍향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가항 반원이 형성되며 태풍의 중심부에는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태풍의 눈이 형성된다.

| 주제 | 태풍의 발생 과정과 속성

| 구성 |

- 1문단: 태풍의 개념과 발생 과정
- 2문단: 태풍의 진로방향과 전향점
- 3문단: 태풍의 가항 반원이 발생하는 원리
- 4문단: 태풍의 눈의 개념과 형성 원리

115 세부 정보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서 계절에 따라 태풍의 전향점이 낮아진다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태풍의 전향점이 낮아지는 원리에 대한 설명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마지막 문단에 '태풍의 눈은 중심으로 불어 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원심력의 작용으로 약한 하강 기류가 생겨



형성된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 ② 1문단에 남양의 섬 부근에서 태풍의 씨앗이 형성되는 과정이 언급되어 있다.
- ③ 2문단에 계절풍, 편동풍, 편서풍 등이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언급되어 있다.
- ④ 3문단에 태풍의 진로와 풍향이 상충할 때 가항 반원이 발생함을 언급하고 있다.

116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에서 ①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은 ① 지점에서 상승한 공기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때에는 공기에 함유된 수증기의 온도가 하강하지는 않는다. ③에서 ①로 이동한 공기가 ③로 상승할 때 수증기는 냉각이 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육지와 바닷물의 비열 차이로 섬 부근의 온도가 높아져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 ② 섬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 그 뒤를 메우기 위해 바다 위의 공기가 섬으로 불어 들어온다.
 - ④ 공기가 상승하면 거기에 포함된 수증기가 냉각되어 응결이 일어나고 응결열이 방출된다.
 - ⑤ 방출된 응결열은 저기압 중심부를 가열하여 저기압이 더욱 강해진다.

117 생략된 정보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지점은 태풍의 중심부로서, 4문단에 따르면 '태풍의 눈'은 중심으로 불어드는 바람으로 인한 원심력의 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강하게 불어 들어간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① 지역은 태풍의 진로와 풍향이 상충하는 가항 반원에 해당하고, ② 지역은 태풍의 진로와 풍향이 일치하는 위험 반원에 해당한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7월에서 10월로 갈수록 전향점의 위도가 낮아진다.
 - ④ 북서쪽으로 이동하던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전향점 ④부터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 ⑤ 열대성 저기압에서 발달한 태풍은 계절풍과 편동풍에 의해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통제 의존 체제와 지지 지향 체제」

해제 이 글은 정치권력을 통제와 지지라는 개념에 따라 나누어 보고, 이를 통해 정치 발전의 개념과 통제 의존 체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통제 의존 체제는 정치권력의 의사에 반하는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유지되는 체제이고, 지지 지향 체제는 구성원들의 지지에 의해 유지되는 민주적인 체제이다.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지지 지향 체제에서도 일시적으로 통제가 강조되기도 한다.

통제 의존 체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주변국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

주제 통제 의존 체제와 지지 지향 체제

구성

- 1문단: 정치권력의 핵심 개념, 통제와 지지
- 2문단: 정치권력의 유형 - 통제 의존 체제와 지지 지향 체제
- 3문단: 통제 의존 체제와 지지 지향 체제의 특성
- 4문단: 통제 의존 체제의 위험성

118 글쓴이의 의도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1문단과 4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결국 글쓴이는 통제 의존 체제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의 관계가 아니라 통제와 지지를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을 조망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 ④ 정치권력의 발생 과정이 핵심적인 것은 아니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 ⑤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며, 지향해야 할 체제를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도 아니다.

119 글의 내용 재구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의견 일치를 추구하는 것은 B국이 아니라 C국임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의 '통제는 정치권력의 의사에 반하는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의 '유권자의 지지에 민감한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전시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유보되고 통제적 방식이 일시적 이나마 강조된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3문단의 '통제적 방식으로 정치권력이 유지되는 체제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치가 퇴보하는 경우'를 통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정치 발전임을 추론할 수 있다.
 - ⑤ 3문단의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도 처음부터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국가들은 대체로 통제 일변도의 체제로부터 통제 속에 지지를 얻으려 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거쳤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2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와 이 글은 체제 유지를 위해 고의로 위기를 만드는 상황과 연관성이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모든 정치권력이 위기를 통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이 글에 의하면 통제 의존 체제를 가진 국가가 주변국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맞지만, <보기>에서는 가상의 어느 마을이 주변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없다.
- ③ <보기>에서는 구성원의 지지와 상관없이 정치권력이 유지되고 있다.
- ⑤ <보기>의 마을은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체제이다.

「금속의 결정 구조」

| 해제 | 이 글은 금속의 결정 구조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다. 금속의 결정 구조는 반복되는 단위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육면 입방 정계의 경우 단순 입방, 면심 입방, 체심 입방 구조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단순 입방 구조는 정육면체의 각 꼭짓점에 원자들이 위치한 구조이며, 단순 입방 구조의 중앙에 1개의 원자를 위치시키면 체심 입방 구조, 단순 입방 구조의 각 면에 원자를 하나씩 추가로 위치시키면 면심 입방 구조가 된다. 이 구조에 따라서 원자의 수와 부피, 그리고 배위수가 달라지게 된다.

| 주제 | 금속 결정 구조의 특징과 종류

| 구성 |

- 1문단: 결정의 개념과 결정 구조
- 2문단: 결정을 이루고 있는 단위 구조와 격자 상수
- 3문단: 정육면 입방 정계의 종류
- 4문단: 격자 구조에 따른 원자의 차이

121 내용 전개 방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는 금속의 결정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크게 결정 구조와 무정형 구조로 분류하고 결정 구조 중 정육면 입방 정계를 단순 입방과 면심 입방, 체심 입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② 결정이라는 과학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결정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 ③ 정육면 입방 정계의 구조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철을 사례로 제시하여 결정의 구조에 따라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122 세부 정보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결정 구조란 입자를 구성하는 원자나 이온 등이 3차원의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불규칙하게 임의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를 무정형 구조라고 하였으므로, 결정 구조에는 무정형 구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결정 구조는 단위 구조의 3차원적인 반복이기 때문에 대칭성과 반복성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무정형 구조의 사례로 유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3문단에서 격자 상수를 통해 결정 구조를 14가지의 단위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1문단에서 철을 예로 들며 결정의 구조에 따라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123 핵심 정보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A는 체심 입방 구조, B는 면심 입방 구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단위 구조 안의 원자의 수는 모서리에 있는 것은 1/8, 면에 있는 것은 1/2, 중심에 있는 것은 1개로 계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A 안에 있는 원자의 수는 모서리 1개, 중앙 1개로 2개이며, B 안에 있는 원자의 수는 모서리 1개, 면에 있는 것 3개이므로 4개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단순 입방 구조의 경우 배위수는 6이 되며, 체심 입방 구조의 배위수는 8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A는 체심 입방 구조에 해당하므로 단순 입방 구조보다 배위수가 2개 많다고 할 수 있다.

- ② A, B 모두 정육면 입방 정계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α, β, γ 는 90도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텅스텐, 크로뮴과 같은 금속은 체심 입방 구조를 가지며 구리, 금, 납과 같은 금속은 면심 입방 구조로 결정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단순 입방 구조의 경우 단위 구조의 전체 부피 중 원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52%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A, B 모두 52%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12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룬다.'의 의미를 가진 '구성하다'로 바꾸어 활용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균형이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붙들어서 버티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계산하여 내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사물이 생겨나다.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미디어의 현실 구성」

| 해제 | 이 글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대규모 매스 미디어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미디어는 뉴스의 틀, 즉 프레임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여 보도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뉴스의 인지적 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수용자는 뉴스 프레임에 의해서만



현실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인간은 외부의 정보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인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뉴스의 인지적 효과는 뉴스 프레임과 수용자의 개인적 프레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 미디어의 뉴스 프레임과 인지적 효과

| 구성 |

- 1문단: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
- 2문단: 뉴스의 인지적 효과와 뉴스의 프레임
- 3문단: 뉴스의 인지적 효과에 대한 산토 아이엔거의 연구 결과
- 4문단: 뉴스 프레임의 존재 이유
- 5문단: 뉴스의 인지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인지 구조

125 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에서 글쓴이는 뉴스의 인지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개인적 프레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제기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을 보면,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뉴스 프레임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② 1문단을 보면, 미디어 사회학자 토드 기틀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③ 3문단을 보면,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산토 아이엔거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뉴스의 인지적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④ 2문단을 보면, 뉴스 프레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창문의 틀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26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을 보면, 뉴스 프레임과 개인적 프레임이 일치하면 뉴스의 인지적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나, 두 프레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뉴스의 인지적 효과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ㄱ은 파업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으며, ㄴ은 파업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독자의 개인적 프레임과 파업에 부정적인 관점을 보인 ㄴ의 뉴스 프레임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뉴스의 인지적 효과는 낮아지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과 4문단을 보면, 미디어는 자신의 주관적 시각, 즉 뉴스 프레임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보기>를 보면, ㄱ은 노조 활동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파업 상황을 보도하고 있으며, ㄴ은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보는 관점에서 파업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모두 사건에 대한 객관적 관점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여 보도하고 있지 않다.

② 3문단을 보면, 일화적 프레임은 일화나 사건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으로, 주로 에피소드 형태로 기사를 작성한다고 하였

으며, 주제적 프레임은 사건의 구조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으로, 주로 사건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 해석 등을 상세히 제공하는 기사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ㄱ은 주제적 프레임으로 볼 수 있으며, ㄴ은 일화적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작성한 것은 ㄴ이 아니라 ㄱ이다.

④ ㄱ은 노조 활동을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파업 상황을 보도하고 있으며, ㄴ은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보는 관점에서 파업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독자는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이며, 그가 ㄴ을 읽게 될 경우 그는 기사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⑤ 5문단을 보면, 미디어의 수용자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뉴스 프레임만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뉴스를 수용한다고 하였다.

127 새로운 정보의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를 보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매스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외에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의 상호 작용 특성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 제시된 매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뉴스 수용자도 뉴스 생산자와 같이 자신의 프레임대로 뉴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지, 정보의 수용자가 생산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②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오히려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구분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뉴스 생산자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⑤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현실을 인식하는 프레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28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문맥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의 '돌리다' 역시 문맥상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완곡하게 말하다.'라는 의미이다.

③ '뒤로 미루다.'라는 의미이다.

④ '화제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다.'라는 의미이다.

⑤ '어떤 것으로 여기거나 대하다.'라는 의미이다.

「인식의 개념과 종류」

| 해제 | 인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사물 현상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파악인 인식에는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이 있다. 인식 과정의 낮은 단계인 감성적 인식은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 현상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에는 감각, 지각, 표상의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 이성적 인식은 사물 현상의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속성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개념, 판단, 추리 등의 형태로 반영된다.

| 주제 | 사물 현상에 대한 인식의 종류

| 구성 |

- 1문단: 인식의 개념과 인식 과정의 단계
- 2문단: 감성적 인식의 개념과 세 가지 기본 형태
- 3문단: 감각, 지각, 표상의 개념
- 4문단: 이성적 인식의 개념과 이성적 인식을 반영하는 세 가지 형태
- 5문단: 개념, 판단, 추리의 개념

129 세부 정보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에서 판단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판단이 정확하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의 ‘감각은 가장 단순한 인식 형태이며 모든 지식의 원천이 된다. 즉, 감각은 지각과 표상, 그리고 이성적 인식에 자료를 제공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의 ‘사람은 이성적 인식 단계에서 논리적, 추상적 사고를 통해 객관 세계를 개념, 판단, 추리 등의 형태로 인식하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사람은 인식을 통해 객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것에 기초해 더 높은 인식 활동을 하는 식으로 자신의 지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추리’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끌어내는 사고 형식을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에서 ‘표상’이란 이미 감각하고 지각한 사물 현상을 머릿속에 되살린 주관적 형상이고, 이미 지각한 사물 현상들이 인식에 재현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추리’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끌어내는 사고 형식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머릿속에서 코끼리의 독특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추리’에 의한 인식이 아니라, ‘표상’에 의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감각’이란 객관적인 사물 현상의 개별적인 속성을 감각 기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코끼리의 코가 길다’고 파악한 것은 시각에 의해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여러 개의 개별적 사물 현상들의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서 그 사물 현상에만 있는 특수하거나 비본질적인 속성들을 배제하고, 공통적이며 기본적인 속성을 뽑아낸 것이 개념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보기>에서는 코, 귀, 상아 등 코끼리가 지닌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 ‘코끼리’라는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지각’이란 사물 현상들의 속성들을 ‘연관된 전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코끼리가 ‘덩치 큰 동물’이라고 생각한 것도 개별적인 속성을 전체로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보면 코끼리를 초식 동물이라고 인식한 것은 진위 판단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31 핵심 정보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에서 ‘표상’이란 이미 감각하고 지각한 사물 현상을 머릿속에 되살린 주관적 형상이라고 한 것에서 ‘ㄱ’이, 4문단에서 ‘감각, 지각, 표상 등의 감성적 인식은 객관 세계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하지만 단지 외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속성, 현상에 대한 지식만을 준다.’라고 한 것에서 ‘ㄷ’이 표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3문단에서 ‘과거에 지각한 적이 없는 사물 현상들이 인식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한 것에서 ‘ㄴ’의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감각, 지각, 표상 등의 감성적 인식은 객관 세계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하지만 단지 외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속성, 현상에 대한 지식만을 준다. 사물 현상의 일반적 속성, 그 내적 측면과 연관에 대한 지식은 ‘이성적 인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것에서 ‘ㄹ’의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빛의 속력 측정」

| 해제 | 이 글은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무한하다고만 여졌던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을 소개하며, 빛의 속력을 측정했던 대표적인 과학자들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빛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라고 일컬어지는 갈릴레이의 노력을 언급한 후, 천문 현상을 이용해 빛의 속력을 측정한 뢰머의 시도와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잰 피조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런 과학자들의 거듭된 노력으로 오늘날과 같은 빛의 속력 값을 얻게 된 것이다.

| 주제 | 빛의 속력을 측정하고자 했던 과학자들의 노력

| 구성 |

- 1문단: 유한한 속력을 갖는 빛
- 2문단: 빛의 속력을 측정하고자 했던 갈릴레이
- 3문단: 뢰머가 사용한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방법
- 4문단: 피조가 사용한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방법



132 핵심 정보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갈릴레이로부터 시작된 빛의 속력에 대한 측정 노력이 천문학자 뢰머와 피조의 실험을 통해 그 성과를 거두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관측과 실험을 통해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일이 점점 구체화되었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진행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과학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즉, 과학적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빛의 속력이 점점 정확하게 파악되어 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133 전제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A와 B라는 두 지점에서 관측한 목성의 위치가 일어나는 시각이 22분이나 차이가 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22분은 지구의 공전 궤도 지름 길이만큼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지구의 공전 궤도 지름의 정확한 길이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톱니바퀴를 가지고 실험하는 (나)는 빛의 속력이 너무 빨라서 관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세밀하게 잘라서 파악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즉, 톱니와 틈새 사이 정도로 쪼개어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톱니바퀴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돌아야 톱니바퀴와 틈새의 개수를 활용하여 빛의 속력을 계산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뢰머의 실험에서 목성의 자전 속도가 빛의 속력을 계산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피조의 실험에서 반사 거울의 형태에 대해 한정하는 내용은 없다.

② 뢰머의 실험에서는 지구가 목성에 가까이 있을 때와 목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거리가 중요할 뿐 목성의 위성의 공전 속도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피조의 실험에서 톱니바퀴의 수는 짧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을 뿐, 그것이 720개라야 한다는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뢰머의 실험에서는 목성의 질량은 특별한 고려 사항이 아니다.

⑤ 뢰머의 실험에서 목성의 위성의 개수는 특별한 고려 사항이 아니다. 피조의 실험에서 톱니바퀴는 광원과 반사 거울의 사이에 놓인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을 뿐, 톱니바퀴의 위치가 광원과 반사 거울의 정확한 중간 지점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4 논거의 적절성 판단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갈릴레이가 빛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행했던 실험으로, 비록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빛의 속력 측정에 의미를 갖는 실험으로 기록되고 있다. (나)와 같은 실험 내용이 설정된 것은 갈릴레이가 너무나 빠른 빛의 속력 때문에 측정에 실패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톱니바퀴를 활용하여 시간을 세분화함으로써 아주 짧은 시간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톱니바퀴 수가 일정할 때 톱니바퀴가 커지면

톱니의 크기나 틈새의 크기가 커지므로 시간은 덜 세분화하게 된다.
② 광원을 왕복시킴으로써 측정하는 거리는 실제 실험에 사용된 거리의 두 배가 된다.

④ 광원의 세기가 빛의 속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지점과 거울과의 거리는 빛의 속력을 재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실험에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분화된 톱니바퀴이다.

135 의미의 유사성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구하다'는 '산출하다'의 의미로, '계산하여 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입수하다'는 '손에 들어오다. 손에 넣다.'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움직여 옮기다.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꾸다.'라는 의미이다.

③ '필요로 되거나 요구되다.'라는 의미이다.

④ '어떤 곳이나 때를 거쳐서 지나가다.'라는 의미이다.

⑤ '균형에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라는 의미이다.

「산지 추정 연구」

| 해제 | 이 글은 유물의 제작소나 원료 산지를 찾기 위한 산지 추정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굴이나 지표 조사가 유물의 출토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면 산지 추정 연구는 인간과 집단의 상호 작용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물자의 이동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분배 또는 교역 등의 행위와 관련된 경제적·사회적·이념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산지 추정의 방법으로는 화학 분석, 암석학적 분석, 양식론적 분석 등이 있고, 이 방법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 주제 | 산지 추정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구성 |

- 1문단: 산지 추정 연구의 개념
- 2문단: 산지 추정 연구의 의의
- 3문단: 산지 추정 연구의 목표
- 4문단: 산지 추정 연구의 방법
- 5문단: 산지 추정 연구 방법의 이용

136 화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산지 추정 연구의 한계는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산지 추정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양식론적 분석만으로는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고 암석학적 분석이나 화학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는 방법적 논의일 뿐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산지 추정 연구는 유물의 제작소나 원료 산지를 찾기 위한 연구, 고대의 물자 이동을 추적하는 연구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산지 추정 연구는 분배 또는 교역 등의 행위와 관련된 경제적·사회적·이념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고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산지 추정 연구는 단순히 유물이 어느 산지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소박한 자료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배, 교역 등의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 어느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 유물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산지 추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하고 그 방법에는 화학 분석, 암석학적 분석, 양식론적 분석 등이 있음을 소개하고, 5문단에서는 방법들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137 관점에 따른 내용 비판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산지 추정 연구는 유적의 연대를 추정한다든지 민족이나 사회 집단 등을 추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3문단에 제시한 것처럼 생산 전업화의 정도라든가 분배 교역의 조직 또는 계층화의 정도나 정치 조직, 나아가서 문명의 진화나 국가 형성 등의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 추정 연구는 전통 고고학이 유물의 속성을 분석하는 것에 머무는 데 반대하며 전통 고고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이념적 문제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통 고고학에서 말하는 유물의 유형별 분류는 유물에 내재하는 속성을 밝히는 화학 분석이나 암석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 고고학은 유적의 연대를 추정한다든지, 민족이나 사회 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물자의 이동을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③ 전통 고고학은 유물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통해 민족이나 사회 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므로 양식을 사회 집단의 특성으로 연결 짓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양식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데 소홀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④ 5문단에서 산지 추정 연구는 유물의 양식 분포로부터 유물의 교역을 추론하는 것만으로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적에 나타나는 속성을 통해 연대를 추정하거나 사회 집단을 추정하는 것은 전통 고고학의 연구 방법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오히려 전통 고고학의 입장이다.

⑤ 유물이나 유구의 속성을 통해 민족이나 사회 집단 등을 추정하여 정복·민족 이동·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통 고고학의 관점이다.

138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양식론적 분석이 아니라, 화학 분석 방

법을 이용한 산지 추정 연구의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 5문단에서 양식론적 분석 방법만으로는 그 결과의 타당성을 고집할 수 없고 암석학적 분석이나 화학 분석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분석 방법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 과 같이 양식적 특성을 분석하여 확정적 증거를 얻는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산지 추정은 이동된 물품과 그것의 원료 산지나 제작소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적 또는 문화적인 일치성을 논증해야 하므로 유물에 내재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제반 속성들을 분석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 '2'는 그 방법 중 화학 분석 방법에 해당하며 산지 추정은 이를 통해 자료의 속성을 해석하여 물자 이동을 추적하는 연구이다.

③ 산지 추정은 분배 또는 교역 등의 인간 행위와 관련된 경제적·사회적·이념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3'의 분석 결과에 나타나는 기법(1)이나 제작 과정(2), 분포(3) 등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④ 산지 추정 연구는 유물의 속성을 분석해 낼 수 있는 방법들과 분석 자료를 논리적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한데 '3-(3)'에서 방연석 분포도를 활용하여 중국 남부 방연석 지역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산지 추정은 '1'과 같이 안동시 옥동 출토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의 분석 결과에 나타나는 성분이나 기법, 제작 과정 등을 통해 분포를 확인하여 유물이나 원료의 이동을 추적하여 살피는 연구이다.

「헥사코드」

| 해제 | 이 글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음계가 중세에 만들어진 헥사코드에서 출발한 것임을 밝히고, 그 형성 과정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헥사코드는 현재의 음계와는 달리 '도, 레, 미, 파, 솔, 라'의 여섯 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섯 음 사이의 관계를 고정시켜(온음-온음-반음-온음-온음) 음악 교육에 체계성과 효율성을 부여했다. 이후 헥사코드에 '시' 음이 추가되고 다양한 반음이 사용됨으로써 현재의 음계가 만들어졌고, 좀 더 다양한 음과 조를 사용한 음악이 나타나게 되었다.

| 주제 | 헥사코드의 형성 과정과 의의

| 구성 |

- 1문단: 현재 사용되는 음계와 중세 시대의 음계
- 2문단: 계명의 고안과 여섯 기본음
- 3문단: 여섯 기본음에 기반한 헥사코드의 출현
- 4문단: 중세 시대에 사용되던 음
- 5문단: 헥사코드의 종류
- 6문단: 헥사코드의 의의와 장단 7음계의 출현



139 내용 전개 방식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1~3문단의 내용을 통해 오늘날 사용되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음계가 중세의 헥사코드에서 시작되어 발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6문단의 내용을 통해 헥사코드의 의의와 이후 7음계로 발전하게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헥사코드가 7음계로 변모하는 과정과 각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의 장단점이 비교 대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에서는 실제 음이 음계에서 쓰이는 용례와 그 관계를 제시하여 헥사코드의 특징과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헥사코드 및 7음계의 개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헥사코드는 서양에서 출현한 음계 개념으로, 음계에 대한 관점의 지역별 차이를 언급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온음과 반음으로 이루어지는 음정 관계는 어떤 음계에서든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3문단), 이 글에서 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4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세 시대에는 당시 사용하던 세 가지의 헥사코드 사이에서 조바꿈이 가능했으며(5문단), 현재의 음악에서도 넓은 음역대에서 다양한 조를 사용하여 선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1, 6문단).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의 내용을 통해 중세 시대에 사용되던 음은 현재의 음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C로 시작되는 헥사코드의 마지막 음은 A'로, 이 다음 음인 B'에서는 헥사코드가 시작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현재의 음계에서는 어떤 음에서 음계가 시작되든 음계 끝 음의 다음 음에서 새로운 음계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음계의 순환은 17세기에 들어 '시' 음이 덧붙여지고 장단 7음계가 출현하면서 가능해진 것임을 6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6문단의 내용을 통해 '시' 음은 17세기 들어 덧붙여진 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6문단의 내용을 통해 헥사코드에 다양한 반음이 추가된 것은 17세기의 일임을 알 수 있다.

141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G에서 시작되는 헥사코드에서는 반음을 내리지 않은 본래의 B음이 사용된다. 또한 F에서 시작되는 헥사코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B음에서 반음 내린 B' 음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G에서 시작되는 헥사코드와 F에서 시작되는 헥사코드에서 B 음의 사용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5문단에 따르면 중세 시대의 헥사코드는 각각 C와 G 음에서 시작되는 여섯 개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B'이 사용되는 경우 F 음에서 시작되는 여섯 개의 음도 하나의 헥사코드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C와 G, F 음으로 시작하는 여섯 개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진 헥사코드는 7개를 찾을 수 있다.

② 3문단의 내용을 통해 고유 음 사이의 음정은 변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헥사코드에서건 D와 E 사이의 음정은 온음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악보에서 A, B, C, D, E, F의 여섯 음 중 반음 관계인 음들은 B와 C, E와 F 두 쌍이다. 따라서 A에서 시작되는 여섯 음의 음정 관계는 '온반온온반'으로 표시된다. 헥사코드는 '온온반온온'의 음정 관계로 표시되기 때문에 A에서 시작되는 6개의 음은 헥사코드를 이룰 수 없다.

⑤ G에서 시작되는 헥사코드는 G, A, B, C, D, E의 여섯 음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계명은 '도, 레, 미, 파, 솔, 라'이므로 E의 계명은 '라'가 된다. C에서 시작되는 헥사코드는 C, D, E, F, G, A'의 여섯 음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차례대로 '도~라'의 계명으로 불린다. 따라서 이 헥사코드에서 E의 계명은 '미'가 된다.

「다각화」

| 해제 | 기업들이 다각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주주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입장과 경영자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전자는 생산과 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비용의 감소,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여유 자금의 투자를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을 기업들이 다각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후자는 기업의 규모 확장을 통해 권력을 확대하려는 동기, 보수의 향상을 꾀하는 금전적인 동기, 위험을 분산해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동기 등을 기업들이 다각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 주제 | 다각화의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

| 구성 |

- 1문단: 다각화를 하는 이유에 대한 화제 제시
- 2문단: 주주들의 이익 추구가 다각화의 목적이라는 입장
- 3문단: 다각화의 이유를 주주들의 이익 추구로 보는 세 가지 설명
- 4문단: 경영자들의 이익 추구가 다각화의 목적이라는 입장
- 5문단: 다각화의 이유를 경영자의 이익 추구로 보는 세 가지 설명

142 핵심 정보의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기업들이 다각화를 언제 추구해야 하는지 그 적정 시기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다각화의 의미를 한 기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② 3문단에서 다각화를 전개하는 방법으로 생산과 판매의 일원화,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확대, 여유 자금의 투자 등을 언급하고 있다.
- ③ 3문단에서 기업들이 다각화를 추진하면 범위의 경제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④ 2문단에서는 다각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를 '주주들'로, 4문단에서는 '경영자들'로 설명하고 있다.

143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경영자들은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위험을 분산하게 된다. 하지만 H 기업의 경영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기 상황에 주목하여 다각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H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 기업의 경영자가 실적 악화로 인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각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H 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여유 자금으로 M 유통 회사를 인수하였으므로 식료품 생산이 전문인 H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부문에 투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다각화를 통해 매출이 10% 증가하여 기업 규모의 순위가 상승하였으므로 H 기업의 규모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H 기업은 유통 회사를 인수한 후 식료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하였으므로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여 비용 측면의 효율성이 높아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H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 총회에서 다각화를 추진한 자신의 공로를 부각하여 상당한 금액의 성과급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H 기업의 다각화는 결과적으로 다각화를 추진한 경영자의 금전적 이익을 확대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144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다각화를 한다는 설명들은 모두 범위의 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첫째 설명은 생산과 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기업의 효율성을, 둘째 설명은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업의 효율성을, 셋째 설명은 기업 내부의 자본 운용 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기업의 효율성을 다각화의 이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설명들은 범위의 경제로 기업의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지만,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는 원천은 각기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범위의 경제가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없다.
- ③ 범위의 경제로 제품의 가격이 인하된다고 설명한 부분은 없다.
 - ④ 범위의 경제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
 - ⑤ 범위의 경제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다룬 부분은 없다.

「지각 구조 가설」

| 해제 | 이 글은 산맥 근처에서 예상된 수치보다 추의 연직 편차가 작게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에어리와 프랫이 제시한 지각 구조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큰 맨틀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에어리는 모든 지각의 밀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반면, 프랫은 지각의 밀도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했음을 밝히면서, 두 이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이론의 의미 및 한계를 평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 주제 | 에어리와 프랫이 제시한 지각 구조 모형의 차이와 두 이론의 의미 및 한계

| 구성 |

- 1문단: 만유인력에 의해 일어나는 추의 연직 편차의 개념
- 2문단: 추의 연직 편차가 예상치보다 작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 에어리와 프랫
- 3문단: 에어리의 지각 구조 모형으로 본 지각 구조 가설
- 4문단: 프랫의 지각 구조 모형으로 본 지각 구조 가설
- 5문단: 에어리와 프랫의 지각 구조 가설이 지닌 의미와 한계

145 내용 전개 방식의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산맥 부근에서 추의 연직 편차가 예상치보다 작게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에어리와 프랫의 가설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대비되는 가설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설을 검증하여 한 이론의 우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이 글은 추의 연직 편차가 작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 두 가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일 뿐, 어떤 문제 상황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두 사람의 지각 구조 모형이다. 그러나 두 이론의 구성 요소가 가진 특성들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것을 종합하고 있지도 않다.
- ⑤ 대비되는 이론을 소개하는 것은 맞지만, 두 이론을 절충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46 핵심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프랫에 의하면 각 지각 기동들의 질량이 같으므로, 높게 솟아 부피가 큰 산맥 지각은 부피가 작은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작아야 한다. 즉, 프랫은 높은 산맥을 이루는 지각 물질은 낮은 지역의 지각 물질보다 밀도가 작고, 이로 인해 높은 산맥 근처에서도 추가 예상치보다 조금 끌려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프랫은 높은 산맥에서의 추의 연직 편차를 산맥 지각의 작은 밀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의 내용은 에어리의 가설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을 통해 프랫은 에어리와 달리 각 기동



들의 질량이 같고 밀도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함으로써 맨틀 속에 박힌 지각의 깊이가 모두 같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을 통해 에어리는 각 지각의 밀도는 같지만 부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지각의 질량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고, 이러한 이유로 무거운 지각일수록 맨틀 면에 더 깊이 잠긴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지구 내부에 밀도가 큰 유동성 물질인 맨틀이 있고, 그 위에 밀도가 작은 지각이 부력으로 인해 떠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을 통해 에어리는 플랫폼 달리 각 지각의 밀도가 모두 같다고 가정했음을 알 수 있다.

147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 나타난 현상은 산맥 지각의 침식으로 인해 산맥 지각의 하부에 있는 맨틀 면이 융기하고, 침식된 지각이 해양 밑바닥에 퇴적되면서 해양 밑바닥 하부의 맨틀 면이 침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을 에어리의 가설로 설명한다면, 침식에 의해 가벼워진 산맥 지각은 가벼워진 만큼 맨틀 아래 잠긴 지각이 위로 더 떠오른 것이고, 퇴적에 의해 무거워진 해양 지각은 무거워진 만큼 맨틀 아래로 더 깊이 잠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침식과 퇴적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결국 해양 지각과 산맥 지각의 맨틀 경계면은 거의 수평에 가까워질 것이다. 따라서 ㄴ과 ㄷ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보기>의 그림은 산맥 지각과 해양 밑바닥 지각이 맨틀 면에 잠겨 있는 깊이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제시문의 내용에 따르면 지각의 질량에 따라 맨틀 면에 잠겨 있는 지각의 깊이가 다르다고 한 에어리의 가설에 가깝다. 또한 ㉠ 지점 하부의 맨틀 면이 침식 이후 융기했으므로 ㉠ 지점에서 늘어뜨린 추와의 사이에 작용하는 맨틀의 인력도 침식 이전보다 더 커졌을 것이다. 따라서 ㄱ과 ㄹ은 적절하지 않다.

「CD 작동의 원리」

| 해제 | 이 글은 CD가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CD-R와 CD-RW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CD는 디지털 방식으로 CD 표면에 0과 1을 새겨 데이터를 기록하고 레이저 광선을 쏘아서 표면에 새겨진 0과 1을 분간하여 데이터를 읽어 내는 원리를 활용한다. CD는 데이터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기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색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CD-R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CD-R는 기록한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 감광 물질을 사용하여 기록과 삭제가 용이한 CD-RW가 개발되었다.

| 주제 | CD의 데이터 기록 원리 및 CD-R와 CD-RW의 특징

| 구성 |

- 1문단: CD의 데이터 기록 방식

- 2문단: CD의 단면과 데이터를 읽는 원리
- 3문단: CD의 제작 방법 및 특징
- 4문단: CD-R와 CD-RW의 특징

148 독자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CD의 데이터는 0과 1의 두 가지 값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피트나 랜드가 연속으로 위치하면 0이라는 데이터가 기록된 것이고 피트와 랜드가 번갈아 위치하면 1이라는 데이터가 기록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일 뿐 데이터 저장 용량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라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의 ‘데이터를 읽기 위해 CD 아랫면에 레이저 광선을 쏘면 피트와 랜드 부분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③ CD를 굽는다고 할 때 ‘굽는다’가 4문단 ‘CD-R에는 반사층 아래에 투명한 색소가 발려져 있는데, 강한 레이저 광선을 쏘이면 이 색소가 레이저 광선에 타 버려서 불투명하게 변한다. 이때 강한 레이저 광선을 쏘인 부분은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약해져서 피트와 같은 구실을 하며’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아 태우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아래쪽으로 돌출된 부분은 피트, 돌출되지 않은 부분을 랜드라고 부른다. 데이터를 읽기 위해 CD 아랫면에 레이저 광선을 쏘면 피트와 랜드 부분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랜드에서는 빛이 흩어짐 없이 거의 그대로 반사되지만 피트에서는 빛이 확산된다.’에서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다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⑤ 1문단의 ‘CD 표면에는 수많은 0과 1이 새겨져 있고’와, 3문단의 ‘CD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0과 1로 바꾼 다음, 이 데이터에 맞도록 피트와 랜드의 위치를 결정한다. 다음으로는 피트와 랜드의 미세한 패턴 모양과 동일하도록 원판을 제작한다.’에서 0과 1로 새겨진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CD의 크기가 크다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49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피트나 랜드 중 어느 하나가 연속으로 위치하면 반사되는 빛의 세기에 변화가 없어 이것은 0이라는 데이터가 기록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피트와 랜드가 번갈아 위치하면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1이라는 데이터가 기록된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0100010010’을 그려 보면 빛의 세기가 변하는 부분(1의 개수)이 3번 있고 변화가 없는 부분의 길이(0의 개수)를 고려해 ①과 같이 그릴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0100010010'은 1이라는 데이터, 즉 피트와 랜드가 번갈아 위치하여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변하게 되는 지점이 3곳인데 ②는 2곳뿐이며, 피트나 랜드 중 어느 하나가 연속으로 위치하여 반사되는 빛의 세기에 변화가 없는 0이라는 데이터가 기록된 부분의 길이도 적절하지 않다.

③ '0100010010'은 1이라는 데이터, 즉 피트와 랜드가 번갈아 위치하여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변하게 되는 지점이 3곳인데 ③은 4곳이며, 피트나 랜드 중 어느 하나가 연속으로 위치하여 반사되는 빛의 세기에 변화가 없는 0이라는 데이터가 기록된 부분의 길이도 적절하지 않다.

④ '0100010010'은 1이라는 데이터, 즉 피트와 랜드가 번갈아 위치하여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변하게 되는 지점이 3곳인데 ④도 3곳이기는 하나, 피트나 랜드 중 어느 하나가 연속으로 위치하여 반사되는 빛의 세기에 변화가 없는 0이라는 데이터가 기록된 부분의 길이가 적절하지 않다.

⑤ '0100010010'은 1이라는 데이터, 즉 피트와 랜드가 번갈아 위치하여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변하게 되는 지점이 3곳인데 ⑤는 2곳뿐이며, 피트나 랜드 중 어느 하나가 연속으로 위치하여 반사되는 빛의 세기에 변화가 없는 0이라는 데이터가 기록된 부분의 길이도 적절하지 않다.

150 세부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CD, CD-R, CD-RW는 모두 0과 1의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되고 레이저 광선을 쏘아서 0과 1을 분간해 읽는다는 점에서 그 원리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과 ㉡, ㉢과 ㉣이 각각 ㉤와 ㉥로 인해 데이터를 읽는 원리가 다르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알루미늄 반사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3문단의 'CD는 데이터가 기록된 피트와 랜드가 알루미늄 반사층에 물리적으로 새겨져 있는 데다가 플라스틱 보호층으로 단단히 보호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데이터가 지워지거나 손상되지 않아 데이터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는 염료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4문단의 'CD-R에는 반사층 아래에 투명한 색소가 발려져 있는데, 강한 레이저 광선을 쏘이면 이 색소가 레이저 광선에 타 버려서 불투명하게 변한다. 이때 강한 레이저 광선을 쏘인 부분은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약해져서 피트와 같은 구실을 하며, 나머지 부분은 랜드와 같은 구실을 한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③ CD-RW는 4문단의 'CD-R와 달리 투명 색소 대신에 투명 감광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감광 물질은 레이저 광선을 쏘아 투명하게도 불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에서 금속 필름과 다이렉트 필름이 CD-R의 투명 색소 대신에 사용되어 데이터를 기록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은 4문단의 '강한 레이저 광선을 쏘인 부분은 반사되는 빛의 세

기가 약해져서 피트와 같은 구실을 하며, 나머지 부분은 랜드와 같은 구실을 한다.'에서, ㉢은 4문단의 '레이저 광선을 쏘아 투명하게도 불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감광 물질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데이터를 기록할 수도 있고'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아 불투명하게 변한 부분이 데이터가 기록된 피트 부분에 해당됨을 추론할 수 있다.

「가치의 문제」

| 해제 | 오랫동안 철학의 관심이 되어 온 가치의 질적 특성에 대한 두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입장은 '가치 실재론'과 '가치 비실재론'이다. '가치 실재론'은 가치의 실재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가치를 자연적 성질로 보는 입장과 가치를 형이상학적 성질로 보는 두 입장으로 다시 나뉜다. 전자의 입장에서 가치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름다움이나 선함은 감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가치를 형이상학적 성질로 보는 입장이 대두했다. 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가치의 검증 가능성을 배제한다. '가치 비실재론'에서는 사물 자체에 가치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이 사물을 대하는 주체의 심리적 태도에 의해 생긴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의 하나로 이 글에서는 '가치 관계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가치 형성의 근원을 인간 개인의 심리 작용으로 보는 대전제하에서 개별 가치와 일반 가치를 모두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 주제 | 가치의 질적 특성에 관한 철학적 입장

| 구성 |

- 1문단: 오랫동안 철학의 관심 대상이 되어 온 가치의 질적 특성
- 2문단: 가치를 자연적 성질로 보는 입장과 그 입장의 한계
- 3문단: 가치를 초자연적인 형이상학적 성질로 보는 입장
- 4문단: 가치 비실재론의 입장과 주체의 차이에 따른 개별 가치와 일반 가치
- 5문단: 가치 관계론을 대표하는 페리의 입장

151 세부 내용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치 비실재론에서는 가치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심리적 태도에 의해서 생긴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주체를 인간과 신으로 나누어 말한다. 주체를 신으로 보면 신이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 가치가 아닌 일반 가치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때 일반 가치와 상반되는 개별 가치는 전적으로 무시된다. 따라서 가치 비실재론에서 신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여겨지는 가치에 개인의 개별적 가치가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 따르면 가치란 대상 자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상황 변화와 상관없이 항구성이라는 질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의 실재를 주장하는 입장이 '가치 실재론'이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가치가 자신의 효용적 한계를 넘어 그것 자체로서 실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가치 비실재론’에서는 사물 자체에 가치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대하는 주체의 심리적 태도에 의해서 생긴다고 본다.
- ⑤ 5문단에 따르면 ‘가치 관계론’에서는 가치를 관심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 가치를 어떤 사물이 관심을 끌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사물이 갖게 되는 특수한 성질이라고 보았다.

152 논리의 타당성 비판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서는 ‘논점 선취의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논점 선취의 오류는 도달하고자 하는 논점을 가정에서 이미 선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전혀 없는 내용이 새롭게 도출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에 적용해 보면, ㉠의 ‘가장 아름다운 세계와 가장 추한 세계’를 가정한 것에 이미 ‘아름답다’와 ‘추하다’라는 말로 전자가 후자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즉, ‘전자의 존재가 후자의 존재보다 더 낫다.’라는 결론이 이미 가정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는 실재하지 않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 오류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

- ③ ㉠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와 ‘가장 추한 세계’를 관찰할 어떤 인간이 없다 할지라도 전자의 존재가 후자의 존재보다 나은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④ ㉠의 결론은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가장 추한 세계’보다 더 나으리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⑤ <보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153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ㄴ과 같이 황금을 돌처럼 여기는 것을 신념으로 삼은 사람들은 황금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즉, 황금에 대한 물질욕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ㄴ의 ‘사람들’은 황금의 가치가 돌과 같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듯 황금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게서만 발견되지 않고, 황금 보기를 돌 같이 여기는 것을 신념으로 삼은 사람들로부터 보편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황금에 돌과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체의 대상에 대한 관심에 따라 대상의 가치가 형성됨을 보여 준다. 가치 관계론에서는 주체의 대상에 대한 관심에 따라 대상의 가치가 형성된다고 하며, 이러한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따라 개별 가치는 물론 일반 가치 역시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치 실재론의 입장 중의 하나는 ‘가치는 자

연적 성질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는 가치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감각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가치가 자연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가치 실재론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 ③ 감각에 의거해 진품과 모조품의 가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진품과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안 다음 가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가치란 것이 대상에 본래 내재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는 가치 비실재론과 관련이 깊은 것이다.
- ④ ㄱ의 ‘영수’를 들여다보는 행위와 ㄷ의 예술품을 보는 행위는 모두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가상의 대상에도 가치가 실재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 ⑤ ‘가치는 자연적 성질이다.’라는 말은 가치의 실재성을 전제하는 진술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가치의 척도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즉, 개인의 주관, 주체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ㄴ은 가치 비실재론과 관련이 깊은 것이다.

「협상의 프레임과 정보 제공」

| 해제 | 협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둘 이상의 상호 의존적인 사회 개체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협상의 유형을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분배적 협상은 합이 고정되어 있는 가치의 분배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협상으로 ‘일방적 승리’와 ‘타협’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통합적 협상은 협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한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서로 극대화된 이익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합적 협상과 분배적 협상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통합적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주제 | 협상의 개념과 유형

| 구성 |

- 1문단: 협상의 개념
- 2문단: 협상의 결과에 따른 협상의 유형
- 3문단: 분배적 협상
- 4문단: 통합적 협상

154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분배적 협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 한계를 이끌어 낼 수는 있지만, 통합적 협상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협상을 결과에 따라 그 유형을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② 3, 4문단에서 통합적 협상과 분배적 협상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④ 1문단에서 협상의 개념을 제시하고, 3, 4문단에서 그 개념 설명에 등장한 용어에 대해 풀이하고 있다.
- ⑤ 4문단에서 통합적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155 독자 반응의 적절성 평가 ㉮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세 국가가 모두 가격을 내려 모두 손해를 본 경우는 어느 나라도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 나라 중 어느 나라도 '일방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B의 상황에서 가격을 내린 두 국가는 이득을 본 반면 가격을 내리지 않은 다른 국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는 협상의 결과 한쪽은 이득을 보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본 경우이므로 분배적 협상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③ C의 경우 가격을 내린 국가는 2,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나머지 국가는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린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협상을 한 것이다.

④ 세 국가 모두 이익을 추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D와 같은 상황은 협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한 합의를 도출해 낸 통합적 협상에 해당한다.

⑤ B와 C의 경우는 협상의 결과 이익을 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으므로 분배적 협상에 해당한다. 분배적 협상에서는 협상 당사자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을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156 내용의 구체적 적용 ㉮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통합적 협상은 협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한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서로 극대화된 이익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경우로, 이런 협상에서는 가치 창출과 자기 몫 챙기기가 동시에 추구된다. 즉, 협상 당사자 혹은 관련자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례로 제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협력하여 사 측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노 측은 추가 상여금을 받음으로써 노 측과 사 측이 모두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수입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를 부과받은 당사국은 이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양쪽 모두 이익을 보는 통합적 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업 단지를 유치하게 된 △△도는 이익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도는 이익이 없으므로 역시 통합적 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상황이므로 통합적 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되 해당 주민에게 다른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면 통합적 협상에 해당하지만,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협상으로 볼 수 없다.

「컴퓨터 알고리즘」

해제 이 글은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그래프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접 행렬법은 정점 간 관계를 행렬의 원소 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인접 리스트법은 인접한 정점을 리스트로 매달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인접 행렬법과 인접 리스트법은 데이터의 성격이나 원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은 간단한 그림을 통해 각 방법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구성

- 1문단: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그래프의 개념과 종류
- 2문단: 인접 행렬법의 개념과 특징
- 3~5문단: 인접 리스트법의 개념과 특징

15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정점 간 가중치는 인접 행렬법의 경우 (i, j)에 해당되는 값을 숫자로, 인접 리스트법의 경우 연결된 정점 번호 다음에 오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적합한 것을 말하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접 행렬법은 정점의 총수가 n개이면 $n \times n$ 행렬이 필요하므로 간선이 적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다.

② 인접 행렬법은 해당되는 정점 쌍을 찾아 원소 값을 확인하면 되므로 인접 여부를 즉각 파악할 수 있다.

③ 인접 행렬법은 정점 간 간선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한다. 가중치가 있으면 1 대신 해당되는 숫자를 표기한다.

④ 방향이 없는 그래프의 경우 (i, j)와 (j, i)는 동일한 간선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원소 값은 같다.

158 세부 내용 추론 ㉮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1문단에서 방향에 따라 다른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유향 그래프로, 방향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무향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두 나라 간 특정 무역 상품의 수출량은 방향에 따라 다른 정보를 요구하므로 유향 그래프가 적합하다. 또한 두 지점 사이에 묻힌 가스 파이프의 용량은 지점의 방향에 따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향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두 도시 간의 직선거리는 방향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향 그래프가 적당하다. 또한 두 학생이 짝꿍을 한 횟수는 방향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향 그래프가 적당하다.

② 두 학교 간 친선 경기 횟수는 방향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향 그래프가 적당하다. 또한 두 도시 간 연결 도로의 존재 여부는 방향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향 그래프가 적당하다.

③ 두 용액 혼합 시 화학 반응 여부는 방향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향 그래프가 적당하다. 또한 두 지점 간 존재하는 일방 도로의 방향은 방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유향 그래프가 적당하다.



④ 두 학생 간 문자 메시지 전송 횟수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의미가 있으므로 유향 그래프가 적당하다. 또한 두 지역 간 전입 인구수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의미가 있으므로 유향 그래프가 적당하다.

159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정점 1에 매달린 리스트를 보면 두 번째에 3, 7이 있으므로, 정점 1과 정점 3 사이에 가중치가 7인 간선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정점 3에 매달린 리스트를 보면 정점 2, 정점 5와 연결되어 있고 정점 1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점 1과 정점 3 사이에 간선은 한 개 존재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정점 1에서 정점 2로 갈 때 가중치가 8, 정점 2에서 정점 1로 갈 때 가중치가 9인 것에서 이 그래프가 유향 그래프임을 알 수 있다. 3문단에서 유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간선 하나에 노드가 하나씩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인접 리스트의 노드가 12개이므로 그래프의 간선은 모두 12개이다.

② 각 노드는 '정점 번호, 가중치'로 표현되는데, 정점 1에 매달린 정점 2 다음에 숫자 8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중치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방향을 바꾸어 정점 2에 매달린 정점 1 다음의 숫자가 9인 것에서 방향에 따라 값이 다른 유향 그래프임을 알 수 있다.

④ 정점 2에는 정점 1과 정점 3이, 정점 5에는 정점 6이 달려 있다. 따라서 정점 2와 정점 5 사이에는 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정점 3에 달린 정점 5의 가중치가 5이므로 해당 행렬의 원소 값은 5이다.

「거울상 분자 광학 이성질체」

| 해제 | 거울상 분자라고 일컬어지는 광학 이성질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분자의 세계에는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안의 나'와 같이 거울상이 되는 분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거울상 관계를 유지하는 분자들을 광학 이성질체 또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런데 광학 이성질체는 원자가 배치된 상대적인 방향만 서로 반대일 뿐 물리·화학적 성질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질체'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거울상 관계를 유지하는 분자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편광이 광학 이성질체를 통과하면 빛의 진동축이 특정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광학 이성질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외에 이 글에서는 광학 이성질체를 선택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 광학 이성질체와 우리 몸의 단백질의 관련성 등도 설명하고 있다.

| 주제 | 광학 이성질체의 특성

| 구성 |

- 1문단: 광학 이성질체의 개념과 명명 이유
- 2문단: 광학 이성질체의 특성
- 3문단: 광학 이성질체를 선택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
- 4문단: 광학 이성질체와 우리 몸의 단백질의 관련성

160 세부 정보의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4문단에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모두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리신을 제외한 19가지의 아미노산이 광학 이성질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리신을 제외하고 인체를 이루는 단백질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은 편광을 투과했을 때 광학 활성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 편광이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는 처음부터 어느 하나의 광학 이성질체만 선택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거울상 분자들 중 어느 한 종류만을 합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④ 3문단을 보면, 광학 이성질체는 두 종류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 약효를 내는 분자는 광학 이성질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해당한다. 따라서 광학 이성질체의 (+)형과 (-)형이 모두 인체에 이롭게 작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쪽의 분자 앞에는 (+), D, R 등의 표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쪽의 분자 앞에는 (-), L, S 등의 표시를 한다고 하고 있다. 4문단에서도 L-아미노산과 D-아미노산이 거울상 분자라고 말하고 있다.

161 이유의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 제시된 '리모넨의 광학 이성질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광학 이성질체는 원자가 배치된 상대적인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광이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분자를 통과하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빛의 진동축이 회전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편광이 광학 이성질체 분자를 통과했을 때, 분자 자체의 특성이 변한다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② 편광을 광학 이성질체 분자에 비추었을 때 그 구조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은 편광을 광학 이성질체에 비추었을 때 빛의 진동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이다. 광학 이성질체 분자들에 반응하는 빛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그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광학 이성질체 분자는 거울상 분자들이 함께 합성된 이후에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때문에 편광을 비추었을 때, 빛의 진동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아니다.

16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가 소화 효소와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소화 효소가 광학 이성질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 소화 효소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의 거울상 분자에 해당하는 ㉠이 결합할 수 있는 자리에 ㉢가 결합하려

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㉞는 (-)유유 단백질 분자가 소화 효소와 결합하여 분해되는 과정을, ㉝는 (+)유유 단백질 분자가 소화 효소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 주므로, ㉞, ㉝는 서로에 대해 거울상 분자에 해당한다. 거울상 관계인 분자들은 돌을 포갠 때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다.

② 편광이 광학 이성질체를 통과했을 때 빛의 진동축이 특정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한 쪽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다른 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런데 이때 진동축이 회전하는 각도의 크기는 서로 같다. 즉,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회전하는 것이다.

③ 광학 이성질체는 분자량, 끓는점, 녹는점, 용해도 같은 성질이 같기 때문에 이들 성질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④ 마지막 문단에 보면 우리 몸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사용되는 것은 L-아미노산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인간이 유우 속의 단백질을 소화 효소로 분해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 흡수한다고 했으므로, <보기> ㉞의 과정에 의해 분해되는 아미노산은 L-아미노산이다.

163 문맥적 의미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는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⑤의 ‘내다’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안에서 밖으로 옮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② ‘출판물을 발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③ ‘길, 통로, 창문 따위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④ ‘문서, 서류, 편지 따위를 제출하거나 보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미술의 표현』을 보는 세 가지 눈」

해제 |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기초가 되는 미술가(예술가)의 표현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고프리치의 입장을 먼저 소개한 후,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링거와 아르하임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입장에 대한 평을 덧붙이고 있다.

주제 | 미술가의 표현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구성 |

- 1문단: 미술가의 표현에 대한 고프리치의 입장
- 2~3문단: 보링거의 견해
- 4~5문단: 아르하임의 견해
- 6문단: 세 가지 견해에 대한 평가

164 필자의 집필 의도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예술가(미술가)의 표현을 논제로 하여 고프리치의 견해를 설명한 후, 이에 대비되는 보링거와 아르하임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 후 6문단에서 글쓴이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전개와 관련하여 <보기>를 살펴보면 글을 쓴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보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프리치의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에 고프리치의 견해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일종의 편향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글쓴이는 보링거와 아르하임을 소개하여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음을 알려 주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는 문제적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와 관련된 원인을 규명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는 변화된 독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③ <보기>의 현상에 대해 우려한 바가 집필 의도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기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보기>의 현상에 필자가 고무된 것은 아니다.

165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 따르면 고프리치는, 환영을 만들어 내는 미술가의 기법과 그 암시를 받아들이는 감상자의 지식이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지식이 작품 감상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50년대의 민족적 불행의 시기’와 관련하여 황소를 민족적 불행을 토해 내는 존재로 해석한 ‘L’과, ‘가족과 헤어져 홀로 지내던 작가의 형상’으로 황소를 해석하고 있는 ‘K’이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작품 자체의 표현성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ㄴ. 작품 자체의 표현성을 바탕으로 감정 이입을 하여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ㄷ. 작품 자체의 표현을 지각하고, 감상자의 과거 연상을 통한 감정 이입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미적 판단에 대한 경험론, 합리론, 비판론」

해제 | 이 글은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능력인 취미(taste)의 경험론과 합리론을 비판한 칸트의 비판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취미의 경험론에서는 미적 판단이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취미의 합리론에서는 미적 판단이 만인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판단이라고 보았다. 한편 칸트의 비판론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타인과 조율할 수 있는 감각인 ‘공통감’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보편타



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개념 관련성’과 ‘개념에 의한 증명 가능성’은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칸트는 이를 바탕으로 취미의 이율배반을 해결하고자 했다.

| 주제 | 미적 판단과 관련된 칸트의 비판론의 특징

| 구성 |

- 1문단: 취미의 이율배반
- 2문단: 취미의 경험론과 취미의 합리론을 비판한 칸트의 비판론의 특징
- 3문단: 취미의 이율배반을 해결하고자 한 칸트의 비판론의 특징

16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 글쓴이는 취미의 경험론과 취미의 합리론, 그리고 그것들을 비판한 제3의 이론인 칸트의 비판론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는 통념이나 그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 소개하는 이론들의 역사적 배경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 취미의 경험론과 취미의 합리론이 서로 대립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이론이 ‘특정 이론’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에서 글쓴이가 특정 이론에 동조하고 그와 반대되는 이론을 반박한 것은 아니다.

16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 따르면 ‘무관심성’을 지닌 판단은 일종의 욕망이나 지향점 또는 목적, 혹은 어떤 사회적·도덕적·지적 고려 사항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미적 판단이다. 그런데 <보기>의 명희는 자신이 감상하는 그림이 식욕을 자극한다고 여겨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는 판단이 일종의 욕망과 결부된 것이므로 ‘무관심성’에서 벗어나 있는 판단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명희의 감상은 도덕적 관심과는 별 상관없다.

③ 명희의 미적 판단이 일체의 욕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완전성, 즉 선(善)은 도덕적 관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명희가 미술 작품의 완전성으로 인한 미적 만족을 느꼈다고는 볼 수 없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칸트는 취미가 공통감을 전제한다면 보편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8 생략된 정보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칸트는 공통감을 전제하여 취미의 이율배반을

해결하고자 했다. 공통감이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타인과 조율할 수 있는 감각’을 의미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감각적 만족과 달리 도덕적 만족이 타인과 공유되고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칸트는 취미가 개념과 관련되어 있어야만 모든 사람에 대한 필연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미가 개념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는 주장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③ 칸트는, 미적 판단은 일체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무관심성’을 지닌 판단이지만, 공통감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고, 전달받은 타인도 그가 완전히 ‘무관심성’을 지니고 그 대상을 감상했다면 애초에 자신에게 말한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⑤ 칸트가 미적 판단이 지닌 주관적 판단의 속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취미의 이율배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169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경도’란 ‘은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거나 열중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침.’은 ‘배척’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식쌍성의 광도 곡선」

| 해제 | 이 글은 식쌍성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광도 곡선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식쌍성은 같은 궤도 중심을 가지며, 그 중심을 사이에 두고 대칭인 방향에서 같은 공전 주기로 돌고 있는 두 별을 가리킨다. 이들은 교대로 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쌍성의 광도 곡선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광도를 지니지만 주기적으로 광도가 하강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광도 곡선의 변화로부터 식쌍성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식 현상을 일으키는 두 별의 공전 속도와 식의 지속 시간을 이용하여 두 별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주제 | 식쌍성의 광도 변화와 식 현상을 통해 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 구성 |

- 1문단: 쌍성의 개념
- 2문단: 광도 변화를 통해 파악되는 식쌍성의 특징
- 3문단: 식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른 광도의 변화 양상
- 4문단: 식 현상이 교대로 진행됨에 따른 광도 곡선의 전체적 양상
- 5문단: 식 현상을 통해 두 별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

170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서 식쌍성의 전체 광도가 변하는 현상은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만 광도가 변하는 것처럼

럼 보이는 현상으로, 별 자체의 물리적인 변화와는 관계가 없다.' 라고 했으므로 식쌍성의 전체 광도가 변하는 현상은 별 자체의 광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쌍성은 동일한 궤도 중심을 가지며, 그 중심을 사이에 두고 대칭인 방향에서 같은 공전 주기로 돌고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식쌍성의 식 현상을 통해 두 별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두 별의 식으로 인해 광도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쌍성을 식쌍성이라 한다고 했으므로, 식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쌍성은 서로 다른 궤도 위에서, 동일한 궤도 중심을 가지며, 그 중심을 사이에 두고 대칭인 방향에서 같은 공전 주기로 돌고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71 새로운 정보의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문제는 <그림 1>의 ㉗가 현 위치에서 다시 현 위치로 돌아오는 사이의 광도 곡선의 변화를 묻고 있다. 3, 4문단의 설명을 통해 광도 곡선을 그려 본다면, ㉗가 밝은 별을 가리기 전까지는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㉗가 밝은 별을 가리는 시점에서는 가장 줄어들 것이다. 식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처음의 광도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밝은 별이 ㉗를 가리는 시점에서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식에서의 광도의 감소보다는 덜할 것이다. 식이 끝나고 ㉗가 다시 현 위치로 돌아오는 시점에서는 원래의 광도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172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3, 4문단의 내용을 통해, 식이 일어나기 전인 6시 직전과 식이 완전히 끝난 6시 50분 직후에 식쌍성의 광도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6시부터 10분 동안은 식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므로 광도가 하강할 것이다.

② 6시 10분부터 40분까지는 밝은 별이 어두운 별에 완전히 가려져 있는 시간이므로 광도가 최하가 될 것이다.

④ 6시 40분부터 50분까지는 밝은 별이 어두운 별을 벗어나기 시작하여 완전히 벗어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므로 그 사이의 광도는 점점 상승할 것이다.

⑤ 4문단에서 식 현상이 교대로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다음번엔 밝은 별이 어두운 별을 가리는 식이 진행될 것이다. 또, 2문단에서 밝고 작은 별이 어둡고 큰 별을 가리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광도의 감소가 덜하다고 했으므로, 다음 식의 광도의 최솟값이 이번 식의 광도의 최솟값보다 더 클 것이다.

173 내용의 구체적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에서 '작은 별이 1에서 3까지 움직었다면 작은 별은 큰 별의 지름만큼 이동한 것이므로 작은 별의 공전 속도와 1에서 3까지의 이동 시간을 곱하면 큰 별의 지름도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으므로 작은 별이 큰 별에 가려지기 시작한 시점(6시)부터 큰 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점(6시 40분)까지의 시간인 40분에 작은 별의 공전 속도를 곱한 값이 큰 별의 지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작은 별이 큰 별에 가려지기 시작한 시점이 6시, 완전히 가려진 시점이 6시 10분이므로 10분은 작은 별이 자신의 지름만큼 움직인 시간이다. 따라서 이것에다가 작은 별의 공전 속도를 곱하면 작은 별의 지름을 알 수 있다.

「컴퓨터의 교착 상태와 다익스트라의 은행원 알고리즘」

| 해제 | 이 글은 컴퓨터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와 교착 상태의 해결책 중 하나인 다익스트라의 은행원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다. 서로 다른 두 프로세스가 각각 자원을 보유한 채 작업을 위해 상대 프로세스가 보유한 자원을 요청하며 기다리고 있어 두 프로세스 모두 작업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한다. 다익스트라의 은행원 알고리즘은 가용 자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부터 해결하여 교착 상태를 피해 모든 프로세스가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다.

| 주제 |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한 다익스트라의 은행원 알고리즘

| 구성 |

- 1문단: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사례
- 2문단: 교착 상태 해결책 중 하나인 다익스트라의 은행원 알고리즘
- 3문단: 다익스트라의 은행원 알고리즘의 사용 사례
- 4문단: 다익스트라의 은행원 알고리즘에서 불안전 상태와 안전 상태의 차이

174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컴퓨터 교착 상태의 개념을 설명하고,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조건과 해결책 중 하나인 '다익스트라의 은행원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 프로세스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글의 핵심 내용은 아니다.

② 1문단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종료를 한다고 하였지만, 강제 종료의 문제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③ 알고리즘의 개념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다익스트라의 은행원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은행원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프로세스가 작업을 마칠 수 있으면 안전 상태, 그렇지 않으면 불안전 상태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안전 상태와 불안전 상태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이 글의 핵심 정보는 아니다.

175 세부 정보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를 보면,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지 않아도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세스 A가 프린터뿐만 아니라 DVD 드라이브도 요청을 하면 프린터는 프로세스 B가 사용 중이라 사용할 수 없고, DVD 드라이브는 프로세스 C가 사용 중이라 사용할 수 없어 여전히 작업을 마칠 수 없다. 따라서 교착 상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프로세스 A가 디스크 드라이브를 반납하면 프로세스 C가 작업을 마칠 수 있어 DVD 드라이브를 반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B가 요청한 DVD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작업을 마친 뒤, 프린터를 반납한다. 마지막에 프로세스 A가 프린터와 디스크 드라이브 모두를 사용해 작업을 끝마치면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프로세스가 작업을 마칠 수 있다.

③ 프로세스 A가 프로세스 B에서 프린터를 가져와 작업을 마치면 프린터와 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반납할 수 있어 프로세스 C가 작업을 하고, 프로세스 C가 반납한 DVD 드라이브와 프로세스 A가 반납한 프린터를 가져와 프로세스 B가 작업을 마칠 수 있다.

④ 프로세스 A가 사용 중인 디스크 드라이브를 프로세스 C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프로세스 C는 작업을 마칠 수 있다. 이후 프로세스 C가 DVD 드라이브를 반납하여 프로세스 B가 작업을 마치면, 프로세스 A도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어 작업을 끝낼 수 있다.

⑤ 프로세스 A가 작업하는 동안 프로세스 B와 C가 어떤 작업도 할 수 없게 한다면 프린터와 디스크 드라이브 모두를 사용할 수 있어 작업을 마칠 수 있으며 프로세스 B와 프로세스 C 역시 하나씩 작업을 실행하면 교착 상태 없이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다.

176 미루어 알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총 자원 수는 시스템이 보유한 자원 수이고, $loan(P_1)$ 는 총 자원 수에서 각 프로세스들이 현재 대여한 자원의 수이며, 가용 자원 수는 시스템이 현재 할당해 줄 수 있는 자원의 수를 나타낸다. 가용 자원 수가 3이므로, 다익스트라의 은행원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이보다 요청하는 자원 수가 같거나 적은 P_2 와 P_3 를 실행할 수 있다. P_2 가 자원 3개를 받아 작업을 먼저 끝내고 모두 반납하면 가용 자원 수는 5개가 된다. 그다음에는 요청하는 자원 수가 5개보다 작은 P_1 이나 P_3 를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요청하는 자원 수가 6개인 P_4 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P_2 가 자원 3개를 받아 작업을 먼저 끝내고 모두 반납하면 가용 자원 수는 5개가 된다. 그다음에는 요청하는 자원 수가 5개보다 작은 P_1 을 실행하면 가용 자원 수는 6개가 되어 P_3 을 실행할 수 있고, 이 작업을 끝내고 자원을 모두 반납하면 가용 자원

수는 8개가 되어 P_4 도 작업을 끝낼 수 있다.

② P_2 가 자원 3개를 받아 작업을 먼저 끝내고 모두 반납하면 가용 자원 수는 5개가 된다. 그다음에는 요청하는 자원 수가 5개보다 작은 P_1 을 실행하면 가용 자원 수는 6개가 되어 P_4 를 실행할 수 있고, 이 작업을 끝내고 자원을 모두 반납하면 가용 자원 수는 8개가 되어 P_3 도 작업을 끝낼 수 있다.

④ P_3 가 자원 2개를 받아 작업을 먼저 끝내고 모두 반납하면 가용 자원 수는 5개가 된다. 그다음에는 요청하는 자원 수가 5개보다 작은 P_1 을 실행하면 가용 자원 수는 6개가 되어 P_2 를 실행할 수 있고, 이 작업을 끝내고 자원을 모두 반납하면 가용 자원 수는 8개가 되어 P_4 도 작업을 끝낼 수 있다.

⑤ P_3 가 자원 2개를 받아 작업을 먼저 끝내고 모두 반납하면 가용 자원 수는 5개가 된다. 그다음에는 요청하는 자원 수가 5개보다 작은 P_2 를 실행하면 가용 자원 수는 7개가 되어 P_4 를 실행할 수 있고, 이 작업을 끝내고 자원을 모두 반납하면 가용 자원 수는 9개가 되어 P_1 도 작업을 끝낼 수 있다.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 법칙」

| 해제 | 이 글은 '톱니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의 소비는 항상 자신의 소득과 발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한번 소비 습관이 생기면 소득이 준다 하더라도 그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가 후퇴하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소비가 급격히 줄지 않기 때문에 급속도의 경기 후퇴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런 '톱니 효과'는 기업이 목표를 세울 때도 나타난다. 한번 목표를 높게 잡으면 다시 목표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목표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까지만 목표를 높여 설정하려고 한다.

| 주제 | '톱니 효과'의 개념과 그 현상

| 구성 |

- 1문단: 소비와 '톱니 효과'
- 2문단: '톱니 효과'의 개념
- 3문단: 장기 소비 함수와 단기 소비 함수
- 4문단: 기업과 '톱니 효과'

177 내용 전개 방식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을 특정 이론인 '톱니 효과'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톱니 효과' 이론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론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고는 있지만 통시적으로 변천 과정을 살피고 있지는 않다.

④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톱니 효과'를 장기 소비 함수와 단기 소비 함수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78 사례 적용하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마지막 문단에서 ‘톱니 효과’로 인해 다음 해 목표가 기대 수준 이상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연도의 성과를 위해 다음 해의 성과 목표를 일부러 낮추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업 부장은 내년도의 성과 목표를 예상치보다 낮게 잡으려 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 따르면 은행의 금리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액을 늘리기도 한다.

③ 1문단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계층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변인의 소비 형태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④ 1문단에 따르면 자산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자신의 과거 소득에 영향을 받아 소비 패턴을 빨리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79 내용의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A]에서 소득이 오르면 소비는 장기 소비 함수를 따라 움직이지만 경기가 후퇴해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기 소비 함수를 따라 하향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비 수준이 B 지점일 때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는 ㉞ 함수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㉜ 함수를 따라 C 지점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장기 소비 함수보다 단기 소비 함수가 경사가 완만하다고 하였으므로 ㉞가 장기 소비 함수이고, ㉜가 단기 소비 함수이다.

② [A]에서 일반적으로 호황기에는 장기 소비 함수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였다.

③ [A]에서 경기가 후퇴해 소득이 줄어들면 장기 소비 함수를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기 소비 함수를 따라 완만하게 하향한다고 하였으므로 단기 소비 함수가 경기 후퇴를 억제하는 톱니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A]에서 호황기에는 소득이 소비에 충분히 반영되는 장기 소비 함수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였다.

180 독서 방법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갑’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과정 없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읽기 과제를 수행하려는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지난번에도 유사한 과제를 수행했는데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읽으려고 했다

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예전 경험을 거울삼아 읽기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③ ‘두 기사 모두 제목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걸 보니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이겠구나. 내 관심사와 일치하네.’라는 구절에서 추리할 수 있다.

④ ‘갑’은 과학의 달에 과학 도서를 읽고 홈페이지에 비판적 내용의 서평을 올리려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을’은 한 가지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편 신문 기사를 골라 읽고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려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

⑤ ‘비판적 사고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의 장밋빛 미래』가 낫겠지?’라는 ‘갑’의 생각과, ‘두 기사 모두 제목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걸 보니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이겠구나.’라는 ‘을’의 생각에서 추리할 수 있다.



문학

181~270

본문 92~136쪽

181 ③	182 ②	183 ③	184 ③	185 ③
186 ③	187 ③	188 ④	189 ②	190 ②
191 ⑤	192 ⑤	193 ②	194 ⑤	195 ③
196 ⑤	197 ②	198 ⑤	199 ⑤	200 ③
201 ③	202 ②	203 ④	204 ④	205 ④
206 ①	207 ③	208 ①	209 ②	210 ②
211 ③	212 ③	213 ④	214 ④	215 ⑤
216 ④	217 ①	218 ①	219 ②	220 ②
221 ⑤	222 ①	223 ②	224 ②	225 ⑤
226 ②	227 ⑤	228 ④	229 ⑤	230 ④
231 ③	232 ⑤	233 ③	234 ④	235 ④
236 ⑤	237 ④	238 ④	239 ⑤	240 ③
241 ④	242 ③	243 ③	244 ④	245 ⑤
246 ③	247 ③	248 ⑤	249 ⑤	250 ④
251 ④	252 ③	253 ④	254 ①	255 ①
256 ③	257 ⑤	258 ②	259 ③	260 ②
261 ①	262 ④	263 ④	264 ②	265 ④
266 ①	267 ⑤	268 ④	269 ④	270 ①

김종길, 「자전거」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가) 김종길, 「자전거」

| 해제 | 이 작품은 '자전거'를 소재로, 노년기의 삶을 내리막길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상황에 유추하여 노년기를 바라보는 화자의 담담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그린 작품이다. 화자는 결국엔 쓰러질 것을 알면서도 햇살을 바라보고 방울 소리를 들으며 상쾌하게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이는 인생의 노년과 죽음까지도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 주제 | 인생의 노년기와 죽음을 응시하는 여유로운 태도

| 구성 |

- 1연: 가속이 붙는 내리막길
- 2연: 균형을 잡아야 하는 내리막길
- 3연: 편안한 내리막길
- 4연: 쓰러질 줄 알면서도 상쾌하게 달리는 내리막길
- 5연: 가을 석양의 내리막길

(나)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 해제 | 이 작품은 자연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 대응시켜 표현하고 있다. 1연에서는 '숨가쁜 나무'의 모습에 젊은 시절 사랑과 그리움으로 어지러웠던 모습을, 2연에서는 잎사귀들을 떨어낸 '겨울나무'의 모습에 벗을 것을 다 벗어 버린 마흔 가까운 나이의 삶을 투영시키고 있다. 그리고 3연에서 화자는 마치 '겨울나무'처럼 탕 안에서 벗을 것을 다 벗어 버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 주제 | 벗을 것을 다 벗어 버리고 자아의 참된 모습을 확인한 데서 오는 기쁨

| 구성 |

- 1연: 숨 가쁜 나무처럼 어지러웠던 스물 안팎의 삶
- 2연: 겨울나무처럼 다 벗어 버린 마흔 가까운 때의 모습
- 3연: 벗을 것을 다 벗고 자아의 참된 모습을 확인하는 기쁨

18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시간적 배경은 해가 질 석양 무렵으로, 이는 인생의 황혼기를 비유한 것이다. 화자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담담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삶을 관조하고 있다. (나)의 시간적 배경은 겨울로, 화자는 겨울에 잎사귀들을 다 떨어내고 벗어 버린 '겨울나무'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시간적 배경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앞말을 뒤에서 받는 연쇄법은 (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② (가)에는 '결국엔', (나)에는 '때는'과 같은 시어가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미상관 기법은 (가), (나)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자전거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유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시상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18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그러나 균형은 잡아야 한다.'라는 표현은 단정적 표현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노년기의 삶 역시 무언가가 갑자기 뛰어 들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균형 잡힌 삶의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의미상 모순이 되는 어구를 배치하여 뜻을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자전거의 모습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유추하고 있다고 <보기>에 나와 있다.

③ '해가 저물고'를 통해 죽음을 유추하고 있다.

④ '상쾌하게'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지그시 브레이크도 걸어보면서.'는 급한 상황에서 서둘러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여유롭게 언덕길을 내

러가는 모습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여유로운 응시와 수용적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183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는 살면서 가졌던 사랑과 그리움 등의 온갖 고뇌와 갈등을 다 내려놓은 삶의 자세를 보여 준다. 욕망과 그로 인한 갈등을 내려놓음으로써 화자가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시원하게'라는 시어를 통해 드러난다. 세상의 이목이나 주체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스물'은 사랑과 그리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하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마흔'은 모든 것을 벗어 버린 달관적 삶의 경지가 지닌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② 겨울나무와 대립된 것으로 흔히 '여름 나무'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를 특별히 '숨가쁜 나무'라고 표현함으로써 젊은 시절의 격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탕'은 걸치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 버린 공간으로, 화자의 심적 상태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공간이다.

⑤ '손을 흔들며 / 기쁘게'는 화자가 겨울나무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인법을 통해 보여 주는 것이다.

양귀자,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해제 | 이 작품은 1980년대 도시 변두리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으로, 타자에 대한 불신이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수록된 부분에서는 '그'와 아내가 임 씨를 불신했으나, 목욕탕 공사에 이어 옥상 방수 공사까지 깔끔하게 마친 임 씨를 보고 미안함을 느끼며 함께 술을 마시고, 임 씨가 처음 말했던 십팔만 원보다 훨씬 적은 칠만 원의 견적서를 내밀자 놀라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 주제 | 소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화해

| 전체 줄거리 |

'그'는 원미동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여 이사한다. 그런데 목욕탕 파이프가 터지자 지물포 주 씨에게 소개받은 임 씨를 고용한다. 그런데 임 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부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임 씨가 일을 대충 하면서 돈만 많이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임 씨는 힘든 옥상 공사까지 정성껏 마친 뒤, 자신이 일한 만큼만 계산해서 견적서를 수정하고 옥상 공사는 서비스라고 말한다. 임 씨의 진실성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 '그'는 임 씨와 따로 술을 한잔 더 하게 되고, 임 씨가 비 오는 날이면 떼인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난한 도시 빈민인 임 씨의 처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

184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소설 속 서술의 주체, 즉 서술자는 1인칭 서술자와 3인칭 서술자로 나눌 수 있다. 1인칭 서술자의 경우 작품 속 등장 인물 '나'가 자신의 관점에서 작중 사건의 경과를 서술해 나가는 반면, 3인칭 서술자의 경우 작가의 위치에서 작품 속 사건을 서술해 나간다. 이 작품의 경우 '그'라는 특정 인물의 시선에 비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3인칭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지만 마치 1인칭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러나 그 특정 인물이 '나'로 표현되지 않고 '그'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술자가 특정 인물이 아닌 작품 바깥의 작가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3인칭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경우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일 경우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④ 전지적 시점일 경우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그'의 속마음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었다.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일 경우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이 작품은 서술자가 '그'라는 인물의 속마음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전지적 시점에 해당한다.

185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의 전반을 살펴볼 때, 임 씨는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신이 일한 만큼의 노임만 받는 정직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 씨가 ㉠에서 한 말은, 목욕탕 공사가 예상보다 수월하게 끝났으니 처음에 제시한 견적 금액보다 적게 받으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임 씨가 '그'와 아내가 견적 금액을 깎고 싶어 함을 눈치챘다는 사실은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앞선 서술에서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다.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라고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는 임 씨의 열정을 못 미더워하는 아내의 심리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② 뒤에 이어지는 서술 중, '옥상 일까지 시켜 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라고 '그'가 짐작하는 서술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볼 때 ㉡은 견적대로의 금액을 지불하기를 주저하는 아내의 심리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임 씨가 옥상 일을 할 때,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였던 '그'의 생각과, 임 씨가 새로운 견적서를 내밀기 전, 아내가 처음 지



갑을 열었을 때 ‘아내가 제발 탄소리 없이 이십만 원에서 이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다.’라는 ‘그’의 심리에 비추어 볼 때, ㉔은 임 씨가 새로 내놓은 칠만 원의 견적 금액이 임 씨의 수고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는 ‘그’의 심리가 반영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임 씨는 ‘그’와 아내가 처음에 자신이 내놓은 견적 금액에 불만을 가졌다는 점이나, 그가 보인 열정을 거짓된 것으로 의심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앞선 발화의 내용을 보면, 임 씨는 ‘그’가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트집 잡는 다른 집과는 달리 마음이 물려서 미안해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㉔은 ‘그’와 아내의 미안한 마음을 털어 주고 싶은 임 씨의 의도가 반영된 발화라고 볼 수 있다.

18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 임 씨는 결과적으로 ‘그’에게 금전적 이익보다 양심을 지키는 삶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 이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속물적인 생각을 반성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임 씨가 ‘그’에게 일깨움을 주었다는 것은 맞지만, ③과 같이 ‘그’가 임 씨에게 일깨움을 준다는 진술은 적절치 못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내가 지갑을 열고 임 씨에게 ‘돈 드러야지요, 그런데…….’라고 말한 뒤, 이어지는 서술에서 ‘옥상 일까지 시켜 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내가 제발 탄소리 없이 이십만 원에서 이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아내는 임 씨에게 견적 금액을 다 내주기를 아까워하며, 이를 깎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내는 <보기>에서 말한, ‘속물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이혜타산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임 씨는 힘든 옥상 일을 덤으로 떠맡아 끝내고서는, ‘그’나 아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견적 금액을 다시 계산하였고, 본래의 금액인 십팔만 원보다 한참 낮은 칠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는 ‘그’나 아내의 의심과 달리 임 씨가 본래 자신이 일한 만큼만 정직하게 돈을 받는 인물이었음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임 씨는 <보기>에서 말한, ‘양심을 지키며 순수하게 살아가는 인물’에 해당하며, 그가 동네 연탄 배달부로 사는 인물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②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가난하지만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④ ‘그’는 처음에 아내와 마찬가지로 임 씨의 열정을 지어낸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임 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특히 아내가 임 씨에게 금액을 지불하려 할 때, 아내가 원래의 견적대로의 금액을 지불하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다. 또한 임 씨가 견적 금액을 다시 계산할 때에는 그의 머릿속에 굴러다닐 숫자들에 집중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 냉소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그’는 임 씨와의 만남 이후, <보기>에서 말한 ‘때 묻지 않은 삶이 남

아 있는 아름다운 공간’인 원미동에서의 삶에 동화되어 가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임 씨가 옥상 일을 하며 보여 준 열정에 대해 아내는 비싸게 부른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아내가 임 씨를 믿지 못했던 까닭은 결국 사람을 꺾어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올 금전적 이익과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람을 평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혜타산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습은 <보기>에서 말하는 ‘산업화 과정의 이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7 한자 성어의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승자박’이란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움아 묶는다.’라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움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A]는 옥상 일을 일부러 만들어 임 씨에게 시킨 ‘그’와 아내가 오히려 잡역부 노릇에 시달리고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자 성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이르는 말이다.

②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이리저리 마구 찌르고 부딪침.’을 이르는 말이다.

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작자 미상, 「정음사」

| 해제 |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노래이다. 노래의 가사가 조선 시대 악보집에 해당하는 『악학궤범』에 전하며, 배경 설화는 『고려사악지』에 실려 있다. 『고려사악지』에서 이 노래를 백제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비 전승되던 노래가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노래는 행상을 나간 임(남편)을 걱정하고 기다리는 여성 화자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달남에게 기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달’과 ‘즌 달’은 각각 ‘광명’과 ‘어둠(위험)’을 상징하는 소재로 대립적 속성을 통해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요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일컬어지며, 여음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을 정리하면 3장 6구의 형식과 유사하여 시조 형식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 주제 | 남편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 구성 |

- 1행~4행: 달남에게 남편이 오는 길을 밝혀 줄 것을 기원함.
- 5행~7행: 시장에 간 남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걱정함.
- 8행~11행: 남편과 자신의 앞날이 어두워질까 두려워함.

188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의 화자는 시장에 가 있는 임(남편)을 떠올리며 임이 무사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첫 부분에서는 달님을 부르며 남편이 가는 길을 밝혀 줄 것을 부탁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남편이 위험에 처하게 될까 봐 불안해하면서 남편과 자신의 앞날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의 마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어 쓴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남편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큰 것은 사실이나, 상황이 긴박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와 같은 여음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② 첫 행에서 화자는 ‘돌’과 같이 달님을 호명한 뒤 2행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고 있다. 즉,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뒤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③ ‘돌’, ‘즌 디’와 같이 ‘광명’이나 ‘어둠(위험)’을 상징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달이 뜬 밤, 시장에 나간 임이 위험을 피하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화자는 하늘에 뜬 ‘돌’에게 높이 돌아 멀리 ‘비취오시라’ 하고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드드울세라’, ‘점그물세라’와 같이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189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임과 떨어져 홀로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의 상황에서 화자는 시장에 간 임(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보기>의 상황에서 화자는 헤어져 있는 임이 혹시나 올까 하며 기다리고 있다. 두 화자 모두 간절하게 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계절적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는 잎’으로 볼 때 늦가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달’이 뜬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만 알 수 있을 뿐, 계절적 배경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③ 이 글의 화자가 임의 안위를 떠올리며 불안해한다면, <보기>의 화자는 언제 올지 모르는 임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두 화자 모두 임과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다고 말하기 힘들다.

④ 이 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와 임의 상황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 시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의 화자나 <보기>의 화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자신의 감정을 내보이고 있다. 두 시 모두 개인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190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노피곰 도드샤’는 화자가 달님에게 전하는 말이다. 화자는 달님이 높이 돌아 멀리까지 비추어 주기를, 그리하여 시장에 가 계신 임이 진 곳(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은 임의 안전을 간절하게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담은 구절로, 이 표현 속에서 화자가 신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돌’은 높이높이 떠올라 멀리멀리 비추어 주는 존재이다. 세상을 밝게 비추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광명이나 빛, 기원의 대상, 천지신명 등을 상징하는 시어가 된다.

③ ‘저재 너러신고요.’는 ‘시장에 가 계신가요?’와 같이 해석된다. 이 시에서 화자가 사랑하는 임(남편)은 대체로 시장에 가 물건을 파는 행상인으로 해석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저재’이다. 이는 남편이 하는 일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이다.

④ 이 시에서 ‘즌 디’는 질퍽한 곳이나 위험한 곳 등으로 해석된다. 시장에 간 임이 위험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크세라’와 같이 의심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의구형 어미를 통해 드러나 있다.

⑤ ‘노코시라’는 대체로 ‘놓고 계십시오’나 ‘놓으십시오’로 해석되는데, 행상 나간 임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어느 곳이나 (짐을) 다 놓고 (안전하게) 계십시오.’와 같이 남편에게 당부하는 말로 풀이된다. 따라서 ㉡은 화자가 사랑하는 임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볼 수 있다.

작자 미상, 「장끼전」

| 해제 | 이 작품은 원래 「장끼 타령」 등의 제목으로 불리던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웅치전(雄雌傳)», 「화충전(華蟲傳)」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작품은 동물을 인격화한 우화 소설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改嫁) 금지라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대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까토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끼가 이를 무시하고 콩을 먹다 죽는 장면이고, 후반부는 남편인 장끼가 죽은 후 홀아비 장끼를 만나 까토리가 개가하는 장면이다. 전반부가 장끼의 행동을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데 비해, 후반부는 여성의 개가를 금지하는 시대 분위기를 비판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현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까토리의 모습을 통해 주체적이고 여성 해방적인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주제 | 남존여비 사상과 여성의 개가 금지에 대한 비판과 풍자

| 전체 줄거리 |

장끼가 아내 까토리와 함께 아홉 아들, 열두 딸을 거느리고 엄동설한에 먹을 것을 찾아 들판을 헤매다가 콩 한 알을 발견한다. 굶주린 장끼가 먹으려 하니 까토리는 전날 꾸었던 불길한 꿈을 말하며 먹지 말라



고 말한다. 그러나 장끼는 고집을 부리며 그 콩을 먹다 밧에 치여 죽게 되고, 죽으면서 아내에게 개가지지 말고 수절하여 정렬부인이 되라고 유언한다. 밧의 임자가 나타나 장끼를 빼어 들고 가 버린 뒤 까토리는 장끼의 깃털 하나를 주워다가 장례를 치른다. 까토리가 상부(喪夫)하였다는 말을 듣고 문상 왔던 갈까마귀와 물오리 등이 청혼하지만 까토리는 모두 거절한다. 그러다가 문상 온 홀아비 장끼의 청혼을 받아들여 재혼한다. 재혼한 이들 부부는 아들딸을 모두 혼인시키고 명산대전을 구경하는 등 백년해로(百年偕老)하다가 큰 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

19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장면에서 방언 표현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 토속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원수로다 원수로다. 고집불통 원수로다.’, ‘미망일세 미망일세. 이 몸이 미망일세.’와 같은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장끼에 대한 원망이나 상부(喪夫)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장끼가 콩을 먹으러 가다 밧에 치이는 장면, 까토리를 으박지르면서도 죽음이 두려워 까토리에게 맥을 짚고 눈치를 보게 하는 장면 등에서 해학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박랑사 중에 저격시황 하다가 버금 수레 맞히는 듯’, ‘양약이 고구나 이어병이요, 충언이 역이나 이어행이라’와 같이 현학적인 관용 표현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④ 김친 장, 전주 장, 청주 장, 감영도, 병영도, 수령도의 관청고, 봉물집, 사포 밥상, 혼인집 폐백 건치 등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19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끼가 사냥꾼의 밧에 치인 것은 까토리의 만류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행은 ‘상부 잦은’ 까토리에게 장기간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당대 남성의 표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끼와 까토리가 의인화된 것은 맞지만 장끼의 경우 부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한 대상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② 까토리가 세 번의 개가(改嫁)를 통해 네 명의 낭군을 얻고 잃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윤리 의식의 타락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까토리는 장끼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우화가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작품 구성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인물의 말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정렬부인’은 남성 중심의 유교적 전통 속에서 지속적으로 선호되

던 여성상으로, 조선 후기에 새롭게 제시된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다.

193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장끼가 밧에 치여 죽게 된 상황을 애통해하는 까토리의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머리를 풀고, 바닥에 구르고, 가슴을 치고, 잔디풀을 쥐어뜯고 밧을 구르는 행위는 슬픔을 표현하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어 슬픔의 정서를 고조하기는 하지만 나열한 행동들이 순서대로 점점 커지거나 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점층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열두 장목 펼쳐 들고’는 날개를 한껏 펼친 꿩의 모습에 대한 묘사이고, ‘꾸벅꾸벅 고개 조아~’는 꿩이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③ 눈동자가 떠나간다는 것은 의식을 잃어 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곧 장끼가 죽어 가고 있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④ 해당화는 봄이 되면 다시 피지만 장끼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므로 둘 사이의 비교를 통해 까토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⑤ ‘관청고’, ‘봉물집’, ‘사포 밥상’, ‘혼인집 폐백 건치’ 등은 실제 꿩이 사용되는 쓰임새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끼는 자신의 앞날을 예상하고 있다.

김기림, 「단념」

| 해제 | 이 수필은 평범한 속인들처럼 적당히 단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단념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끝없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주제 | 진정한 삶의 자세

| 구성 |

- 1~3문단: 살아가는 것은 끝없는 단념의 연속
- 4~8문단: 다양한 삶의 태도
- 9~10문단: 단념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의지

194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모든 것을 단념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대비는 ‘일체’와 ‘무’, 혹은 ‘두 단애의 절정’과 ‘골짜기 밑바닥의 탄탄대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수필에서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고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설의적 표현은 ‘삼십이 넘어 가지고도 ~ 어찌면 그렇게도 찬란한 명구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속인들의 삶의 태도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② 모든 것을 욕망하는 생활 태도를 보여 준 인물들에 대한 예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이 수필에서 비유적 표현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두 단애의 절정'이라는 비유를 통해 예술과 학문에서 글쓰기가 지향하는 삶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일체냐 그렇지 않으면 무냐?'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을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19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그 하나는 영구한 적멸로 가고 하나는 그 부단한 건설로 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영구한 적멸'은 ㉠을, '부단한 건설'은 ㉡을 가리킨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구하는 삶은 ㉡이 아니라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글의 후반부에 '이십대에는 성히 욕망하고 추구하다가도 삼십 대만 잡아서면 사람들은 더욱 성하게 단념해야 하나 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②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하는 것은 '무'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속인들의 처세와는 달리 끝없이 욕망하는 생활은 ㉡이 아니라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과 ㉡ 모두 '영웅의 길'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⑤ ㉠과 ㉡은 모두 평온을 바라는 시민의 삶의 태도는 아니다. 평온을 바라는 시인의 삶은 '얼마간 욕망하다가 얼마간 단념'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 해제 | 이 작품은 겨울에서 봄 사이에 진행되는 나무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순환에 따라 겨울나무가 봄 나무로 변화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시이다. 보통 나무는 봄이 되어 꽃을 피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시에서 나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시인은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로의 변화를 통해 겨울로 상징되는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려는 치열한 고뇌와 극복 과정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 주제 | 겨울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굳건한 생명력

| 구성 |

- 1~3행: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나무
- 4~9행: 나무가 겪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
- 10~14행: 부정적 상황에 대한 나무의 고뇌와 거부
- 15~20행: 부정적 상황을 이겨 내려는 나무의 치열한 극복 과정
- 21~23행: 치열한 노력의 결과로 꽃을 피워 낸 나무의 생명력

196 내재적 접근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시는 겨울에 잎이 다 진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는 모습을 나무의 능동적인 변화 과정으로 그려 내면서 나무의 의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시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나무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시에서 화자와 대상과의 일체감이 드러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화자와 대상의 조화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시에서 '지상'과 '하늘'은 대조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대조적 공간을 통해 화자가 바라는 세계에 대한 동경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④ 이 시에는 나무에 대한 대립적 시각이 나타나 있지 않다.

197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시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로의 변화를 나무 스스로의 온 힘을 다한 노력의 결과로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무방비의 나뭇'에서 '온 혼으로 애타면서', '푸른 잎'이 나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나무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별 받는 자세', '별 받은 몸', '별 받는 목숨' 등으로 시구를 반복 변주하면서 나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몸속으로 불타면서', '으스러지도록 부르러지면서'는 추운 겨울과 맞서는 나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열찬 노력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④ '영하 십삼도 / 영하 이십도 지상'과 '영상 오도 영상 십삼도 지상'은 각각 부정적인 현실 상황과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⑤ '나무는 자기 몸으로 / 나무이다'는 나무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 피는 나무이다'는 나무의 주체적인 노력을 꽃이 피는 모습으로 구체화하여 그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98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시는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화자가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로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겨울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과정을 '나무'의 입장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인 '나무'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시에서는 3, 4행의 '자기 온몸으로', 10행의 '이게 아닌데', 15, 16행의 '으스러지도록' 등과 같이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나무'를 의인화하여 강한 생명력으로 겨울을 이겨 내고 봄을 맞이하는 '나무'의 능동적인 모습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 ③ '된다', '올라간다', '나무이다' 등의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④ '막 밀고 올라간다',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등의 상승 이미지를 통해 겨울을 이겨 내고 봄을 맞는 '나무'의 의지와 노력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전광용, 「사수」

| 해제 | 이 작품은 친구 사이의 대결 의식이 전쟁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생기는 대립이 아니라 외부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대결이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본능적인 대결 의식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의 본원적인 경쟁심에 전쟁이라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 주제 | 인간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대결 의식

| 전체 줄거리 |

'나'는 병원에서 의식이 깨어나 B와의 마지막 대결을 회상하며 '나'가 어쩌면 지금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B와의 첫 대결은 우연히 '곰'이라는 별명의 선생에게 서로의 뺨을 때리는 벌을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같은 중학교 한반이었던 '나'와 B는 실력 경쟁에서도 치열했고 둘 다 경희를 좋아했다. 졸업반이 되던 해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으나 B는 양보보다는 대결을 선택했다. 이후 '나'와 경희는 약혼한 바나 다름이 없었는데, 6·25 전쟁을 계기로 모두 흩어진 뒤 새로 전속된 부대에서 B를 다시 만난다. 그동안 경희는 B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나'는 B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본 후 '나'는 경희를 찾아가 경희의 변명을 듣고, 그간 B와의 대결은 불가피한 운명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B와의 마지막 대결은 사형 집행 사수 다섯 명 중 '나'가 포함되면서 이루어진다. 사형 집행장에서도 여전히 B와의 대결에 골몰하던 '나'는 다른 사수보다 늦게 총을 쏜 뒤 의식을 잃는다.

199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의 후반부에서 '나'와 B가 사수와 사형수로 만나는 것을 상황의 대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의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현실의 속물적인 세태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상황의 대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나'가 과거 학창 시절의 일, 사수로 B를 쏘았던 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내면 심리를 고백하듯 드러내고 있다.
- ③ '곰' 선생 때문에 B와 함께 겪었던 사건을 소개하며 두 인물이 서로 어떤 감정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보여 주고 있다.
- ④ 작품 속 서술자인 '나'는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200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이 글이 지닌 핵심 의미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이다. 이를 통해 인간이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대결 상황이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야기된 피치 못할 경쟁이고, 여기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지닌 대결 의식 등이 가미되면서 인간은 무수한 대립 관계를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0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A]는 '곰'이 내린 벌 때문에 친하게 지내던 '나'와 B가 서로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곰'과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점점 악화되어 가는 두 사람의 심리 변화가 잘 드러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곰', '나', B가 등장하지만 이들이 대립적 속성을 지닌 인물들도 아니고, 융화되는 과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②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곰'의 비열함이 드러나긴 하지만 인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드러나거나 그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곰'은 교사이고 '나'와 B는 친구이다. 이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시된 장면에 특별히 숨겨진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정환, 「비가」

| 해제 | 이 작품은 병자호란 때 당한 국치에 대한 비분강개와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조선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대항했으나 결국 화친한다. 이때 왕이 굴욕적인 항복을 했으며 소헌 세자와 봉림 대군이 볼모로 끌려간다. 작가는 이런 굴욕적인 항복에 대한 아픔과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을 10수로 된 연시조에 담아 표현했다.

| 주제 | 국치에 대한 비분강개와 왕자에 대한 그리움

| 구성 |

- 제1수: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
- 제4수: 신하로서 잡혀간 두 왕자를 모셔 오지 못하는 불충에 대한 개탄
- 제6수: 조정에 진정한 충신이 없는 상황에 대한 한탄
- 제8수: 국치를 당한 것에 대한 아픔과 근심
- 제10수: 국치를 당한 것에 대한 비분

202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어느 사이에 다녀온고', '뉘러서 모셔 오리',

‘누구를 위해 한 것인고’, ‘그 아니 좋을소냐’, ‘뉘라서 슬퍼하리’ 등 각 수 두 번째 행에서 모두 의문형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미래의 상황에 대한 낙관을 계절의 순환을 활용하여 드러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과거의 기대가 드러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도 않는다.

④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2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한 화자의 아픔을 자연물인 풀과 대비하여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풀을 백성으로 보고 ‘구렁에 난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에 애민 정신이 들어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가 선용’은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꿈에서라도 본 듯했다는 것은 그만큼 두 왕자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박제상은 볼모로 잡혀간 사람을 구해 와 임금의 시름을 덜어 주었지만 현재는 박제상과 같은 인물이 없어 두 왕자를 구해 줄 수 없다는 슬픔이 내포되어 있다.

③ 청나라와 화해를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두 왕자가 볼모로 잡혀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원망이 내포되어 있다.

⑤ 시름을 탁주 한 잔으로 푸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병자호란으로 당한 굴욕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안타까움이 내포되어 있다.

204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화자는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간절히 그리워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왕자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 간절함은 더 커져 두 왕자를 꿈에서 보고 한밤중에 일어난 상황이다. ‘이역 춘궁’은 청나라에 있는 두 왕자를 의미하므로, 결국 ‘이역 춘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화자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꿈이 사라진다고 해서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 작품의 상황으로 볼 때 꿈은 현재에 일어난 것이고, 두 왕자가 청나라로 잡혀간 일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다.

③ 꿈은 두 왕자를 보고 싶다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반영된 것일 뿐이므로, 이것의 결과로 두 왕자가 조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⑤ 두 왕자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드러나 있지 않다.

김시습, 「이생규장전」

해제 이 작품은 이승과 저승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전반부에서 보여 준 이생과 최랑의 자유연애에 의한 사랑은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관습을 과감히 깨뜨리고 사랑을 실현한 행위는 작가의 솔직하고 대담한 애정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홍건적의 난으로 깨어지고 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은 최랑의 환생이라는 비현실적 구성으로 다시 이어진다. 이에 비극적 현실을 환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전체 줄거리

이생은 우연히 담장 너머의 최랑을 엿보다가 서로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글을 주고받으며 사랑하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시골로 보내 버리고, 최랑은 이생이 찾아오지 않자 알아 늙게 된다. 최랑의 부모가 두 사람의 사연을 알고 이생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게 한다. 얼마 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가족들은 모두 흩어지고 최랑과 함께 피신하던 이생은 홍건적을 만나자 홀로 도망간다. 홍건적에 붙잡힌 최랑은 죽음으로 항거하여 이생과의 의리를 지킨다. 폐허가 된 집에 홀로 찾아온 이생은 죽은 최랑이 나타나자 죽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함께 살기로 한다. 몇 년을 함께 살고 나서 최랑은 자신이 죽은 몸이므로 오래 머무를 수 없다고 하며 저승으로 떠난다. 최랑이 떠난 후에 이생도 병들어 죽는다.

205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제시된 부분에서는 이생과 여인(최랑)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시된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등장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서술자는 오로지 자신의 시선에 따라 전지적인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 제시된 부분은 이생과 최랑이 다시 만나는 장면과 헤어지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박한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⑤ 최랑이 환생을 한 것이지 이생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 즉, 최랑이 현실에 돌아온 것이지 이생이 꿈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환몽 구조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206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생은 아내가 이승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시고 싶다는 아내의 말을 ㉠과 같이 말하며 수락한다. 이는 아내와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을 현실에서 성취하고자 함을 알려 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이생은 환신한 아내와 함께 지내느라 인간의 모든 일을 잊고서 ㉠처럼 행동한다. 따라서 이것은 인물의 세속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이다.

③ 여인이 이별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며 그것에서 느끼는 슬픔을 담아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다. 따라서 재회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④ 인물의 욕망이 장애물을 만난 것은 흥건적을 만난 것, 사람과 귀신이 함께 살다가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사는 것은 욕망을 성취한 것에 해당한다.

⑤ 여인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 실려 있는 것은 여인이 이미 죽은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인이 죽게 된 것은 흥건적 때문이지 욕망으로 인해 몰락한 것이 아니다.

207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생은 아내가 귀신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여인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이생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저승의 법에 위반' 된다고 하며 이생에게까지 '허물이 미칠 것'을 걱정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생은 아내가 저승으로 돌아간 후 병이 들어 두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여인은 흥건적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환신하여 이승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고 있다.

⑤ 이생은 난리를 겪고 난 후 아내가 한 행동을 말하며 자신은 부끄러웠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8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고무친'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라는 뜻이다. 최량은 ㉠에서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사고무친'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누란지위(累卵之危):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새옹지마(塞翁之馬):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④ 전화위복(轉禍爲福): 재앙과 환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⑤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오영진, 「정직한 사기꾼」

| 해제 | 이 작품은 배금주의로 물든 도시의 세태와 인간성이 황폐화된 인물들을 그려 내고 있다. 순박한 청년이 사기꾼으로 몰리는 상황을 통해 광복 직후 선과 악이 전도되고 도덕성이 상실되어 혼란한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주제 | 순박한 인물이 사기꾼으로 몰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

| 전체 줄거리 |

한 가족이 위조지폐를 유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유명 회사를 차린 후 정직하고 약간 미련한 사람이 사원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 한 청년이 이 회사에 지원하고 채용되는데, 그는 믿었던 이뿐이에게 배신을 당하고 절도 횡령죄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으로, 추천서도 없는 자신을 채용한 사장에게 무한히 감사해한다. 양복과 구두를 사라고 돈을 받은 청년은 그것이 위조지폐라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려 하다가 형사에게 붙잡힌다. 결국 청년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고 가족들은 몰래 도망친다.

209 작품의 종합적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작품의 제목은 표면적으로 모순이 된다. 사기꾼(사기꾼)이 정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청년과 같은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이 결국 사기꾼으로 몰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속에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설적인 제목을 통해 이 작품은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를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장과 직원들은 청년을 속인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

③ 청년은 사장이 자신을 신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잘못을 덮어 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청년은 사장에게 속아 위조지폐를 사용하려고 하기는 했으나, 배금주의에 빠져들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⑤ 사원 D가 청년의 순수한 모습에 호감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를 돕지는 않는다.

210 공간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희곡의 공간은 관객이 실제로 마주치는 구체적인 '무대 공간'과, 무대에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관객이 극 중 정보를 활용하여 상상하는 '가상 공간'으로 나뉜다. 이 글에서 무대에 실제로 나타나는 공간은 '사무실'이고, 나머지 공간들은 인물들의 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 ㉡에서 청년은 이뿐이에게 배신당하고, ㉢에서는 사장과 직원들에게 배신당하고 있다.

③ 청년은 좁은 감방에 있을 때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날 적마다 자신은 미련한 놈이로구나 한탄을 했다고 하였다.

④ 형사는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사장의 말만 믿고 청년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⑤ 청년은 위조지폐로 월급을 받고 양복점에 가서 사용하려 하였다.

조지훈, 「산상의 노래」

| 해제 | 이 시는 광복을 맞이한 화자의 기쁨을 산마루에서 아침을 맞는 상황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긴 밤'과 '아침'을 대조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감각적 시어와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기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산마루에서 광복을 간구하며 일제 강점기의 '긴 밤'을 보내고 있다. 2~6연에서는 아침인 광복을 맞이한 화자의 기쁨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7연은 1연과 대응되는데 화자는 광복 후 조국의 밝은 미래를 소망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 이후에도 산마루에서 고고하고 정결한 자세로 서 있는 화자의 모습에서 시인의 지사적 태도를 볼 수 있다.

| 주제 | 광복의 기쁨과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

| 구성 |

- 1연: 일제 강점기에 광복을 간구하는 화자
- 2~6연: 광복을 맞은 화자의 기쁨
- 7연: 광복 후 조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화자

21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종소리'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향기로운'에서 후각적 이미지가, '피리의 / 가락을 더듬노니'에서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산마루에서 아침을 맞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운율적 안정감을 꾀하고 있으나, 음성 상징어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공간적 배경은 '산마루'로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산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긴 밤'과 '아침'의 대조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슬픔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지만,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의 의문형 진술을 통해 광복과 광복 이후 조국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지만 청자가 함께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12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화자는 아침을 맞아 자기 영혼의 촛불이었던 '셋별'에게 '숨'어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셋별'은 '어둠' 속에 날개를 떨던 존재로 일제 강점기 화자의 양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와 대립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들은 핏줄'은 아침을 막 맞이한 화자의 심신으로, 밤을 보내면서 쇠약해진 모습을 나타낸다. 화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햇살'을 맞아 점차 '피가 돌'고 생기를 띠며 회복하고 있다.

② '눈감아도'는 죽는다는 표현으로, 화자는 죽음의 순간을 맞더라도 광복을 맞은 조국의 하늘은 꽃처럼 아름다울 것이라는 감격스러운 심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오래 잊었던'에서 '피리'는 화자가 밤을 보내기 전에 불던 대상임을 알 수 있고, 아침을 맞아 이를 '더듬'는다는 표현에서 아침이라는 시간이 밤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시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사슴과 토끼'에게 '짜릿순을 사양하라'는 것은 '사슴과 토끼'가 아침을 맞이한 즐거움이 양식인 '짜릿순'을 먹지 않아도 좋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자 역시 아침을 맞이한 기쁨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13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는 시간은 아침으로, 이미 광복을 맞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 화자의 모습이 아니라, 광복 후 조국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화자가 서 있는 '산마루'의 공간적 의미는 수직적 방향성을 통한 화자의 고고한 정신세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높으니 높은'은 산마루의 높이를 강조하여 수직적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는 '기대어' 서서 '홀로' '울어 왔다'. 이는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소원하며 견딘 화자의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③ <보기>에서 밤과 아침의 시간이 일상에서의 하룻밤과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에서 맞는 '아침'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광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⑤ 바라던 광복을 맞아서 화자는 '산마루'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홀로 서서 /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보기>에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광복 후 조국의 밝은 미래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자의 선구자적 태도를 찾을 수 있다.

염상섭, 「임종」

| 해제 | 이 작품은 1949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인물과 인물의 대립,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 갈래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죽음을 앞두고 생존에 집착을 보이는 환자의 심리와 겉으로는 그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가족들의 태도를 냉정하게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중시하여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씁쓸한 진실을 전달하고 있다.

| 주제 |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이기적 본능



| 전체 줄거리 |

환갑을 바라보는 한 가장이 어느 날 뇌내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다. 병세가 날로 심각해지자 환자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랜 병구완으로 지친 그의 가족들은 장례식을 치를 방법만 생각한다. 병인(病人)은 그런 가족들의 태도에 서운해한다. 그러던 어느 날 병인이 퇴원을 원하자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퇴원시키지만 병인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죽고 만다. 그는 퇴원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빈소에 안치되고, 가족들은 그의 유언과 종교에 상관없이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고는 제각기 소임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

214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작품은 '병원'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만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병에 걸린 한 인물이 자신의 병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 변화, 그리고 그 병인 주변 인물이 병인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심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물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사건의 전개가 빠르지 않다.

② 병원이라는 공간이 제시되지만, 그 공간에 대한 묘사는 나오지 않는다.

③ 서술자가 사건을 직접 논평하는 서술자 개입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기적 본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는 하지만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215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병인이 유언을 남긴 것은 언젠가는 한번 죽을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미리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려는 것이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사는 병인을 퇴원시키겠다는 명호의 말에 반색한다.

② C군이 다녀간 뒤, 병인은 ××재단의 이사가 되리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③ 명호는 병인의 심각한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병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④ C군은 병인에게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로 인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216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병인은 의사가 명호에게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을 했으리라 판단했는데, 명호가 훨씬 차도가 있다는 말을 하자 걸으려는 그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코웃음과는 달리 마음속으로는 의사에게 들었다는 명호의 말이 사실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사는 정맥 주사를 놓지 못할 정도로 병인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보호자인 명호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를 밖으로 불러낸 것이다.

② 병인은 명호와 의사가 두 번씩이나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예측하여 초조해하고 있다.

③ 병인의 긴장감이 확 풀리면서 귀를 번쩍해주는 것은 자신의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명호의 말을 믿고 안도하고 있는 것이다.

⑤ 병인은 명호의 말에 '탄소리'라며 대꾸를 하였지만, 정작 그 말에는 다음에 이어질 명호의 말을 통해 자신의 병세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17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명호는 병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불법 감금을 한 옥졸처럼 자신을 노려보는 병인에게 차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몹시 두려워서 떨며 조심'하는 명호의 상황을 표현할 한자어로 '전전공공(戰戰兢兢)'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비분강개(悲憤慷慨):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

③ 오리무중(五里霧中): 오 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⑤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작자 미상, 「잠노래」

| 해제 | 이 작품은 쏟아지는 잠을 참아 가며 밤새 고된 일을 해야 했던 부녀자들의 애환을 노래한 민요이다. 잠을 의인화하여 세상에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원하지도 않는 자신에게만 찾아와 자꾸만 줄게 만드느냐는 원망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시집살이의 고달픔과 애환을 익살과 해학으로 노래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에서 당시 여인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주제 | 부녀자들의 삶의 애환

| 구성 |

- 1~3행: 엮치없이 자꾸만 오는 잠
- 4~10행: 한가한 사람 두고 하필 내게 찾아와 욕을 듣는 잠
- 11~16행: 일을 하려면 달려드는 잠
- 17~19행: 맑은 눈을 또 희미하게 하는 잠

218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화자는 아침에 일어났어도 자꾸만 졸려서 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바쁜 낮의 일과를 보내고 난 후 저녁 밥상을

치우고 황혼이 되자마자 낮에 못한 바느질을 하려는데 또 원치 않는 잠이 찾아온 난감한 상태를 표현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자를 따라다니는 잠에 대한 원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③ 이 작품에서 반어적 또는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잠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솔직 담백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주제 의식과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④ 자꾸만 찾아오는 잠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원망과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표현하지는 않았다.

⑤ 잠을 작중 청자로 설정하여 야속하게도 자신에게만 찾아오는 잠을 원망하고 나무라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느질을 시작하자마자 달려드는 졸음에 힘들어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독백적 어조가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과거의 삶을 되돌아 보지는 않았다.

219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무상불청 원망 소래 온 때마다 듣난고니'에서 화자는 청하지도 않은 잠이 하필 내게 찾아와 욕을 먹는지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지배층에 대한 원망의 정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작품은 민요로, 구전에 적합한 율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즉, 4·4조 4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으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에서는 유사 구절의 반복(a-a-b-a)이 잘 나타나 있다.

③ '석반을 거두치고', '섬섬옥수' 등에서 이 노래가 부녀자들 사이에서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④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할랴 마음먹고'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이 낮 동안 일에 지친 부녀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때마침 쏟아지는 잠을 꼭 참고 바느질을 해야 했던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애환이 느껴진다.

⑤ '바늘 두엇 뜸 뜸드마듯 /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없이 달려드네'에서 옛날 부녀자들이 쏟아지는 잠을 참고 밤새 바느질을 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실생활의 필요에 의해 창작된 노동요로 볼 수 있다.

220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B]는 바느질을 시작하자 난데없는 잠이 소리없이 화자에게 달려드다는 의미로, 바느질을 하다가 잠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잠을 의인화하여 여인들의 고달픈 생활상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할 일은 없고 잠은 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인물에 관한 내용이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화자와 대조적인 상황의 인물로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③ [A]와 [B]는 서로 대조적인 상황이므로 인과 관계로 볼 수 없다.

④ [A]와 [B] 모두 고달픈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A]와 [B] 모두 잠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작자 미상, 「홍보가」

| 해제 | 이 작품은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로 「박타령」이라고도 한다. 권선징악, 형제간의 우애라는 표면적 주제 외에 당대 유랑 농민과 신흥 부농 사이의 갈등이라는 이면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3·4조 또는 4·4조의 운문과 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생생한 구어를 사용하여 서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비극적인 상황조차도 엉뚱한 언행이나 장면 묘사로 익살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슬픔까지도 웃음으로 소화해 내는 해학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며, 당대의 사회적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골계미를 발견할 수 있다.

| 주제 |

- 표면적 주제 :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인과응보
- 이면적 주제 : 유랑 농민과 신흥 부농 간에 벌어지는 경제적 갈등

| 전체 줄거리 |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한 형 놀보는 아우 홍보와 그 식솔들을 내쫓는다. 가난에 허덕이며 살던 홍보는 매품팔이까지 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 한다. 어느 날 홍보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오며 홍보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홍보는 그것을 심는다. 박이 열리자 배가 고프던 홍보 부부가 박을 탔는데, 박속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와 홍보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 이를 알게 된 놀보는 홍보처럼 되려고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치료해서 강남으로 보낸다.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고, 거기에서 열린 박을 탔지만, 놀보는 박에서 나온 고깃 무리들에게 시달리며 패가 망신하게 된다. 결국 홍보가 찾아와 놀보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 후로 형제는 화목하게 살아간다.

221 갈래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문자를 매개로 하는 언어를 문어라고 하며, 문어는 구어에 비해 변화가 적어 구시대의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한자어 위주의 글이 문어체 문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어체는 일상적인 우리말 위주의 문체라고 할 수 있다. '아이고 좋아라. 일 년 삼백육십 일을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는 주로 일상적인 우리말 위주의 구어체가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어체보다 문어체를 주로 구사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다'의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② '가난이야'를 반복하고 있다.

③ '시르렁 시르렁 ~ 툭탁'은 박을 타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④ 신선들이 보낸 약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다.



222 어구에 반영된 상황 및 인식 추리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은 강남 갔다가 돌아온 제비를 보며 반기는 홍보의 심정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는 제비 다리를 고쳐 준 홍보가 다시 돌아온 제비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이다. 즉,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다른 대상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는 홍보의 심리가 드러난다. 이를 당시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추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동네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영 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홍보는 가난하여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추리할 수 있다.

③ 삼신산의 신선들이 홍보의 덕을 칭송하여 여러 약을 보냈다는 설정은 당대 사람들이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먹을 것이 없어 추석 쇠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는 말이라도 점심 요기를 하고 가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해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밖에서 돈과 쌀이 나오는 설정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당대 민중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23 이본과의 비교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A]는 박씨에 적힌 글자를 제비가 적어 온 노정기로 해석하고 실제 지명을 나열하며 장면을 확장하여 재미를 주고 있다. <보기>는 제비가 물어 온 박씨를 보며 이를 연실이 아닌가 묻는 홍보의 아내에게 홍보가 연실일 리가 없다며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말하는 부분이다. 제비가 물고 온 박씨가 신기하여 박씨를 화제로 홍보와 홍보 아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가난한 현재의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박씨에 적힌 '보은포'라는 글자를 잘못 해석한 홍보의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박씨를 부각하려는 설정이다. <보기>는 홍보가 홍보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연실이다, 아니다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역시 박씨를 부각하고 있다.

③ [A]는 '보은포'를 노정기 적은 것으로 해석하여 은진, 보은, 옥천 등의 지명을 언급하며 장면을 확장하면서 재미를 더하고 있으며, <보기>는 강남 미인들의 고사와 구슬 고사를 인용하며 장면을 확장하고 있다.

④ <보기>의 '그 물고 오는 게 고마운게'를 통해 박씨를 물고 온 제비에게 홍보가 고마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에서 홍보는 '보은포'를 지명인 '보은'으로 해석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 해제 | 이 글은 박지원이 요동 별판을 본 감회를 바탕으로 울음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통곡할 만한 자리」는 글쓴이가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한 『열하일기』 중 「도강록」에 실린 기행 수필이다. 박지원은 요동 별판을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의 독특한 시각과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 주제 | 울음이 갖는 의미

| 구성 |

- 기: 요동 별판을 처음 본 반응
- 승: 요동 별판을 보고 울고 싶은 이유
- 전: 갓난아이의 울음에 비유하여 설명
- 결: 요동 별판이 좋은 울음터임을 다시 확인

224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정 진사가 요동 별판을 보고 한바탕 운다면 칠정 중에서 어느 정이냐고 묻는다. 글쓴이는 이런 정 진사의 물음에 대해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의 상황에 빗대어 이해시키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가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글쓴이가 상대방을 설득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⑤ '백담이 현신함을 아뢰오.'라고 하여 의인화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글쓴이가 한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25 내용 전개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글쓴이는 요동 별판을 보고 울고 싶은 감정은, 갓난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올 때의 감정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갓난아이는 광명과 부모 친척들을 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서 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요동 별판을 보고 울고 싶은 감정이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느끼는 슬픈 감정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요동 별판을 본 글쓴이는 감동하여 한바탕 울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② 정 진사는 요동 별판을 보고 한바탕 울고 싶다는 글쓴이의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이 천치간에 이런 넓은 안계를 만나 홀연 울고 싶다니 그 무슨 말씀이요?'라고 질문을 한다.

③ 인간의 '칠정'이 극에 달하면 모두 울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④ 정 진사는 '그래, 지금 울 만한 자리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 한바탕 통곡을 할 터인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겠소?'라고 하여 '칠정' 중에서 어느 '정'이 극에 달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지용, 「조찬」

| 해제 | 1941년 『문장』에 발표된 것으로, 비 갠 후 아침 햇살이 퍼지는 아침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절제된 언어와 시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상과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을 표현해 내었다. 작품 후반부의 ‘새’는 일제 강점기 폭압적인 현실에 대항할 힘이 없는 시인의 초라하고 서글픈 처지가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제 | 비 온 뒤의 아침 풍경 속에서의 자아 성찰

| 구성 |

- 1~2연: 아침의 정경에 대한 인상적인 묘사(원경)
- 3~4연: 아침의 정경에 대한 인상적인 묘사(근경)
- 5~7연: 시적 화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226 사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작품은 서술어의 생략과 수식어구 사용의 절제 등을 통해 표현을 압축하고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다. 또한 2행 구성의 반복을 통해 안정적인 형태의 시행 배열을 보이면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이미지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작품에서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비교적 선명하나, 계절의 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단일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화자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새에 감정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는 시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독백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시적 상황에서 스스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작품에서 절제된 정서의 표현은 드러나 있으나, 감탄사는 활용되지 않았다. 이 작품에서는 외부로부터 촉발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으나, 감정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27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작품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작품의 A와 B에서는 외적 상황과 외부 대상이 묘사되어 있고, C에는 화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② 이 작품의 A에는 햇살과 구름이 원경의 시적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고, B에는 길경 꽃봉오리와 차돌부리에 튀는 빗방울이 근경의 시적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이 작품의 A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햇살이 나고 구름이 모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작품의 B에서는 빗물이 튀는 모습을 ‘축 축 죽순 돌듯.’으로 표현하고 있다.

22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 가지만 부조리를 극복하거나 저항할 힘이 없는 자신을 ‘새’로, 그 심리를 ‘서러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자신을 ‘새’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아침을 ‘흰 밥알’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시대의 부조리함을 인식하지만 현실 속의 자신은 한 끼 밥을 먹으며 초라하게 연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러운 새’는 화자가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흰 밥알’은 ‘조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하루하루의 생명을 이어 나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③ ‘서러운’은 화자의 정서를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흰 밥알’은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와는 무관하며, 아침 식사를 표현한 것이다.

⑤ ‘서러운 새’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나, 그 대상을 긍정하고 있지는 않다. ‘흰 밥알’은 화자가 외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만 하는 아침 식사를 의미한다.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해제 | 이 작품은 도시 빈민의 궁핍한 생활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지닌 모순을 파헤치고 있는, 같은 제목으로 된 연작 소설집 속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난쟁이 아버지,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 취업해야 하는 자식들, 재개발로 인해 애써 마련한 집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과거와 현재의 중첩, ‘영수’, ‘영호’, ‘영희’ 세 명의 서술자의 시선으로 서술하는 시점의 이동 등의 기법을 동원하여 그려 내고 있다.

| 주제 |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과 그로 인한 고통

| 전체 줄거리 |

난쟁이 아버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이다. 그들은 ‘낙원’과 ‘행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철거 계고장을 받게 된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는 했지만 입주비가 없는 마을 사람들은 입주권을 판다.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는 인쇄 제본 공장에 나가고 영수는 인쇄소 공무원 조역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 나간다. 영호와 영희도 학교를 그만둔다. 투기업자들의 농간으로 입주권의 값이 오르고 영수네도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지만 명희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집을 나간 영희는 투기업자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함께 지내다가 입주권과 돈을 훔쳐 집으로 온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에서 자살했음을 알게 된 영희는 큰오빠인 영수에게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약당은 죽여 버려.”라고 말한다.



229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영희의 큰오빠이다. 입주권을 파는 것과 관련된 명희 어머니와의 대화, 과거 집 지을 때에 대한 회상, 지섭과 아버지의 대화 등을 관찰하면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의 주된 갈등은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인용된 부분에서는 그러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회상 장면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방문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은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공약을 말하는 것으로, 가진 자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건 진행에 있어서 대립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기에 인물 간 대립을 고조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서술자인 '나'의 심리가 주로 드러나고 있는 있지만, 내면 의식의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살던 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받은 입주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거나 아버지와 지섭 사이의 대화를 생각하고 있으므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할 수 없다.

③ 인용된 부분의 서술자는 '영수'로, 난쟁이가 가족의 큰아들이다. 이 질적인 시선을 가진 여러 서술자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④ 입주권과 관련된 사건, 과거 집 지을 때의 사건, 지섭과 아버지의 대화, 종이비행기를 날린 사건 등이 이 글에 제시된 사건으로 이 사건들은 동시에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를 지닌 사건이다.

230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A]를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가난한 동네에 찾아와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하기도 한다. [A] 이후 '나'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무수한 계획만을 내놓았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즉, '나'는 [A]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선거가 잠시 그때뿐인 헛된 약속임을 깨닫게 되며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함께 저 주는 사람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A]는 '나'의 의식의 변화 및 성숙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과거 사건을 회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난하지만 자신들이 살 집을 지으며 즐거움을 느끼던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떠 지어 동네를 혼자 동네에서 풍기는 냄새가 창피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어서 그들이 내놓은 약속이 허황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에 열등감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자신들의 집이 헐리고 입주권마저 팔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나'는 과거 자신들이 살 집을 짓던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③ 동네를 찾아온 사람이 난쟁이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악수하자 '나'는 아버지를 거인처럼 느낀다. 이는 어린 '나'의 느낌인데, 이후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서술이 나오지 않기에 아버지에 대한 시각 변화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A]는 어린 시절 동네를 찾아온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로, 문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231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것은, 그들 가족이 도시 빈민으로 자본주의의 사회 질서에서 소외되어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비극성을 고조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즉, '난쟁이'는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로부터 핍박받고 억압을 당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난쟁이라는 신체적 결함을 지녔기에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달나라'는 '죽은 땅'과 대립된 공간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상적 세계를 상징한다.

② 이 글에 드러난 상황은 애써 마련한 집이 헐리는 상황에서 입주권마저 팔아야 하는 궁핍한 삶으로, 이를 통해 도시 빈민의 궁핍과 소외를 드러내고 있다.

④ 지섭은 아버지에게 아무 일도 안 했는지, 나쁜 짓을 한 것은 없는지, 기도를 올리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며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지녔음을 말한다. 그렇지만 그런 성실과 진지함에 보답하지 않는 이 땅을 지섭은 죽은 땅이라고 말한다. 즉, 이 대화를 통해 작가는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정성을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아버지가 날린 '종이비행기'는 달나라(이상 세계)로의 지향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종이비행기라는 설정은 결국 아버지의 소망이 소망으로만 그칠 뿐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윤선도, 「오우가」

| 해제 | 이 작품은 윤선도가 해남 금쇄동(金鎖洞)에 은거할 무렵에 지은 『산중신곡(山中新曲)』 속에 들어 있는 6수로 된 연시조이다. 수(水)·석(石)·송(松)·죽(竹)·월(月)을 다섯 벗으로 삼는다는 것을 서시(序詩)에 제시한 다음에 나머지 다섯 수에서 그 자연물들의 특질을 각각 들어 자신의 자연애와 더불어 지향하는 인간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주제 | 수·석·송·죽·월을 벗으로 삼는 까닭

| 구성 |

- 제1수: 다섯 벗의 소개
- 제2수: 깨끗하고 그치지 않는 물의 자질

- 제3수: 변치 않는 바위의 자질
- 제4수: 눈서리를 모르는 소나무의 곧은 자질
- 제5수: 곧고 사시 푸른 대나무의 자질
- 제6수: 밝고도 과묵한 달의 자질

232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조는 정형시이므로 율격이 일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순을 도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시조에서는 어순을 도치한 구절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2수에서는 초장의 구름과 중장의 바람이, 제3수에서는 초장의 꽃과 중장의 풀이 대구 형식의 문장 속에서 제시되어 있다.

- ② 제2수의 구름과 바람은 물과 대립되는 이미지로, 제3수의 꽃과 풀은 바위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다.
- ③ 제4수와 제5수의 초장은 각각 두 마디씩 나누어지면서 대구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는 솔을, 제6수에서는 달을 각각 인칭 대명사인 '너'로 지칭하고 있다.

233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물(제2수)과 돌(제3수), 소나무(제4수)와 대나무(제5수), 달(제6수)이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배치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과 돌은 무생물이고 소나무와 대나무는 생물이다. 이들 네 사물은 모두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달은 천상에 존재하는 무생물이다.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각 수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불변성을 돌의 자질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내용에 어긋난다. 그리고 달은 차고 기우는 순환성을 지니긴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를 부각하지 않았다.

- ② 소나무와 대나무가 초월성을 어느 정도 지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과 돌의 자질을 이와 대립되는 세속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내용과 어긋난다. 달의 신성성도 근거가 없다.
- ④ 수석과 송죽을 내면 심리와 외부 풍경의 대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모든 수에서 외면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을 두루 포착하고 있다. 달도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 ⑤ 오히려 수석에 대해서는 부분적 일체감을, 송죽에 대해서는 완전한 일체감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달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아닌 친근감을 보여 주고 있지만, 이는 나머지 벗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곧을 뿐만 아니라 사시에 푸르기 때문에 소나무

를 좋아한다는 고백이지, 정적들에 대한 비판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곧지 못한 인물들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볼 수는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구름과 바람, 꽃과 풀은 모두 한결같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 사물들이다. 우의적으로 해석하면 시류에 따라 변하는 정치인들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물이나 바위는 모두 시인 자신이 벗으로 삼을 정도로 특별한 자질을 가진 사물들이다. 따라서 그 자질은 곧 시인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③ 바위도 변치 않는 점에서, 대나무도 사시에 변하지 않고 푸르다는 점에서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불변성은 일관된 신념이나 불굴의 의지와 상통한다.

⑤ 달이 보고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본 것조차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모함을 하기 위해 보거나 들은 바를 왜곡하는 인물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자 미상, 「운영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사회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자유로운 사랑 이야기를 다룬 애정 소설이다. 작가와 창작 연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운영과 김 진사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다룸으로써 고전 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비극적 결말을 지니고 있으며, 선비인 유영이 운영과 김 진사의 이야기를 듣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인간이 지닌 본성과 성정을 억압하는 당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인간 본성에서 우러난 참된 사랑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주제 사회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인 사랑

전체 줄거리

선조 때 선비인 유영이 안평 대군의 옛집인 수성궁 터에 들어가 홀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다. 잠에서 깬 유영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내부 이야기 시작) 안평 대군의 궁녀인 운영은 궁궐에 들어온 김 진사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무녀의 도움으로 사랑을 주고받다가 김 진사는 담을 넘어 운영을 만나 달아날 계획을 세운다. 둘의 사랑은 안평 대군에게 들리고 운영은 목을 매어 자결한다. 운영의 소식을 들은 김 진사도 운영을 따라 죽는다. 김 진사와 운영은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유영을 만나 자신들의 비극적 사랑을 세상에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 (내부 이야기 끝) 유영이 취중에 졸다가 깨어 보니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남아 있었다. 유영은 그 책을 가지고 돌아온 후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다니다 종적을 감추어 버린다.

235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운영이 수성궁을 찾은 유영에게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이므로 '사람이 알까 두려워하였어 요.'는 자신의 마음을 진사에게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유영을 상대로 하는 말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운영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진사의 일은 운영이 나중에 진사에게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 ② ‘예를 갖추지 못하고 삼가 쓰나이다.’는 진사의 편지 내용으로 1인칭 서술자인 운영이 아닌 진사의 목소리로 진사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 ③ 서술하는 부분에 나타나는 ‘저’는 1인칭 서술자를 말하는데 그가 바로 운영이다.
- ⑤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는 1인칭 서술자인 운영이 무녀의 행동의 이유를 추측하여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다.

236 인물의 심리와 행동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비취는 운영과 자란의 말을 엿듣고 운영의 사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모른 척하며 회시를 지어 운영을 놀리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무녀는 진사가 찾아온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신에게 물어보고서 알아차리고 있다. 그러므로 진사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 ② 진사는 운영을 만나지 못하고 편지를 전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지, 운영의 편지를 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대군은 무녀가 다녀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자란과 운영은 함께 서궁에 와 있으므로 자란이 운영을 배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37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무녀는 궁으로 가서 운영에게 진사의 편지를 전해 주어 둘의 사랑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운영은 무녀가 진사를 좋아하는 것을 눈치채지만 진사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진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사는 운영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 위해 ㉠을 찾아 무녀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
- ② 이 글로 볼 때 운영은 궁 밖으로 나올 수 없고 진사는 궁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그러므로 궁은 둘의 사랑에 장애가 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③ 대군은 궁녀들이 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궁에 가라고 명령하고 있다.
- ⑤ 운영이 서궁으로 이동하면서 진사와 운영이 만나고 소식을 전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져 번민이 심화된다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238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사는 운영을 한 번 본 이후로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에 적용하면 오매불망하며 입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다.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경이원지(敬而遠之)’는 공경하되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뜻의 말로, 진사가 운영을 공경하여 가까이하지 않고 자 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백골난망(白骨難忘)’은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의 고마움을 이르는 말이다. 진사가 운영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본다는 뜻의 말로, 진사가 운영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는 뜻의 말로, 속을 썩인다는 의미는 유사하나 운영을 그리워하는 진사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차범석, 「성난 기계」

해제 물질문명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휴머니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작품이다. 주인공 회기는 기계처럼 냉정하고 인간미 없는 의사이다. 그는 가난한 폐환자의 수술을 냉담하게 거부한다. 성공이 불확실한 수술을 했다가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전반부는 인옥의 인간적인 호소와 회기의 기계적 대응이 갈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극적 반전을 통해 전반부와 대립적 양상을 보인다. 후반부에서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찾아와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수술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한다. 회기는 자신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현의 행동을 보면서 ‘성난 기계’로 변하여 참된 인간성을 찾게 된다.

주제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 비판과 그 회복에 대한 소망

전체 줄거리

담배 공장 포장공으로 일하는 인옥이 폐 전문 의사인 회기를 찾아와 수술을 해 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회기는 X-레이 검진 결과 인옥의 폐 상태가 수술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만큼 악화된 것을 보고 냉정하게 거절하고 인옥을 돌려보낸다. 인옥이 돌아간 후 얼마 있다가, 인옥의 남편 상현이 회기를 찾아와서 가난한 살림에 돈을 들여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옥을 수술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한다. 상현의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한 회기는 인옥에게 수술을 해 주기로 결심한다. 회기는 간호사 금숙을 시켜 인옥에게 수술을 받으러 오라는 속달 우편을 보내도록 지시하며 기뻐한다.

239 갈래별 특징, 인물의 성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략 이후 부분에 제시된 상현의 말을 보았을 때, 상현이 아내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볼 수 없다. 아내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옥의 부탁을 거절하는 부분의 회기는 매우

냉정하게 그려져 있지만, 그 장면에서도 인옥의 말에 감동을 받고 난 처해하며 측은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옥이 돌아간 후에는 허무감과 자책감도 느낀다. 인옥의 남편 상현이 찾아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는 인간적 따스함이 냉정한 면모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인옥의 다섯 번째 대사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에서 알 수 있다.
- ③ 인옥의 일곱 번째 대사 '살아 보겠다는 ~ 여쭙 본 거예요.'에서 알 수 있다.
- ④ 금숙은 간호사로서 의사인 회기 옆에서 조용히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금숙은 짧은 대사와 함께 여러 지시문을 통해서 성격이 드러나는데, 회기의 기분을 풀어 주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회기에게 할 말도 하는 인물이다.

240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인옥이 돌아간 후에 금숙은 '애교를 부리며' 말하거나 '과장된 표정으로' 또는 '웃으며' 말하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보면 ㉠처럼 말한 것이 회기를 비난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지어 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인옥이 회기에게 기계라고 말했을 때 금숙이 크게 동요한 것과 회기에게 비밀이라는 듯이 웃으며 말을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 회기에게 원래 ㉠과 같은 별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다음에 나오는 회기의 대사 앞에 '약간 감동되며'라는 지시문이 있다. 그리고 이후의 회기의 대사를 보면 회기의 인옥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당한 인옥이 돌아간 후에 회기가 느끼는 감정이 ㉢이다. 회기는 ㉣을 계기로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고, 인옥의 자포자기하는 듯한 말을 들으며 이러한 동요가 심화된다.
 - ④ ㉤은 인옥의 부탁을 회기가 거절할 때 한 말과 같은 내용의 말이다. 그런데 상현이 ㉤처럼 말하면서 아내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듣고, 회기가 분노하여 자신의 결정을 바꾸게 된다.
 - ⑤ 금숙은 ㉥ 바로 앞에 있는 회기의 대사 때문에 놀라는 것이다. 그렇게 인옥이 여러 번 부탁해도 거절하여 돌려보낸 회기가 갑자기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하자 놀라는 것이다.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 해제 |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 '껍데기'로 상징되는 허위와 거짓말은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과 순결함, 즉 '알맹이'만 남아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인이 형상화하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4·19 혁명의 민주화 열망이 퇴색해 가고, 동학 혁명의 민중적 열정도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인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첨예하던 냉

전 시절에 그것을 초월하여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 있다.

| 주제 | 진정하고 순수한 민족의 삶 추구

| 구성 |

- 1연: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 강조
- 2연: 동학 혁명의 순수한 정신 강조
- 3연: 우리 민족의 순수함 강조와 통일에의 소망
- 4연: 순수의 옹호와 부정한 권력의 거부

241 작품의 종합적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의 연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형태적인 면과 사상 전개 면에서 안정감이 느껴지며, 주제가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는 1, 2연과 3, 4연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껍데기(쇠붙이)'와 '알맹이(아우성, 흙가슴)'라는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중심으로 시어들을 배치함으로써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② '가라'에 쓰인 '-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껍데기'로 대표되는 허위와 거짓말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단호한 의지와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껍데기는 가라'라는 어구가 여섯 번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함과 동시에 화자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강조되고 있다.
- ⑤ 화자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는 '만'이라는 보조사를,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껍데기'와 '쇠붙이'에는 '는'이라는 보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만'은 한정을 뜻하는 보조사로서 '만'이 붙은 소재가 남기를 바라고 있고, '는'은 다른 것과의 차이를 뜻하는 보조사로서 '는'이 붙은 소재들은 모두 가기를 바라고 있다.

242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1연과 2연은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사월'의 '알맹이'(1연)와 '동학년'의 '아우성'(2연)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4·19 정신과 '동학년'의 정신을 연결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화자가 현재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동학년'의 정신을 4·19 정신이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4·19 혁명에 남다른 집념을 보인,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시인이다. 따라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자는 '알맹이'와 '아우성'으로 표현된, '사월'과 '동학년'의 정신만 남으라고 한 것이다. '알맹이'와 '아우성'만 남으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정신만 되살리자고 하는 것이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이 시는 4·19 정신의 정수로부터 획득한 이념



적 힘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따라서 화자가 남으라고 한 ‘알맹이’가 그에 해당되며, 가라고 한 ‘껍데기’는 그것을 훼손하거나 가리고 있는 것이다.

④ 현재의 상황에서 문제를 느끼는 화자는 ‘알맹이’, ‘아우성’, ‘흙가슴’만 남으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가 ‘껍데기’가 가고 이것들만 남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 <보기>에 따르면 이 시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껍데기’가 가는 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인데, 마지막 연에서는 이것이 ‘쇠붙이’로 변형되어 나타나므로 이 진술은 타당하다.

243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아사달 아사녀’는 옛이야기 속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부부로, 분단에 의해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④, ⑤ ‘이곳’(①)은 껍데기가 가고 난 후에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②) 순수하고 원초적인 모습의 ‘아사달 아사녀’가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의 초레칭 앞에 서서’(④) 그동안 가식과 허위에 가려져 있던 모습을 걷어 내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부끄럼을 빛내며’(⑤) 만나는 장소이다.

이동하, 「장난감 도시」

| 해제 | 이 소설은 「장난감 도시」, 「꿂주린 혼」, 「유다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작 소설이다. 한국 전쟁 후 시골에서 이사를 나가 장난감 같은 도시 속에서 무능한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그리고 누이와 소년으로 이루어진 네 식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소년이 험난한 삶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보여 준다. 판자촌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의 일상이 묘사되기도 하는데, 지문에 제시된 부분은 이웃집에 사는 주 씨 가족의 생활상이 나타난 대목으로, ‘장난감 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 주제 | 판자촌 주민 주 씨 가족의 애환

| 전체 줄거리 |

‘나’의 가족은 전쟁이 멈춘 한두 해 전 ‘나’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갔다. 도시에 닿아 첫 저녁을 먹었는데 ‘나’는 그 밥을 먹고 배탈이 나 밤중에 세 차례나 공중변소를 들락거렸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덩치 큰 녀석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두들겨 맞았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지 못한 아버지는 풀빵과 냉차를 팔기 시작했으나 오래 가지 못한다. 형편상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음을 알게 된 ‘나’는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한다. 한편 아버지는 장물인 줄도 모르고 짐을 운반하다가 징역살이를 하게 되고, ‘나’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일요일이면 교회나 성당을 드나든다. 그해 가을 어머니는 국물 없는 국수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운명한다. 아버지가 출옥했지만 사정은 금방 나아지지 않고, ‘나’는 구두닦이를 하다가 천

막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 장난감 같은 도시의 고단한 삶 속에서 ‘나’는 떠나온 시골 학교의 정경을 떠올리면서 그곳 책상에 남긴 낙서들을 기억하려고 애쓴다.

244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주 씨는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생사를 걸고 서너 차례나 38선을 넘나들었으나 결국 실패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람이다. 그리고 주벽이 심하여 술만 마셨다 하면 집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 따라서 전쟁과 분단에서 얻은 자신의 상처를 개인적인 울분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하는 대목도 없고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도 나타나지 않는다.

②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데려오겠다는 꿈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 꿈을 잃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③ 주 씨가 시대 상황의 피해자임은 내용과 일치하지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하지는 않는다.

⑤ 판자촌에 사는 사회적 약자임은 내용과 일치하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245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A]에서 주 씨와 이웃하고 있는 광 씨, 김 씨 등이 주 씨가 주사를 부리고 있는 시끄러운 분위기와 관계없이 영뚱한 화제로 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 씨가 평소에도 그런 일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람임을 추리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주 씨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들리는 긴장되고 무거운 분위기가 이웃들의 능청스러운 대화로 인해 이완되고 있다.

② 서로 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가능한 것은 그만큼 판자로 만든 집이 방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므로, 열악한 생활 환경을 알려 준다.

③ 이 지문에서 주된 사건은 주 씨의 주벽으로 인한 에피소드이다. 이웃들이 나누는 대화가 끼어들어서 주된 사건의 전개가 잠시 지연되고 있다.

④ [A]의 앞부분에서 ‘신소리 잘하는 고물상 광 씨’가 언급되고 있다. 다른 이웃들을 호출하여 대화를 시작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의 신소리로 인해 ①이나 ③에서 진술한 효과가 나타난다.

246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여반장’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매우 쉽다는 뜻으로 집의 구조를 아주 쉽게 바꾸는 주 씨의 솜씨에 어울리는 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천태만상’은 천 가지 모습과 만 가지 형상이

라는 뜻으로, 온갖 사물의 모양이나 모습이 각각 다름을 이르는 말이다. 하나의 장면 안에서 여러 가지가 각각 다를 때 쓰이므로, [B]와는 거리가 멀다.

② ‘점입가경’은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차차 재미있는 경지로 들어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④ ‘다반사는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예사로운 일이라는 뜻이지만, 가족들이 주 씨에 대해 불평을 드러내는지는 알 수 없다.

⑤ ‘과대망상’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턱없이 크게 과장해서 사실인 것처럼 믿는 일이나 그런 생각을 뜻한다. 주 씨가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47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과 ㉡ 모두 제삼자의 말을 빌린다는 표지이면서, 동시에 서술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표지이다. 이는 이 소설이 대체로 일인칭 관찰자 시점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일인칭 관찰자는 자신이 목격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작중 인물들의 말을 빌릴 수밖에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무대에서 진행되는 연극에서 종종 이러한 기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소설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거리가 멀다.

②, ④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실재하거나 작중 인물이 실존 인물임을 굳이 강조하거나 알려 줄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이 실재한다고 해서 사건 전개에 개연성이 강화되거나 사실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⑤ 주변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을 만한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철, 「속미인곡」

| 해제 | 송강 정철의 이 작품은 「사미인곡(思美人曲)」과 아울러 「전후미인곡(前後美人曲)」이라고 일컬어진다. 정철이 50세 때인 1585년 당쟁으로 조정에서 물러나 창평(昌平)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지은 가사이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입을 그리워하는 젊은 여인의 목소리로 읊고 있으며, 전편(前篇)과 달리 두 여인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 주제 | 입과 이별하고 입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한(恨)

| 구성 |

- 1~3행: 을녀는 입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며 애를 태움.
- 4~7행: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지만 구름과 안개로 인해 입이 계신 곳이 보이지 않음.
- 8~12행: 물가(강가)로 가서 뱃길을 보려고 하나 바람과 물결로 인해 입의 소식을 알 수 없음.

- 13~22행: 잠자리에 들어 입을 만나는 꿈을 꾸나 닭소리에 잠을 깬.
- 23~28행: 허탈함으로 인해 차라리 죽어 지는 달이 되고자 함. 그러자 겁내가 차라리 굶은비가 되라고 함.

248 시상의 흐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화자는 기다려도 입의 소식이 오지 않자 집을 떠나 높은 산과 물가를 헤매 보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므로 심적 고통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집에서 입 계신 곳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은 오지 않는다.

② 답답한 마음에 높은 산을 찾아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은, 집에서 입의 소식을 기다리던 것에 비해 적극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③ 구름과 안개로 인해 단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천 리나 먼 곳이라고 하여 거리감도 느끼고 있다.

④ 입의 소식을 알려고 하는 목적은 동일하나 공간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249 모티프의 시적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화자가 느끼는 허망함은 그렇게 소망했던 입과의 재회가 꿈이었을 뿐이며 다시 입이 없는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린 데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지는 달이라도 되어 입의 곁에 가고 싶다는, 이어지는 소망을 고려할 때에도 입에 대한 사랑을 허망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저녁 무렵에 입을 찾아 헤맨 노력이 꿈으로 이어진다.

② ‘꿈속’의 상황은 화자의 심리가 만들어 낸 것이며, 따라서 화자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꿈에서 만난 입의 얼굴이 늙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입을 곁에서 모시지 못하는 동안 입의 얼굴이 행여 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꿈에서 ‘눈물’은 복합적인 심리가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입을 만난 감격과 기쁨뿐만 아니라 이별해 있는 동안 화자가 느껴 왔던 슬픈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입과 만나는 꿈에서 깬 아쉬움을 닭에 대한 원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0 핵심 소재의 함축적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 따르면, ㉠ ‘굶은비’는 침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비해 ㉡ ‘지는 달’은 입 계신 창가를 환하게 비추어 주므로, ㉢가 아니라 ㉡가 입의 행복을 비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겁내와 을녀가 작가의 두 분신이



라고 하였으므로 모두 작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지는 달’과 ‘긋은비’는 모두 임의 창가에서 비추거나 임 곁에 비로 내리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가까워지는 것이다.

③ ‘긋은비’가 여러 감각으로 느껴진다고 했으므로 임에게 화자의 존재를 더 잘 알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긋은비’는 눈물로 비유되며 침울한 느낌을 준다고 했으므로 임 없이 외로워하는 화자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작자 미상, 「정을선전」

|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가정 소설로, 전반부는 계모와 전처소생의 갈등을 주축으로 하는 계모형 가정 소설, 후반부는 남편을 둘러싼 처첩 간의 갈등을 주축으로 하는 쟁총형 가정 소설의 면모를 보인다.

| 주제 | 봉건 가족 제도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

| 전체 줄거리 |

중국 송나라 인종 황제 시절 정 승상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들 을선을 낳는다. 정 승상의 친구인 유 승상 역시 딸 춘연을 낳는다. 그러나 유 승상의 부인 최 씨가 춘연을 낳고 삼 일 만에 세상을 뜨고, 이후 후실로 들어온 노 씨는 춘연을 심히 박대한다. 유 승상은 소인의 참소로 낙향한 후 회갑을 맞이하여 잔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만난 정을선과 유춘연은 사랑에 빠져 둘의 혼인이 결정된다. 정을선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조왕이 을선을 사위로 삼으려 하나 을선은 이를 거부하고, 춘연 역시 노 씨의 흥계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둘의 정혼일을 맞이한다. 그러나 노 씨의 음모로 을선은 춘연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여 떠나고, 춘연은 자신의 억울함을 혈서로 남긴 후 자결한다. 이후 천치신명의 분노로 노 씨가 죽고, 춘연의 원혼이 출몰하면서 유 승상 및 부근 마을의 백성이 모두 죽게 된다. 한편 조왕의 딸(정렬부인)과 결혼하고 승상의 자리에 오른 정을선은 자청하여 유 승상의 집안과 부근 마을로 사건을 조사하러 오게 된다. 춘연의 유모에게서 그간의 사연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정을선은 선인에게서 춘연을 되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하고, 천자는 되살아난 유춘연을 총렬부인에 봉한다. 이후 총렬부인이 임신하게 되어 정렬부인의 질투가 심해지고, 마침 서옹의 반란으로 정을선이 대원수로 출전하게 되면서 정렬부인이 총렬부인을 모함하여 총렬부인은 옥에 갇힌다. 총렬부인의 하인들은 정을선에게 총렬부인의 서간을 전하고, 시비 금섬은 총렬부인을 옥에서 탈출시킨 후 총렬부인 대신 투옥되어 목숨을 잃는다. 총렬부인은 은신처에서 아이를 낳지만 오랫동안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한편 서간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정을선은 총렬부인을 구하고 정렬부인을 처벌한다. 이후 정을선과 총렬부인은 무궁한 영화를 누리다가 한 날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고, 자손들도 대대로 부귀 복록을 이었다.

251 작품의 종합적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의 앞부분에 나타난 홀연 공중에서 울며 내

려온 한 여자는 억울하게 죽은 유 소저의 원혼으로 밝혀진다. 유 소저의 원혼이 나타나 유모를 책망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는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전반부의 공간은 정 승상과 유모 부처가 대화를 나누는 유모 부처의 집, 후반부의 공간은 승상이 조 씨의 흥계를 알고 벌을 내리는 곳으로 볼 수 있으며, 두 부분 모두 서사의 진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장면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유 소저의 억울함을 정 승상이 깨닫게 되어 갈등의 해소가 시작(전반부)되거나, 조 씨의 흥계를 파악한 정 승상이 처벌을 내리는 내용(후반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란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직접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우스꽝스럽게 형상화된 인물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글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초월적 인물을 통해 등장인물의 운명을 예고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글에서는 ‘혈서 쓴 적삼’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죽은 유 소저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드러내고 있다. 권선징악적인 결말의 소설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소재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52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승상은 상소를 통해 극형으로 국법을 써서 죄를 다스릴 것과 상전을 위해 죽은 금섬을 널리 칭찬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의 전반부 내용을 통해 정 승상이 서옹과 대치한 상황에서 ‘가변(家變)’, 즉 집안의 변고로 인해 즉시 집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② 상소에서 정 승상은 ‘이 일이 비록 신의 집 일이오나 사사로이 처단치 못하와 이 연유를 자세히 아뢴다고 하고 있다.

④ 정 승상은 권선징악적 해결을 요청하고 있을 뿐,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므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정 승상은 왕비(모친)와의 대화에서 ‘소자의 제가치 못한 죄’라 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상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죄를 다스리고 금섬의 원혼을 칭찬할 것을 요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5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정렬부인 조 씨는 총렬부인 유 씨의 임신을 질투하여 유 씨를 해치려는 흥계를 꾸민다. 쟁총형 가정 소설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감안해 볼 때, 정렬부인 조 씨의 흥계는 총렬부인 유 씨

의 임신이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노 씨와 유 소저의 갈등은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전형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유모의 말에서 유 승상이 유 소저를 편애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모는 '노 씨가 덕이 없어와 같은 말로 노 씨와 유 소저의 갈등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② 전처소생에 대한 계모의 미움이 극에 달한 대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모의 말에 의하면 유 소저는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죽을 먹지 않고 그 죽을 개에게 주니 개가 죽게 되어, 이후 유모가 밥을 싸다 주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는 진실은 적절하지 않다.

③ 노 씨와 유 소저 간의 갈등은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전형적인 갈등에 해당한다. 정 사랑은 현재의 정 승상으로, 당시 계모와 유 소저 간의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정렬부인 조 씨는 충렬부인 유 씨를 내쫓기 위해 충렬부인의 정절이 의심받을 만한 상황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그녀를 해치려고 했다. 왕비, 즉 정 승상의 모친은 정 승상의 말을 듣고서야 조 씨의 말에 속아 자신이 충렬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흉계에 일조했음을 깨닫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정 승상의 말을 듣기 전에는 왕비가 조 씨의 참소를 곧이곧대로 믿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천득, 「수필」

| 해제 | 이 글은 수필의 특징을 함축적 비유를 통해 나타난 '수필로 쓴 수필론'이다. 글쓴이는 결국 수필을 쓰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자신의 생활 때문이라고 반성하는 고백적 목소리로 글을 맺고 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쓰지 못하고 초조하고 번잡하게 살고 있다는 결말의 탄식은 도리어 수필에 대한 사랑과 결벽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 수필의 특성 및 수필을 쓰는 태도

| 구성 |

- 처음: 수필의 본질과 성격
- 중간: 수필의 재료와 표현, 고백적 특성
- 끝: 수필을 쓰는 태도

254 창작 실현의 적절성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예상 독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문답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③ 수필의 성격과 특성을 다양한 대상과 소재를 동원하여 열거하고 있다.

④ 수필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동원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생활에 여유를 갖지 못하는 자기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5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은 글쓴이의 체험을 고백적,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수필의 내용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수필은 작가의 심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글쓴이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수필 창작의 어려움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수필은 수필만의 멋과 운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수필 주제 선정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④ ㉢은 글쓴이가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어 독자와 마주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는 자기 성찰과는 거리가 있다.

⑤ ㉣은 수필의 형식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김소월, 「그를 꿈꾼 밤」 / 백석, 「여우난골죽」

(가) 김소월, 「그를 꿈꾼 밤」

| 해제 | 이 시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불빛은 '그'를 떠올리는 매개가 된다. 화자는 그를 기다리며 그리움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불빛이라는 몽롱한 분위기 속에서 그를 느끼고 있는데, 이는 비몽사몽의 상태에 화자가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각적 이미지는 다시 '발자국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대체되면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더욱 또렷하게 만든다. 그래서 화자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다.

| 주제 | '그'에 대한 그리움

| 구성 |

- 1연: 한밤중에 보이는 불빛
- 2연: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에 대한 아쉬움
- 3연: 그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
- 4연: 여운처럼 남아 있는 불빛

(나) 백석, 「여우난골죽」

| 해제 | 이 시는 유년의 어느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쓴 작품으로, 다양한 친척들이 소개되고 그들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집에 모인 친척들의 수가 무척 많다는 느낌과 함께 그들이 서로 나누어 먹고 즐기 위한 음식과 정겨운 놀이 문화 등이 풍부하게 소개되고 있다. 화자는 어린 시절에 친척들과 어울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속에 녹아 있었던 풍요로운 풍물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주제 | 유년의 풍요로움에 대한 그리움

| 구성 |

- 1연: 명절을 쇠러 큰집에 간 '나'
- 2연: 큰집에 모인 친척들
- 3연: 설빔과 명절 음식들
- 4연: 민속놀이를 하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



256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는 그리워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나)는 어린 시절 명절 때를 떠올리며, 많은 친척들과 그날의 놀이, 음식 등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5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에는 놀이 제시에 평북 지방 방언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방언의 사용은 낯선 느낌과 더불어 신선한 느낌을 독자에게 주고, 현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불빛이 발갱게’는 ‘불’, ‘빛’, ‘발’의 ‘ㅂ’이 이어지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뒤척여도’ 대신 ‘뒤채도’란 방언을 사용하여 낯설고 신선한 느낌을 주며, ‘뒤척여도’를 ‘뒤채도’라고 압축하는 데에서 오는 묘미도 만들어 낸다.

③ 음식과 놀이를 여러 개 나열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풍요로운 삶을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평북 지방의 토속적인 풍물들을 방언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

258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는 ‘발자국 소리’를 내는 대상이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고, ㉢에는 ‘무이징계국’의 냄새를 맡으며 아침으로 먹게 될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

김유정, 「금 따는 콩밭」

| 해제 | 이 소설은 성실한 농사꾼 영식이 금의 유혹에 빠져 낭패를 보는 이야기를 통해, 일제 강점기 농촌의 열악한 현실과 일확천금을 바라는 인간의 허황된 욕망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당시 일제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부추긴 금광 투기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었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금 따는 콩밭’이라는 제목도 이러한 허황된 열풍을 풍자한 것이다. 영식 내외가 끝까지 자신들의 욕망이 무모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학성을 띤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 주제 | 일제 강점기 농촌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헛된 욕망

| 전체 줄거리 |

영식은 성실한 소작농이고 그의 친구 수재는 금점오로만 돌아다니

는 신세이다. 콩밭을 파 보면 금줄이 묻혀 있을 거라는 수재의 꼬임에 넘어간 영식은 잘만 되면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일시에 역전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와 아내의 부추김에 힘을 얻어 콩밭을 뒤엎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그러나 금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름과 동네 노인들은 영식의 행동을 보며 화를 낸다. 조금해진 영식은 쌀을 꺾다가 떡을 해서 정성스레 산제까지 지내지만 그 후에도 금줄은 잡히지 않는다. 절망한 영식은 태도가 돌변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고, 이를 보며 위기감을 느낀 수재는 거짓말로 금줄이 발견됐다고 소리친다. 영식 내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재는 오늘 밤에는 반드시 도망가리라 결심한다.

259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수재가 ‘구덩이’ 속에서 뛰어나오며 손에 들고 있는 ‘항토’는 오늘 밤에 달아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영식이네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데 동원된 수단이다(①). 그게 금줄이라는 수재의 거짓말 때문에, 영식과 그의 아내는 언제 싸웠냐는 듯 화해하고(②), 아내는 코다리와 고무신에 관한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성급히 기대하지만(⑤), 오늘 밤이 지나고 나서 수재가 달아났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영식에겐 이후에 더 큰 절망과 분노가 남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④). 그러나 수재는 그 ‘항토’가 ‘곰색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경제적 고난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낙관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③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260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금광 열풍이 부는 세태에 대한 영식의 처의 생각을, ㉢은 금맥이 발견됐다는 수재의 말을 들은 영식의 느낌을, 그리고 ㉡과 ㉣은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느끼는 수재의 위기감을 각 인물의 시각에서 그대로 진술한 문장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작중 인물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26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수재는 영식이 아내를 때리는 모습을 보며, 저러다간 영식의 분풀이가 자신에게로 슬그머니 옮겨올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조바심을 느낀 것이다. 유망한 금광을 지원하는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조바심을 느낀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영식의 아내는 ‘금점 덕택에 남편이 사다 준 흰 고무신을 신고 나뭇나뭇 걷는’ 뒷집 양근맥을 부러워하면서, 콩밭에서 금이 쏟아지면 자신도 얼른 ‘흰 고무신도 신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금광에서 일하는 남편 덕에 호강을 하고 있는 ‘뒷집 양근맥’은, 영식의 아내가 보기에 금광으로 부자가

된 이들 중 하나일 것이다.

③ 황금 열풍이 불던 당시 세태에 관해 서술한 부분에서 ‘자, 보아라. 머슴들은 짜기나 한 듯이 일하다 말고 후딱하면 금점으로들 내빼지 않는가. 일꾼이 없어서 올해 농사를 질 수 없느니 마느니 하고 동리에서는 떠들썩하다. 그리고 변동 포농이 쫓아 호미를 내던지고 강변으로 개울로 사금을 캐러 달아난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질 만큼 비정상적인 황금 열풍이 불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④ 영식은 수재의 설득에 넘어가 콩밭을 파헤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딴은 일 년 고생하고 깝 콩 몇 섬 얻어먹느니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다. 하루에 잘만 캔다면 한 해 줄곧 공들인 그 수확보다 훨씬 이익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웃값, 품삯, 빛에 나날이 줄리는 절망적 농촌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⑤ 수재는 금맥을 찾아 팔자를 고치자며 영식을 꼬이고, 소작농인 영식은 그 말에 설득되어 자신이 부치고 있는 콩밭을 마구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작가는 두 인물이 ‘금을 캐는 것’을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하층민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허전, 「고공가」

| 해제 | 조선 중기에 허전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110행의 가사이다. 임진왜란 직후 나라의 혼란한 상황을 집안의 상황에 비유하여 비판하는 내용으로, 옛 고공(머슴)과 달리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는 요즘 고공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작자는 고공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당시 신하들의 나태한 태도를 고발하고 있으며, 주인의 말을 빌려 이와 같은 문제를 고쳐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작품 속에는 다양한 우의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는데, ‘조부모’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여드레 같이’는 조선의 팔도를, ‘강도’는 임진왜란 때 쳐들어 온 왜적을, ‘죽조반 아침저녁’은 나라에서 주는 녹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 후에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하들이 먼저 각성하고 상부상조(相扶相助)하며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 주제 | 고공(머슴, 신하)에 대한 충고를 통해 제시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 구성 |

- 서사(1행~3행): 새끼를 꼬면서 고공들에게 말을 건넌.
- 본사1(4행~10행): 큰 집을 짓고 텃밭을 넓힐 때 근검하게 일했던 옛 고공들
- 본사2(11행~15행): 자기 잇속을 먼저 차리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요즘 고공들
- 본사3(16행~19행): 강도로 인해 가산까지 탕진한 집안의 상황
- 본사4(20행~21행): 고공들에게 새 마음을 먹을 것을 촉구함.
- 결사(22행~31행): 제 일만 하려 하는 고공들에 대한 비판과 충고

262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주인’의 입장에서 ‘고공(머슴)’들의 행동을 경계하고 고칠 것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제시된 부분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4음보 연속체의 가사 작품으로 음보율을 활용해 리듬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② 첫 행에서 ‘고공아’ 하고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 호명하여 독자의 주의를 끌고 있다.

③ 근검했던 ‘과거의 고공’과 ‘요사이 고공’들을 비교하며 ‘요사이 고공’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⑤ ‘-느냐’, ‘-기’와 같은 의문형 어미, ‘-이로다’, ‘-다’와 같은 평서형 어미, ‘-려무냐’와 같은 명령형 어미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화자가 요구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26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의 표현 중에 ‘죽조반 아침저녁 다 해다 먹었거든’이라는 구절을 보면,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시적 화자가 고공들의 먹을 것을 제때(제대로) 챙겨 주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공들에게 최선을 다해 함께 집안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인이 먹을 식사를 때맞춰 준비’하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③, ⑤ 화자는 ‘고공’들에게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여 ‘제 일만 하려 하지 말고 ‘크나큰 세간살이’에 신경을 쓸 것을 요구하면서 ‘새 마음’을 먹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화살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옷과 밥만 다투’는 고공들을 나무라고 있다.

264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고공답주인가」로서 ‘고공’이 ‘주인(마누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네 줄을 보면 ‘중들을 휘어잡으시고’, ‘상벌을 밝히시고’, ‘어른 중을 믿으소서’라는 주인에 대한 고공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강도’, ‘불한당 구멍 도적’을 언급하며 외부의 적이 집안을 넘보아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은 ‘주인’이 ‘고공’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글에는 ‘주인의 잘못’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⑤ 이 글에서 화자인 ‘나’는 ‘고공’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따를 것이라 기대한다고 보아야 한다.



조위환, 「최척전」

| 해제 |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전란으로 인해 한 가족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임진록」, 「박씨전」 등 당대의 전란을 배경으로 한 많은 고전 소설들에서는 민족적 영웅의 무용담이 나오는데, 이는 전쟁으로 실추되었던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에 비해 이 작품은 전란으로 인한 당대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재에 수록된 것은 정유재란 중에 최척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 주제 | 전란으로 인한 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 전체 줄거리 |

남원에 사는 최척이 부친의 친구인 정 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옥영이 창틈으로 최척을 엿보고 그에게 마음이 끌려 시를 써서 보낸다. 결국 최척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혼사를 반대하는 옥영의 어머니를 설득하여 마침내 둘은 약혼을 한다. 그런데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왜적이 침입하고, 최척은 남원 지역의 의병이 되어 참전한다. 혼인날이 지나도록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옥영의 어머니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하지만, 옥영은 이에 반대하여 최척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드디어 두 사람은 혼인을 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만아들 몽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는데, 이때 옥영은 왜병의 포로가 되고 최척은 흩어진 가족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만나 형제의 의를 맺고 중국으로 건너가 살게 된다. 여유문은 최척을 자신의 매부로 삼으려 하지만 최척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한편 일본에 잡혀간 옥영은 남자로 행세하면서 불심이 깊은 왜인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상선을 타게 된다. 여러 해가 지나 여유문이 죽자 최척은 항주의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최척은 안남에서 아내 옥영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이들은 중국 항주에 정착하여 둘째 아들 몽선을 낳아 기르며 십수 년간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몽선이 장성하게 되자 홍도라는 중국 여인과 혼인을 시키는데, 홍도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전했다가 실종된 진위경의 딸이었다. 이듬해 호족이 침입하여 최척은 아내와 아들과 헤어져 명나라 군사로 출전하였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는데, 그는 포로수용소에서 조선 장수인 강홍립을 따라 출전했다가 청군의 포로가 된 만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한다. 한편 옥영은 몽선, 홍도와 함께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 모든 일가가 다시 해후하여 단란한 삶을 누리게 된다.

265 서술상 특징 및 효과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는 최척의 가족이 왜구의 침입으로 뿔뿔이 흩어진 뒤 각기 다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밝히고 있다. 즉, 최척의 아버지와 옥영의 어머니가 왜구로부터 탈출하여 연곡사에서 몽석을 만나는 사건, 옥영이 왜구에게 잡혀 일본에 가는 사건,

최척이 명나라에 가서 사는 사건은 유사한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각 사건은 '이때', '한편'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전환된다. 이처럼 이 글은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병치되어 입체감을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당대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속마음과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당대 사회를 풍자하지는 않았다.

② 이 글에서 인물의 성격은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거나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상징적 소재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③ 이 글은 여러 인물들의 처지를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이 글은 현재 장면의 사이에 과거 장면이 삽입되는 역순행적 구성이 아니다.

266 내재적 접근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옥영이 남장을 했다는 이유로 최척과 헤어져 왜국에 끌려간 것은 아니다. 최척이 옥영에게 남장을 하게 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옥영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최척은 가족이 죽었는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졌지만,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섬진강으로 가족을 찾으려 간다.

③ 왜적에게 잡혀가 몇 번 죽으려고 시도한 옥영은 꿈에서 장육금불을 본 뒤에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④ 돈우는 힘이 많이 드는 남자들의 일을 하지 못하지만 바느질과 밥 짓는 일은 할 줄 안다는 옥영의 말을 믿고, 그녀를 자기 배에 태워 부엌일을 하도록 하였다.

⑤ 최척은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자신의 처지를 밝혀 동생과 결혼하라는 여 공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267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한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과 [A]는 모두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주제 의식은 다르다. 이 글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힘없는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A]는 영웅을 등장시켜 허구적 사건을 통해 적군을 굴복시키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가는 민족적 치욕을 허구적 사건을 통해 위로 받으려 했던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옥영의 꿈에 장육금불이 나타나는 것을 전기적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인물 간의 갈등과 별 관련이 없다.

② 이 글은 [A]와 달리 영웅을 등장시키지 않고 평범한 백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③ 이 글은 [A]와 달리 조선이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④ 이 글에서도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구걸하며 떠돌다 가게 된 연곡사에서 몽석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연적 사건이 나타난다.

268 관용적 표현의 이해 및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최척의 아들인 몽석은 시체 더미 속에서 살아나 조부와 외조모를 만나게 되었다. 혜정 스님은 이 사건을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천우신조(天佑神助)’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천려일실(千慮一失):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는 잘못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

② 천신만고(千辛萬苦):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③ 천양지차(天壤之差):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⑤ 천의무봉(天衣無縫):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는 뜻으로,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을 이르는 말.

작자 미상, 「봉산탈춤」

| 해제 | 황해도 봉산 지방에서 전승되던 가면극으로 오락성과 예술성, 풍자성이 뛰어난 민속극이다. 전체 7개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장은 독립적, 개별적으로 구성된다. 제시된 부분은 여섯 번째 과장인 양반 과장으로, 양반을 모시고 다니는 말뚝이가 관객 악공과 함께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무시함으로써 그들을 희롱하는 부분이다. 특히 말뚝이는 익살스러운 말투와 과장된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사물을 열거하고 대비시키면서 웃음을 주고 양반들의 지시를 따르면 서도 그 품격을 깎아 내려 양반 계층을 풍자하고 있다.

| 주제 | 신분적 특권 계급인 양반에 대한 조롱과 풍자

269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는 새처를 정하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양반의 허위 의식을 풍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양반들의 비정상적인 외모와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양반을 희롱과 야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설정이다.

②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한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관객을 극중 상황에 참여시켜 함께 양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말뚝이의 변명은 겉으로는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하지만, 내심 양반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깔려 있다.

270 장면의 특성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A], [B]는 모두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질책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으로 이어지는 재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탈춤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므로 장면의 전환이나 공간의 변화는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전달된다.

③ [A]와 [B]의 두 장면 사이의 특별한 인과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④ [A], [B]의 굵기(굵기)는 신명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무마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지는 않는다.

⑤ [A]보다 [B]로 진행될수록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조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